

광산

1977





77年度 空軍士官学校 第25期 士官生徒 卒業 및 任官式 举行<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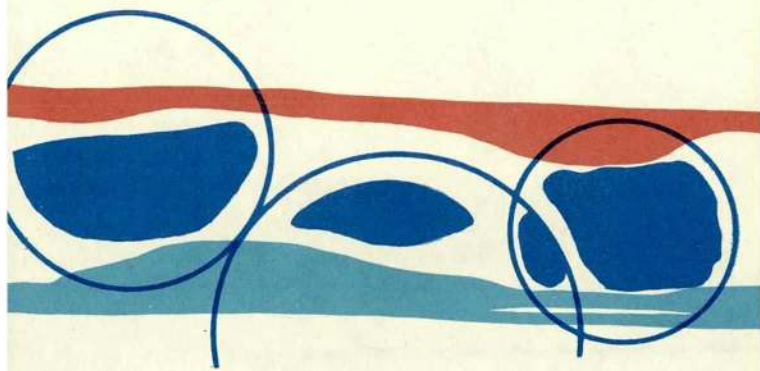




佛教振興院長 具泰会(国会副議長)氏が 空軍本部로 周永福
參謀總長을 礼訪하고 法堂建立基金을 伝達했다〈4. 8〉

美 空軍 軍需司令官 Felix M. Rogers大將이 訪韓 人事次
空軍本部를 礼訪〈3. 30〉





공군 제158호

卷頭言

論壇

3·1運動과 民族精氣

祖國의 發展像과

特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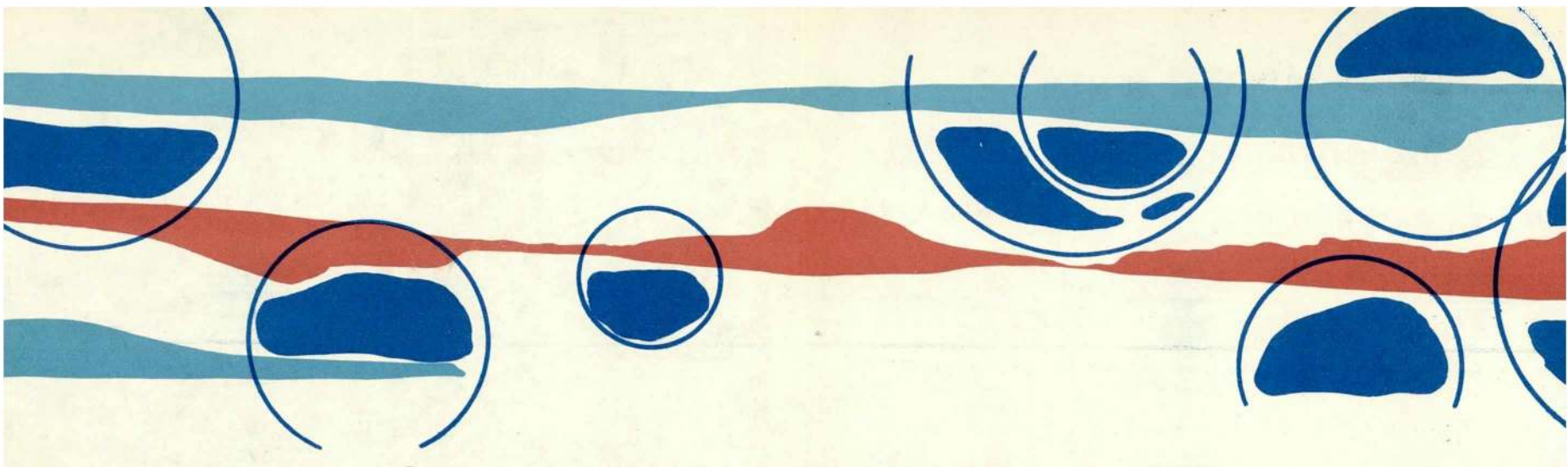
새 国力發展의 確認과 点火…
自主國防과 「80年代」以後…
發展哲學으로서의 民族의 主
祖國의 發展像과 우리의 覺悟

韓民族의 國家觀

共産黨 組織理論과 北傀勞動黨

韓國의 經濟成長 分析

美國 行政府의 對韓政策觀



화보 · 사진으로 보는 부대소식

표지 · 차례화...엄낙황 컷 · 삽화...정동균

..... 政訓監 閱 丙 奎 (2)

..... 朴 慶 華 (4)

課題

..... 尹 宗 鉉 (10)

..... 李 讚 九 (17)

..... 崔 昌 圭 (23)

..... 朴 贊 癸 (30)

..... 姜 容 求 (36)

..... 河 辰 鎬 (43)

..... 編 輯 室 (50)

..... 編 輯 室 (56)

航空 · 軍事 · 科学

- 하늘의 勇士 梁 宸 錫 (62)
- 우리나라 航空産業의 将来 < 1 > 林 貞 赫 (73)
- 電子戰運營 < 1 > 明 正 秀 (89)
- 次期 戰鬪機 F-18의 全貌 尹 快 煥 (99)
- MIG-25機에 對한 最新資料分析 張 瑢 淳 (107)
- Roland 미사일의 威力 李 希 權 (114)
- 새로운 4次元 戰爭 朴 熙 大 (120)

◇ 空軍漫像 鄭 雲 燮 (126)

隨 筆

- 젊은 장교에게 毛 允 淑 (128)
- 이상적인 청년상 李 鍾 勝 (130)
- 저다와지는 길 全 英 雨 (132)
- 태극기의 사연 馬 郁 (134)

短篇小說 約婚女 A · 체 흡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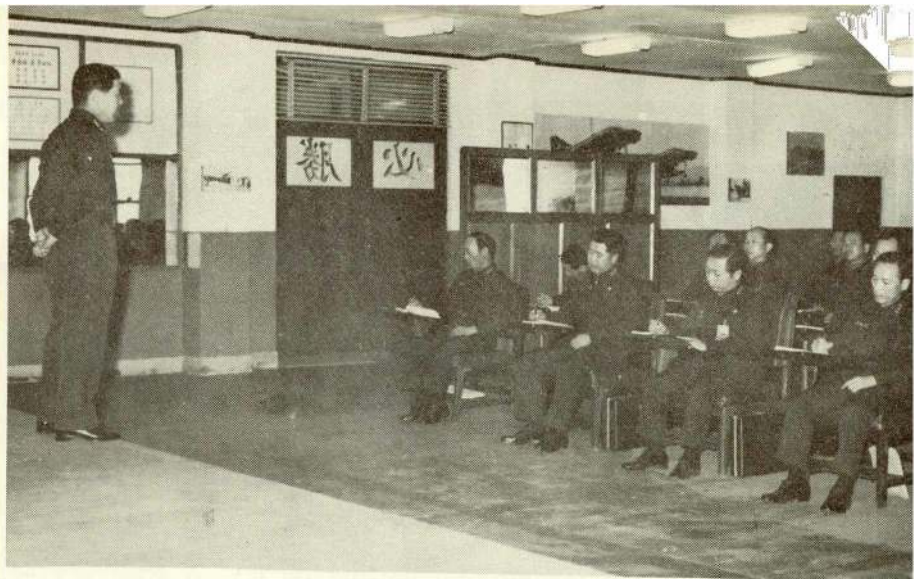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77年度 高級將校 새마음 教育課程에서 訓示하는 周永福
參謀總長〈4. 13〉

美 314師團長 Robert C. Taylor少將이 新任 人事次
空軍本部를 禮訪〈4. 18〉





기지 체육관 준공 < 3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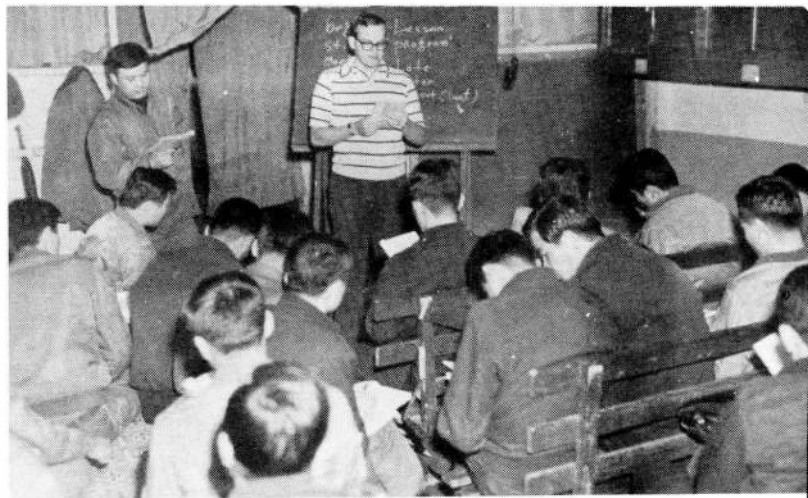
— 제3726부대 —

대민 무료 진료 활동 전개 < 3 . 7 >

홍보교육도 실시

— 제5482부대 —





영어 교육 실시 < 3. 3 >

- 제5482부대 하사관단 -



필승의 날 운영 시범 < 3. 9 >

- 제3726부대 -



9 개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3 . 13 >

— 제3591부대 —

필승의 날 군가 경연대회 < 3 . 16 >

— 제7583부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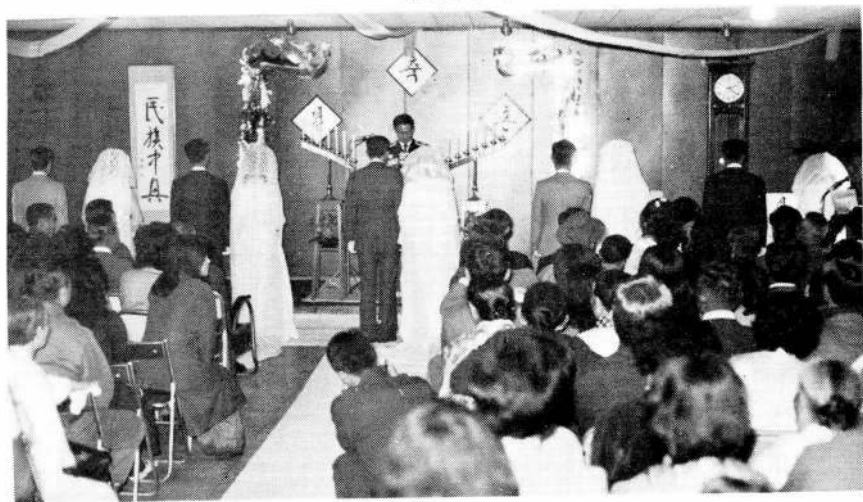


영암군 탐동 부락과 자매결연 <3. 16>
군민 유대 강화에 기여

—제3252부대—

진중 합동 결혼식 거행 <3. 16>

—제5726부대—





77- 1 차 공지작전교육 수료식 < 3 . 18 >

- 제7583부대 -

제5482부대에 피아노 1 대 기증 < 3 . 18 >

- 미 육군 「레드포드」목사 -





대민 진료 활동 전개 < 3 . 21 >
- 제5672부대 -

군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 < 3 . 23 >
- 제5482부대 군인가족들 -





장교 부인회서 장병 위문 < 3 . 23 >
특식 마련해 급식

- 제5482부대 -

헌혈운동 전개 < 3 . 24 >

- 제2695부대 장병들 -





식목행사 거행 < 4 . 5 >

—제8639부대—



장병 위문 공연 < 4 . 11 >

부대 창설 기념행사로

—제2695부대—

공군

제 158 호

1977년 제2호



◇ 軍人의 길 ◇

나는 榮光스러운 大韓民國 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統一에 있다.
期必코 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軍律에 있다.
엄숙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氣 品

奎 丙 閱 將 准 軍 空 監 訓 政

벌써 20餘年 前의 일이다. 休戰 後 우리 的 軍을 肅 敬 地 자리 잡 게 하 기 爲 해 留 學 生 們 이 美 國 へ 出 發 했 을 때 한 젊 은 空 軍 將 校 가 “뉴 올 린 스” 의 14 層 放 送 演 奏 室 在 리 9 名 의 “메 트 로 폴 리 탄 오페 라” 協 會 審 查 委 員 們 前 에 上 氣 된 얼 굴 로 서 있 었 다. 그 리 도 貴 한 機 會 인 줄 도 모 르 고 “오 디 션” 을 끝 마 친 將 校 는 韓 國 音 樂 에 對 해 서 물 는 審 查 委 員 們 의 물 음 에 愛 國 心 에 가 득 찬 가 슴 을 펴 고 雅 樂 을, 民 謠 을, 그 리 고 玄 濟 明 氏 의 “오페 라” 「春 香 傳」 을 말 하 고 있 었 다. 神 奇 함 을 감 觸 수 없 는 눈 으 로 그 러 나 眞 摯 하 고 理 解 深 은 마 음 이 온 방 안 에 가 득 찬 속 에 나 누 는 한 時 間 의 對 話 는 그 將 校 에 對 해 大 國 的 威 嚴 과 包 容, 文 化 를 그 리 고 氣 品 까 지 를 느 기 게 하 였 음 을 이 제 까 지 感 動 으 로 간 직 하 게 하 고 있 다.

이 제 將 星 이 된 그 젊 은 將 校 는 가 끔 그 氣 品 이 어 디 서 우 려 나 는 것 일 까 생 각 해 본 다. 佛 蘭 西 系 貴 族 血 統 을 자 랑 으 로 여 기 던 審 查 委 員 長 의 血 統 在 리 일 까 首 肯 을 해 보 고, “보 스텐” 의 牧 師 과 音 樂 家 의 사 이 에 서 태 어 났 다 는 白 髮 의 委 員 會 長 으 서 家 庭 教 育 을 首 肯 해 보 기 도 하 면 서, 그 러 도 自 己 一 人 의 一 生 을 바 치 는 人 間 的 達 觀 을 가 장 首 肯 하 는 것 같 아 이 것 이 善 惡 의 結 論 일 까 생 각 해 본 다.

4310年 的 歷 史 를 이 으 면 서 我 們 의 周 邊 에 서 는 30餘 個 的 民 族 國 家 들 이 生

成衰亡하여 갔단다. 그리고 남은 나라는 中國民族과 韓民族뿐—!! 武力으로 吸收해 버리려 했던들 그리 어렵지 않았을 이 民族을 무엇이 지켜왔을까, 또 가끔 생각해 본다. 아침해가 돌아 오르듯 맑은 叡智, 北方民族의 骨格을 이은 끈질긴 體力, 맑은 하늘과 깨끗한 물이 뻗 아름다운 江山,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燦爛한 文化를 이룩하려는 慾求가 없었던들 現在로까지 價値지위 질 수 있었을까—!?

經濟大國으로 발돋움하고 北과의 對決에서 經濟를 앞세워 이겨내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或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民族 原來의 文化를 우리가 지키고 있기에 世界가, 人類가 大韓國民을 正統的인 韓民族이라고 생각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직도 하다.

自己 것을—道德, 慣習, 宗教, 藝術, 制度까지—오래 오래 간직하면서 時代에 맞춰 發展시키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氣品이라고 先人 이 말함을 記憶한다.

中共이 國境紛糾를 일으키면서도 大의으로 侵攻하지 못하는 理由中의 하나를 印度가 지닌 오랜 歷史를 통해 이어온 文化 精神的인 國際的 “이미지”라고 말하는 學者의 얘기가 理解가 갈 것 같다.

이제 世界가 다 그리 아는 狂人의 集團 北傀만을 意識하고 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固有의 文化를 우리만이 간직하고 키워가는 氣品있는 民族으로 누구나가 그리 알도록 눈을 안으로 돌려 좀 더 우리를 알자.

個人이나 社會나 民族이나 서로의 사이를 가장 오래 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지닌 文化요, 教養이요, 品位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지내자.

氣品은 勇氣도, 知識도, 技術도, 體力까지도 모두 包容하고 있기 때문이다.



3
·
1
— 運
— 動
과
— 民
— 族
— 精
— 氣

朴

慶

華

△慶熙大教授▽

1.

近者에 와서는 3·1節 紀念行事가 쓸쓸할 정도로 간소하게 치루어져 8·15적 후 民族陣營은 서울運動場에서, 左翼은 南山에서 서로가 參加人員數를 誇示하면서 氣勢를 올리다가 드디어는 街頭에서 流血衝突事件을 빚어내곤 하던 時節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 때처럼 법석을 떨 것까지는 없겠고 그동안 歲月이 흘러 日帝로부터 解放된지 어언 30有餘年이 지났으며, 日本과의 관계가 敵對的이라기보다 앞으로는 正反對의 方向으로 되어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는 하나 너무나 쓸쓸한 것 같다.

3·1運動의 意義는 날이 갈 수록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하고, 3·1精神은 더욱 굳게 다져져야 한다. 그것은 逆說的인 이야기지만, 다시는 3·1運動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3·1運動은 어떻게 評價되어야 할까? 「3月 1日 단 하루에 끝나버린 일종의 코메디(Comedy)」라고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韓國을 연구한답시는 어떤 철부지 外國學者가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國史學의 泰斗 李 瑄根 박사는 1773년의 보스던 티이·파이티나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바스티우 破獄事件도 「단 하루에 끝나버린 일종의 코메디」냐고 말하고 있다.

外國人の 그런 評價는 모르긴 하거니와 解放直後 左翼 분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左翼에선 앞서도 말한 것처럼 3·1節 記念行事를 너무나도 거창하게 치르곤 했다. 무슨 配給을 준다고 순박한 시골 農民들을 甘言利說로 꼬여서는 트럭에 실어 날라. 南山 廣場을 꼭 메우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3·1運動의 意義를 인정해서가 아니었다.

다만 民族陣營의 紀念行事에 맞서보기 위해서 설켰을 뿐이다. 자기네들 陣營의 人士라곤 한 사람도 끼지 않았던 3·1運動에 대해서 그들은 순수한 民族感情으로 是認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偏見에서 토라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天道教 人士 15人, 基督教 人士 16人, 佛教側 人士 2人으로 구성되었던 民族代表 33人에 대해서는 酷評을 서슴치 않았다. 民族主義者일 뿐 아니라 反共人士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外國人들의 評價에 神經을 쓸 필요는 없을는지 모르나 3·1運動 당시 그 모습을 지켜 본 英國의 新聞記者 맥켄지씨는 「1919年 봄 日帝에 항거하여 일어난 韓國國民의 평화적인 蜂起는 全世界의 耳目을 놀라게 했다. 그 때까지는 온 世界的 政治家들이 未開하고 劣等한 百姓이라고 烙印적고 있었던 그 韓民族이 오늘 날에 와선 아주 整然한 秩序 아래 영웅적 行動을 전개하고 있다」고 評했다.

2.

「3月 1日 단 하루에 끝나버린 일종의 코메디」라고 評하는데도 一理가 있어 보인다. 특히 33人 民族代表者들의 處身이 그런 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들의 舉事는 단 하루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당시 軍事의으론 말할 것도 없고 政治的 社會的으로 완전히 去勢되어 있던 韓民族으로서의 國內에서는 어떤 形態, 어떤 規模의 것이건 武力抗爭이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世界 第1次大戰의 終末과 美國 윌슨大統領의 14箇條 中の 民族自決主張 等 國際動向을 감안해서 極刑을 자오하고 평화적인 示威를 버리자는 心算이었다. 獨立宣言文에 있는 그대로 「威力的 시대」는 가고 「道義의 시대」가 왔다고 錯覺했던 것이다. 또 당시의 國際情勢는 日帝侵略下의 韓國에서 어떤 形態의 것이든 獨立運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1825年에서 30年에 걸쳐 印尼의 자바 島에서 당시 和蘭을 主軸으로 삼는 西方資本主義 諸國의 植民政策을 반대해서 일어난 大叛亂이 있었고 1850年에서 64年에 걸친 中國의 太平天國運動 또 1857年에 있었던 印度의 세포키(Sepoci)의 叛亂事件, 1900年의 中國 義和團事件 等 아직 民族意識은 박약하고 組織力도 모자

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一連의 民族運動이 연이어 일어났고, 특히 1917年 帝政러시아를 뒤엎은 볼셰비키革命은全世界에 커다란 衝擊波를 일으켰다. 특히 아시아地域의 民族解放運動을 크게 刺戟하여 1920年代 印度의 不服從運動을 일으켰고 또 中國의 知識人, 學生들이 펼치던 不平等條約 廢棄運動인 5·4運動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國際的 動向下에서 韓民族이 아무리 「未開하고 劣等한 百姓」이었다 할지라도 3·1運動을 일으키지 않고는 못 배겼을 것이다. 그런데 必然之勢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3·1運動을 좋게 말해서 「平和的」이고 나쁘게 말해 「코메디」인 示威運動으로 끝내려 했더니 문제가 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武力抗爭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당시로서는 日帝에 대한 道義的 信賴心이 약 있었건 없었건 平和示威로 될 수 밖에 없었는데 民衆의 憤怒는 그것으로 그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코 33人 民族代表者들의 豫想을 엄청나게 웃도는 事態였다. 그리하여 3月 1日 서울 파고다公園에서 點火된 民衆의 憤怒는 3, 4月 두달 동안에 걸쳐 全國의 坊坊曲曲을 萬歲示威와 流血報復으로 뒤덮어 全世界의 耳目을 놀라게 했다. 平和的 示威에 대한 報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日本은 장차 아무리 善政을 편다고 해봤자 과거의 失績에 비

추어 볼 때 韓國人을 다스릴 能力이 全無하다」고 어떤 西洋人은 評했다. 어떤 시골 아주머니는 萬歲示威에 참가했다가 체포되고서는 심문하는 警官에게 이렇게 대들었다고 한다.

「너는 답을 못 봤냐? 답이 새벽에 우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느냐? 나라가 獨立한 瑞光이 비치니 내가 저절로 만세를 부른 것이지.」 民衆의 底力은 엄청났다. 누가 이 民族을 事大主義的이라 하였는가? 支配層은 때로 事大的이긴 했다. 가령 高麗朝 朝廷이 원나라에 대해 완전히 事大的이었던 例는 있지만 民衆은 檀君 以來 事大를 아랑곳 없었다.

韓末의 美國의 知韓人士 럼버트는 원래가 異民族의 奴隸로 구차하게 生存한다는 것은 自由魂에 비추어 죽는 것만 같지 못한 일이라 韓民族은 「그런 決心이 있었기에 그렇게 奮起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3·1運動을 評하고 있는데 外人들의 評價도 極에서 極이라 할 정도로 相馳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當惑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여기서 私說—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을 좀 늘어놓을까 한다. 원래 論客도 아니요 國史學徒도 아닌 사람이 이 글을 쓰겠노라고 즉각 수락한 것은 사실인즉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였다.

10餘年前 일이다. 당시는 哲學概論이 1, 2學期에 걸쳐서 강의되던 시절이다. 여름放學 속제로 「思想性이 짙은 책 한 권씩 읽고 讀後感을 200字 원고지 몇 장씩 써내라」는 과제를 내주고 하던 때였다. 2學期 개강 후 레포르트를 받아서 整理하다 보니까 어떤 學生이 韓非子를 읽고 그 讀後感을 그것도 아주 流麗한 筆致로 적어낸 것이 눈에 띄었다. 사실 말이지 당시 나는 近 3千名 學生을 혼자 담당하고 있었으니 레포르트는 같은 것을 읽어본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평소엔 관심을 두었던 學生, 특히 女學生 것이면 한 두장 뒤지면서 눈이나 스치는 것이 고작이었고 또 評點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誠心誠意를 다한 學生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안쪽 筆答試驗만 가지고 評點하곤 했다. 그러나 韓非子 讀後感만은 몇장 읽었다. 新義州高等學校 시절에 基礎 中國語를 배웠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할 수가 있었다. 얼마쯤 읽어가다 화가 났다. 文章讀解가 안 되었던 때문인지?

다음날 그 學生을 講義時間中에 불러 세웠다. 王某라는 서울 華僑學校 出身 學生이었다. 擔當교수의 事前 承諾도 없이 學生 자신의 母國語로 레포르트를 작성해 낼테 대해서 심하게 꾸짖었다.

「너 이 자식 같으니라구. 이거 날 죽으라구 쓴거야 살라구 쓴거야? ……네놈의

자식이 다른 나라, 가령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留學을 가서도 이 따위 짓을 하겠어? ……너희를 걸핏하면 我是中國的人 어찌구 하지만 그래 中國의人 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그러고 나선 내 그 장한 솜씨로 東部 아시아의 地圖를 그리고서는 黃河를 그려 넣고 그 流域에 조그마한 등그라미를 그렸다. 「漢族은 과연 우수하고 두려워할만한 部族이야. 그런데 원래 그들은 黃河 下流地方에 모여 살면서 洪水에 시달려 오다가 禹王 때 힘을 모아 堤防을 쌓고서는 國基를 닦았어. 그런데 무서운 部族이거든. 東西南北 四方에 있는 野蠻族들과 數千年間 싸워오는 동안 政治的 軍事的으로 異民族에게 정복되기도 했고 정복하기도 했는데 精神的으로나 文化的으로 꾸준히 정복해 왔단 말야. 실로 무서운 힘이었어. 그런데 學生들! 잘 들어봐요. 그토록 엄청난 文化的 征服力이었지만요 鴨綠江과 豆滿江은 넘지 못했더라 이거야. 이 두江만 건너서면 모든 것이 싹 달라져. 알기 쉽게 服飾부터가 전연 달라. 男服이건 女服이건 韓服은 세계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비슷한 것을 찾아 볼 수 없는 獨特한 거야. 전문적인 研究家들이 볼 때엔 우리의 服飾도 다른 나라 것의 影響을 많이 받았겠지만 놀랍도록 우리의 것을 많이 지니고 있어 建築樣式도 그래. 鴨綠江만 건너

면 마을의 風景이 그토록 달라질 수가 없어. 建物들의 모양이 判異하지. 우리나라 國寶 1號인 南大門이 北京의 어떤 建築物를 닮았다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模倣性을 지니고 있다는 소리인지 모르나 外部 文物의 影響을 전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文化的 精神的 閉鎖主義로 文化的으로 早晚間 窒息死를 免할 수 없을 것이야. 특히 言語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文字 한글을 創案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도 훌륭하지만 바로 4~5百年前까지만 해도 우리 文字 없이 漢字文化의 그 무섭도록 強力한 影響을 받아오면서도 우리 言語를 곳곳하게 지켜 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가령 滿洲族을 예로 든다면 그들도 자기네 言語를 가졌었어. 國語學者 李 基文 교수한테 듣자니 지금도 滿洲의 山間僻地에 갈 것 같으면 滿洲語를 얻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렇다면 滿洲族보다 더 소위 中原 안쪽에 있던 數十 혹은 數百 아니 數千數萬의 部族들이 滿洲族과 마찬가지로 자기네 言語를 잃어버리고 「我是 中國的人」 어찌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이다.

滿洲族은 최근까지 大清帝國으로 中原을 政治的 軍事的으로 완전히 制霸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꼴이 된 걸 생각하면

실로 可笑로운 百姓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我是 中國的人」하곤 하는 치들 가운데 99% 이상이 바로 그 可笑로운 百姓이라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4.

사실이지 韓民族의 엄청난게 강한 主體性은 漢族의 文化的 征服力을 끝끝내 막아내고 말았다. 王某學生의 韓非子 讀後感件으로 民族의 主體性을 강조하고 나서 오래 後에 또 놀란 일이 있었다. 越南에 가서 그들의 言語風習이 앞서 말한 滿洲族의 漢族化 못지 않은 것을 알고 놀랐다. 그들의 平常服은 滿洲族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나중에 또 말하겠거니와 亞熱帶地方 人의 服裝이 亞寒帶地方民의 그것과 같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 색마저 왜 똑같이 검은 색인가? 亞熱帶와 亞寒帶의 服裝이 말이다. 言語도 獨立 國民으로서 言語道斷이었다. 學生들을 인솔하고 派越將兵을 위문하러 간담시고 航海하는 배 안에서 우리가 배운 첫 越南 말은 「같은꼬오」라는 것이었다. 漢字로 쓰면 「感恩姑」, 그 뜻은 「아가씨 고맙습니다」라는 것이다.

원래 語族이 같았던 탓도 있겠지만 그때도 中原 邊方에선 가장 主體性이 강했던 비에트(越)族이 그 자랑스럼던 主體性을 그토록 잃어버리고 말다니 참 놀라

은 일이다. 歸路에 臺灣에 들었을 때엔 앞서 越南과 滿洲의 服裝에 관해 놀랐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衝擊을 받았다. 臺灣의 祠堂과 滿洲의 그것이 外線은 똑 같았다. 다시 말하거니와 亞熱帶地方의 建築이 亞寒帶地方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 이것은 洛陽의 것이었던 北京의 것이었던 同一한 것을 똑같이 模倣한 그 兩部族의 事大的 根性이 빛어낸 醜態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韓國民族의 自主와 獨立 나아가서는 民權을 곳곳하게 지켜내려는 強靱한 精神은 3·1運動과 멀리는 花郎精神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심히 哀惜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時代가 내려오면서 指導層과 民衆의 사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花郎들의 時代에는 指導層이 民衆의 立場을 서서 國難을 打開해 냈다. 우리가 다 아는 官昌, 左將軍 品日의 아들이면서 國難에 殉死한 官昌에 관한 이야기나 또 金庾信의 아들인 元述郎에 관한 이야기는 다 그 당시의 指導層의 姿勢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高麗朝에 내려오면 벌써 國民의 上下 사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좋은 예가 高麗 高宗 때 몽고의 원수 살리타이(撒禮塔)가 侵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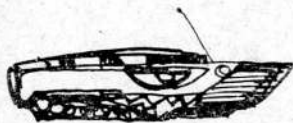
왔을 때의 忠州戰鬪의 경우라 하겠다.

그 때 忠州는 兩班別抄와 奴隸雜類別抄가 지키고 있었는데 兩班들로 구성된 軍士들은 다 도망쳐 버리고 奴隸雜類別抄가 金侯侯將軍의 지휘아래 끝까지 奮鬪하여 70餘日에 걸친 몽고軍의 맹렬한 攻擊을 이겨냈다. 후에 다시 돌아온 兩班別抄들은 奴隸別抄가 자기들의 財物을 축냈다고 트집을 잡아 行悖를 부렸다고 한다.

3·1運動 당시의 兩班層은 어머렸는가. 韓·日合併後 庶民들 못지 않게 兩班들도 괴로움을 당했다. 總督府가 制定公布한 會社令으로 인해 民族資本을 育成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 鐵道, 港灣, 通信, 航空은 總督府에서 掌握하게 되었다. 兩班層은 生存의 根本的 欲求를 채울 수가 없었고 不安을 除去할 方途가 없었으며 民族差別의 受侮를 받아야 했지만 그런대로 生活의 威脅은 안 받으니까 諦念해버리고 말았다.

3·1運動은 後世에 와서 事大라는 陋名을 쓰게 된 때부터 指導層에게서는 사라져 버렸던 이 民族의 精氣가 民衆 속에서는 綿綿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의 先人들이 스스로 確認하고 世界萬邦에 誇示한, 우리 歷史上 가장 빛나는 民衆運動이었다. 앞으로의 우리 課題는 民衆들에 의해 이어져 온 民族精氣를 全 國民의인 것으로 삼는데 있다고 하겠다.

새 國力發展의 確認과 點火



尹 宗 鉉

<韓國日報 論說委員>

77년과 더불어 몇개의 發展塔이 새로 우뚝 솟아올랐다. 분명히 우리 韓國의 前進를 상징하는 것 들이다. 또 장차 역시 계속 뻗어나감과 동시에 우람한 열매를 期約할 수 있는 그런 塔들이다.

< I >

그 첫째는 朴正熙대통령 閣下의 年頭會見에서 밝혀진 對北食糧援助提議이다. 지금의 40~50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맛보아 온 日政治下의 우리 糧食은 대부분이 조, 보리, 밀, 호밀 그리고 여찌다가 쌀을 대하는 실정이었다. 메밀이나 기장, 옥수수, 수수, 피같은 것으로라도 하루 三食만 하면 다행이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끼니를 걸렀던 가정은 수도룩했었다.

2차大戰末葉은 특히 그러했다. 그나마의 농사소출은 모두 강제공출로 日政에 빼앗기다가 하면 그 대신 低質인 滿洲産 호좁쌀이나 심하면 콩팥묵같은 것을 오히려 비싼 代金으로 바꿔먹어야 하는 판이었다.

解放後라 하여 우리가 양곡이 넉넉했던 시절은 별로 없었다. 6·25 때를 제외하더라도 救護米나 援助米를 상당량 받아 먹었는가 하면 人口增加와 비례시키면서 비싼 外貨로 해마다 主食감을 사들였고 봄철이면 이른바 「보리고개」의 「絶糧농가」문제로 社會는 한바탕 골머리를 앓게 했었다.

이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 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때문에 食糧導入 특히 主穀購入에 소요된 外貨額은 부풀어 오르기만 한 추세였다. 또 우리의 이런 사정을 농칠세라 北傀集團은 이를 꼬투리 잡아 南韓을 힐뜯으며 「거저의 소굴」인양 과장선전 나팔을 內外로 불어 대기 일쑤였다.

對北食糧援助用意의 表明은 이같은 過

곳에 대한 훌륭한 反擊이고 逆轉勝을 뜻하는 데서 快感을 참을 수 없게 한다. 그저 같은 同胞인 北韓住民의 딱한 食糧기근을 人道的인 관점에서 救護하겠다는 취지 또한 흐뭇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平壤集團이 南侵用 軍糧米를 北쪽 여러 지방 토굴 속에 備蓄한 실정을 잘 알면서도 그를 초월하고 내려진 그런 斷案이기도 하였다. 이는 北韓住民들에 대한 同胞愛의 절실한 표현임과 동시에 統一 후의 南北韓 食糧문제를 십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實力誇示라 하여 큰 잘못은 없을 듯 하다.

실제 그 能力은 數學的 實體的인 풀이로써 정밀하게 뒷바침되고 있다. 우리의 食糧作物生産量은 76년말 현재, 모두 5천8백30만7천섬으로서 自給率은 80%에 달한다. 아직 옥수수나 콩, 밀같은 것은 약간 모자라 도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쌀과 보리는 그 自給率이 각각 108.6%와 103.6%나 되며 75년부터 이미 消費量을 충족시키고도 훨씬 남는다.

쌀은 작년에도 8백88만9천섬이 먹고 남아 올 年初의 在庫量은 4천5백만섬으로 불었다. 그 중 3천3백만섬을 금년 안에 먹는다 해도 1천2백만섬이 또 남는다. 보리는 1천85만섬이 올해로 넘어와 年末에는 1천1백45만섬의 여분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근 2천5백만섬이나 되는 쌀과 보리쌀의 여분량을 가지면 1천6백만

北韓住民들 전부를 1년 이상 먹여살릴 수 있다. 우리의 對北食糧援助제가 허술한 것이 아님은 잘 알 수 있게 한다.

예상했던 대로 平壤集團은 이 援助提議를 지난 2월 1일 放送으로 拒否하는 첫 반응을 보였다. 악랄한 욕설과 함께 오히려 南韓에서는 『여기 저기서 굶어죽는 참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따위 왜곡 증상을 곁들이기도 하였다.

그들의 食糧사정이 말이 아닌 것은 작년부터 계층별 配給量을 一律的으로 1백g씩 줄인 조치에서 잘 알 수 있다. 고령자는 종래의 4백g에서 3백으로 노동자는 8백에서 7백, 사무원과 경노동자는 7백에서 6백, 5~14세 年少者는 4백에서 3백g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配給內容 또한 아주 나빠져 쌀은 불과 30%뿐 나머지 70%의 比率이 잡곡이다. 특히 옥수수의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서 그 常食에서 오는 PELLAGRA病이란 特殊營養失調病者가 많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다.

사랑의 食糧援助를 그래도 拒否一貫하는 北傀의 속셈은 여기 긴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 남는다. 줄여 말하여 敵對性的의 表現이자 최후 몸부림의 發惡이다. 그러나 옛날처럼 오히려 「對南援助」를 하겠다는 식의 주제넘은 對應은 전혀 못해 오고 있다. 그만큼 풀리는 데가 있어 스스로 萎縮되지 않을 수 없는 窮地를 自認하는 셈으로 함께 간주할 수 있

는 징조라 하겠다.

< II >

發展의 두 번째 새 塔 역시 對北攻勢에서 뚜렷하다. 「先不可侵協定締結, 後美軍撤收不反對」의 새 原則을 밝히고 그不可侵協定締結問題를 협의키 위한 對話를 곧 시작하자는 提議였다. 또 그 會談을 하는데 平壤側이 서울을 꺼려한다면 板門店 또는 「제3의 場所」에서 해도 좋다는 여유있는 姿勢를 보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韓半島문제와 南北관계 그리고 對話續開策을 다룰 때마다 平壤集團이 事事件件 물고 늘어지는 「駐韓美軍是非」를 제압하면서 그들의 無誠意와 虛偽性을 세계에 널리 認識시키게 될 것이 틀림 없다.

동시에 美軍의 韓國 駐屯이 平和를 위한 名分 이외에 달리 없음을 浮刻시키고 그 駐屯에 그릇된 認識과 偏見을 보이는 일부 外部人士들에게 우리의 특마른 意思와 主見을 소리 없이 친명한 다른 一面 또한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제껏 北傀는 外部 일부의 이런 偏見을 악용하면서 이 땅에 平和보다 緊張이 감돌고 統一이 안 되는 모든 탓은 마치 「美軍 때문」인 것처럼 떠들어 대 왔다. 멋대로 과탄시킨 對話를 계속 거부하는 핑계를 「서울의 분위기」에다 들러대기도 하였다.

南北韓不可侵協定이란 두 말할 것 없이 平和와 緊張緩和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서로가 侵犯치 않을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再衝突을 방지하는 현실적 체제로서의 休戰協定을 유지하며 상대측 內政에 피차 干涉치 말자는 것이 그 주요골자이다.

따라서 정말 平壤側이 平和를 바라고 對話와 平和의 統一을 원한다면 그런 平和의 體制를 먼저 만들고 美軍을 물러가게 하자는데 異論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지난 1월 25일이 提案을 거부하면서 소위 「南北政治協商會議」소집을 다시 들고 나왔다. 美軍의 無條件 철수를 실현시킨 후 「統一戰線」鬭爭으로 對南赤化統一을 하겠다는 凶策을 한 번 더 떼쳐 보려는 것이다.

상대방의 反應이야 어찌 됐든 우리 政府로서 先平和·後撤軍原則에 의한 駐韓美軍撤收不反對의 方針을 提示한 것은 休戰 이래 2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對北食糧援助提議와 함께 우리 安保에 대한 威脅과 負擔이 좀 가중되는 一面性을 띠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美軍만 물러서면 南韓을 떡주무르듯 할 수 있는 것처럼 어찌구니 없는 幻想과 錯覺에 사로잡힌 北韓共產集團이고 보면 장차 그 무슨 妄發을 하려 들지 아무도 간단하게 대답할 수는 없는 要警戒 사항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一面을 헤아리면서도 「後撤軍不反對」의 原則을 천명한에서 우리의 새로운 발돋움과 무르익는 力量發展을 잘 알아차릴만 하다. 對北安保에 상당한 自信과 能力이 그 속에 裏書돼 있는 것이다.

이 중요한 대목을 暗示하면서 朴正熙 大統領 閣下는 北傀에 따끔한 一針을 가해 두었다. 『北傀는 南韓에서 美軍만 철수하면 모든 糞이 그들 뜻대로 척척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모르나 이는 환상이요, 명백한 誤算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려세를 부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生存을 위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臥薪嘗膽 끝에 피나는 努力으로 國力を 배양해 왔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다. 北傀는 이 사실을 알고 萬에 이이라도 誤算을 해서 안 된다.』

팔막한 警告 속에 萬全의 對備과 自信이 서렸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 III >

세제번의 發展塔은 自主國防의 불빛이 매우 가까와졌음을 信號해 주고 있다. 68년 1·21사태 뒷마무리에 자국되면서 政府가 자주국방의 進路를 택했을 때 과연 그 進도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는지 疑問은 적지 않았다. 또 71년 國軍이 防衛線을 全擔케 됐을 그 무렵에는 한쪽에선 좀 不安하다는 듯한 낌새가 전

혀 없지도 않았었다.

이제 그런 小心症들은 확실히 가셨다. 國防하면 으레 美軍이나 유엔軍이 떠오르면 쳐다보는 心情보다 「自主」라는 새 概念과 연결시킬 줄 아는 우리로 변모한 실태는 얼마든지 발견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自主國防의 現水準은 어느 정도일까.

年頭記者會見 때 朴大統領 閣下는 『國民 여러분의 관심점은 防衛産業育成, 國軍裝備현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自主國防달성은 그만큼 短縮되게 되었다』고 말하고 國군장병과 국민의 勞苦를 치하하였다.

國防部 巡視에선 그 궁금증에 대한 보다 權威 있는 解答이 나왔다. ①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은 그 根幹분야가 대략 78년말쯤 가면 끝맺어 지어질 것이나 ② 核은 開發하지 않고 戰鬥機 개발도 보류한다. 반면 ③ 나머지 분야는 우리 頭腦와 力量을 총동원하여 國産化하고 80년 말까지는 大量生産補給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④ 우리 自主國防은 사실상 완성되고 ⑤ 올 上半期에 美國의 無償軍援이 완전히 없어져 自力으로 裝備를 개발, 증강함과 동시에 軍의 維持도 自擔케 되는데 ⑥ 이런 상황에서 볼 때 北傀와의 對決은 거의 勝負가 끝난 것이나 다름 없으며 ⑦ 이제부터 우리의 戰力이 北傀를 앞지를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그 큰 줄거리이다.

歷史의 한 分水嶺이나 敵制高地를 점령한듯한 感銘과 鼓舞를 금할 수 없는 現況이며 이것이 곧 우리 自主國防의 位置요, 住所라 할 수 있을듯 하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自主國防은 어떤 外敵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赤化統一의 妄想을 못버린 채 南侵策動을 거둬하고 있는 同族 아닌 同族 北傀와 1대 1로 맞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戰力, 防衛力의 확보를 限界로 하고 있음은 모를 사람이 없다.

이 면에서 北傀는 어제까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었다. 그들은 60년대초부터 武器를 自産해 왔으며 自衛를 빙자한 南侵武力태세에서 우리를 한때 훨씬 능가하는 지경이었다. 70년에 이르러 모든 戰爭準備의 完了를 宣言한 한 배경이 여기 있기도 한 것이었다.

그 敵을 追跡하던 우리가 이제 상대를 제친 참이다. 또 이를 公開하고 公式化한데서 77년 새봄은 잊을 수 없는 力學의 轉換點을 記錄하였다. 동시에 그 競爭進路에서 다시 뒤지는 일이 없도록 새 다짐이 철석같아야 할 時空의 언덕을 우리는 지금 밟고 있다.

4차5개년 經濟開發계획에 펼쳐진 自主國防의 설계와 기대는 그래서 여러 모로 우리의 눈길에 끌리지 않을 수 없다. 그 靑寫眞을朴 대통령閣下는 대략 이렇게 聯關시키면서 自主國防의 前程을 우리에게 훨씬 비춰 주었다.

『機械工業은 4차5개년 계획의 核心사업으로 힘들여 育成할 방침이다. 그것은 防衛産業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分野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이 방위산업에서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었지만 80년대 초에 가면 우리가 월등히 앞설 수 있을 것이다.』

그 期待值을 4차5개년 計劃의 積極한 展望에서 찾고 있음은 긴 말을 보낼 필요가 없다.

『80년대 초에 가면 우리 經濟는 自立을 달성하여 工業은 高度産業國家型으로 바뀌질 것이고 國防態勢는 自主國防이 완비된다. 都市農村은 별 차 없이 도시보다 오히려 농촌이 더 快適安樂한 社會를 이룰 것이며 그때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武力侵略妄想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敵의 武力侵略妄想을 부수는 自主國防力, 自力の 위대한 增進이 눈앞으로 바짝 다가 서 있는 것이다.

<IV>

4次經濟開發 5개년계획의 햇불을 쏠린 것은 77년도 제4의 발전상이자 가장 우람한 前進의 始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목표는 다 알려진 것처럼 크게 3가지이다. 自立經濟의 達成, 産業구조의 高度化와 技術開發, 그리고 社會開發의 推進이 바로 그것이다.

좀더 指標를 간추리면 지난 15년간 實施한 3차례의 5개년 經濟開發 성과를 말

판으로 갈면서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80년대 초의 國民 1人當 GNP 1천5백달러, 輸出 2백억달러, 農家의 戶當소득 2백만원을 돌파케 하고 새로 2백10만명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高地를 점령키 위하여 ① 經濟自立策으로는 投資財源의 自力調達, 國際收支의 均衡, 貯蓄増大를 꾀하고

②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技術開發에 있어서는 鑛工業, 重工業 특히 重化學工業比重的 提高, 技術人力양성, 精密化學, 機械, 電子工業의 重點育成, 各種 研究機關의 設立, 鐵鋼, 非鐵金屬, 石油화학공업의 國際水準化, 機械産業육성에 注力하게 되어 있다.

③ 社會開發분야에서는 우리 經濟사정에 알맞는 福祉政策을 추구하여 低所得層으로부터 施惠토록 하며 그 첫 事業으로서 醫療保護, 醫療保險制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住宅 및 上水道의 보급을 확대와 國民학교 育成會費의 全額國庫보조 低所得層에 대한 稅金減免혜택 등을 늘려간다는 줄거리이다.

이런 重點사업을 구체화하면서 4차개발 1次年度인 올해에 經濟의 高度成長을 계속하면서도 安定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基本方針 아래 社會開發 및 福祉基盤擴充, 貯蓄증대와 物資절약, 浦項製鐵擴張과 7肥完工을 비롯한 여러 重化學工業의 發展추진, 中小企業육성, 에너지事業의 확대, 農·漁村환경개선과 所得증대와

施策 向方을 집중토록 짜여져 있다.

타오르기 시작한 4차 5개년 計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동터오는 希望은 두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經濟自立에서 튼튼해질 自主性의 飛躍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역시 보다 낮게 살 수 있는 福祉社會의 出現이라 할 것이다.

自主性의 飛躍이란 곧 나라와 國民의 世界的 地位向上으로 通하고, 福祉社會의 구현이란 國民生活 속에 자리잡히는 나라의 實質的 價値와 存在性을 높이게 마련이다.

앞대목은 다른 나라나 우리 敵이 감히 넘볼 수 없는 自己位置의 確保를 뜻하며 뒷대목은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나라의 防衛價値를 깊이 認識시켜 國防力의 增強과 護國의 길로 國民을 더욱 密着시키게 된다. 여기 國防에 공헌하는 4차 5개년 計劃의 千金같은 무기는 있다 할 것이다.

< V >

올해 들어 한층 實感이 젖어드는 이상 4가지의 發展塔像은 하나처럼 모두 自力과의 函數關係 위에서 비르소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食糧援助와 條件附 美軍撤收不反對原則의 천명은 60년대 이후 急成長한 우리 國力의 因數 缺인 상상도 할 수 없는 重大提議이다.

自主國防의 밝은 전망이나 4차 5개년 計劃의 웅대한 規模 및 指標 역시 마찬

가지다. 이 展望과 設計는 단지 힘의 過去生産에 의한 結果로서 그치는게 아니라 보다 偉大하고 強大한 새 國力을 ینگ태한 것임을 더욱 잊을 수 없게 한다.

무섭게 뻗고 加乘될 그 力量은 새로운 奇蹟을 우리에게 創出해 줄 可望이 없지 않다. 平和와 安定을 유도해 줄 것이다. 지금의 開發途上國 자리를 中進, 先進化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民主體制와 經濟力量에 이끌리는 民族國家로의 平和的 統一을 앞당기게도 될 것이다. 남들이 우리 일에 간섭

하려는 엄두는 감히 못낼 것이며, 自主 獨立의 無缺한 榮光이 앞길을 푸르게 빛내 갈 것이다.

그 모든 進路를 지키는 것이 우리 國軍이다. 차질 없는 進行을 보장하고 온갖 與件을 조성하는 中樞며 役者이다. 그렇기에 軍은 「國力 중의 國力」으로서 國家 發展의 앞을 끌고 뒤를 밀며 4面을 훌륭하게 護衛하려는 活動과 意氣를 세차게 불태워 올려야 한다. 發展의 새 點火를 한 올해엔 더욱 그렇지 않을까.

—박 대통령각하 말씀 중에서—

- ◇ 난관 극복의 길은 난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의지 속에 있는 것이다.

—1967. 제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 ◇ 누구의 도움을 바라기에 앞서, 그리고 그 누구를 허물하기 전에 나의 운명을 내 손으로 개척한다는 자립(自立)의 의지를 굳게 할 때 비로소 보람찬 결실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월호의 달」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 ◇ 한 개인의 생명과 명예는 짧지만 민족의 생명과 역사는 길다. 자신의 안일이나 소아(小我)의 전도나, 소위 출세 등에 집념하여 적당히 처세하려는 따위의 사고를 가진 자는 우리의 현실 앞에 아무런 필요도 없으며 길이 후세에 욕된 이름을 씻지 못할 것이다.

—1964. 제2회 지방장관 유시에서—

自主國防과 「80年代」以後

우리는 새 歷史의 章을 연다고 하는

「보람」과 「금지」와 「신념」을 가지고

精進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李 讚 九

<平和統一研究所 研究委員>

1.

1980年代 以後의 韓國의 未來像을 展望하는데 있어 「自主國防」은 반드시 顧慮해야 할 基本前提가 된다.

自主國防 또는 그 推進計劃으로서의 防衛産業은 현재 駐韓 美軍의 存在를 計算 속에서 排除하는 경우에도 北韓의 兵器工業과 對等한 水準에 到達되어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1980年度末에는 駐韓 美地上軍이 完全撤收한다고 하더라도 北韓의 兵器工業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兵器生産의 基礎能力으로서의 平和力量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壓倒的인 狀에 우리가 북한보다 늦게 始作했어도 短期間에 북한을 앞지를 수 있다는 論理가 前提된 判斷이요 展望인 것이다.

우리의 平和力量이 북한을 壓倒한다는 事實에 대한 論證은 紙面의 浪費일 것이다.

本稿는 1980年末 우리의 防衛産業이 북한을 壓倒하게 될 경우 80年代 또는 그 以後의 韓國의 未來像을 如何히 展望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焦點을 맞추고자 한다.

2.

南北關係의 側面에서 볼 때 80年代엔 北韓 權力構造 內部에 一大 變動이 일

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그 變動은 解放 以後 70年代末까지 權力의 核을 계속 장악해 온 對南 強硬 指導 路線이 무너지고 南北 關係 改善을 주장하는 對南 柔和 勢力이 大舉 登揚하는 것으로 나타날 公算이 크다고 본다.

兵器工業面에서의 對南 優勢의 堅持를 執權 繼續의 名分으로 내 세워 온 強硬 派들의 政治的 Raison d'être가 褪色될 뿐만 아니라 穩健 勢力이 登揚할 수 있는 이같은 韓半島 內의 主觀的 條件의 充足은 中共까지를 포함, 共產陣營 全般에 보편화되고 있는 穩健 勢力의 登揚이라고 하는 客觀的 情勢와 關聯, 北韓의 強硬 勢力의 退進을 強要하는 契機로 될 것이 거의 確實 視된다.

變動의 이같은 樣相은 南北間 力學 關係의 變動으로 因한 必然的인 歸結로서 北韓의 立場에서는 어떤 다른 選擇이 不可能 視되는 狀況에서 取하게 되는, 共存을 爲한 次善의 代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北韓에 대한 平和의 強要의 結果라 하여 마땅할 것이다.

3.

80年代는 南北 對話의 側面에서는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의 제1단계인 平和定着이 實現되는 단계로 되리라고 판단된다.

즉 80年代에 北韓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對南 柔和 勢力은 南北間에 共存

體制를 構築할 必要를 絶感하여 우리가 이미 70年代 初半부터 提議해 온 南北 不可侵 協定 締結과 UN 同時加入을 受諾할 可能性이 크다고 전망된다.

80年代에 이처럼 韓半島의 안과 밖에서 南北間에 對話關係의 基礎與件이 성숙되어 平和定着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統一政策의 제2단계인 본격적인 交流와 協力은 90年代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리라고 본다. 北韓이 80年代를 現 在로 종래의 兵器工業 主導型의 産業構造를 平和産業으로 轉換하지 않은 狀態에서 南北間에 본격적인 交流 등을 실행할 경우에는 南北社會의 住民의 人心의 變化가 北韓에 不利하고 우리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기울 것이 明白하며 또한 産業構造의 轉換을 爲해서는 최소한도 10年 정도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統一政策의 최종단계(第3단계)인 統一實現은 90年代의 본격적인 交流와 協력이 어느 정도 進展되느냐에 따라 그 때에 가서 판단해야 할 問題이다.

4.

80年代는 對內的으로 自立經濟의 土臺까지가 다져지는 段階로 된다는 데에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이것은 1980年末에 自立國防이 마무리되는 경우 그 後續의인 結果로 나타날 것이 거의 명백하다.

經濟自立의 時期는(=) 自主國防의 時

期 + α 로 表示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自主國防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意思」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能力」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自主國防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에 比해 能力의 餘分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能力은 前述(1)한 『兵器生産의 基礎能力』으로서의 「平和力量」을 의미한다.

현재 防衛産業豫算 = 國防豫算 - $\alpha + \beta$ 로 構成된다. α 는 軍의 基本運營維持費이고 β 는 韓·美相互防衛條約에 依據한 韓國軍 現代化計劃이다.

國防豫算是 最近 數年間 國家豫算總額의 30%~35%線을 維持해 왔다(別表 1 參照).

<別表 1>

年度	國家豫算	國防豫算	比 率
75	1兆2千億	3千6百億	30%
76	2兆	7千億	35%
77	2兆6千億	9千2百億	35%

(위 豫算是 追更豫算을 除外한 本豫算을 基準으로 한 것임)

78年, 79年, 80年의 豫算에서도 豫算總額이 增大됨에 따라 같은 比率(30~35%)이 適用됨으로써 年間 國防豫算規模가 1兆~2兆線에 肉迫한 것으로 豫想된다.

自主國防이 完成된 1980年 以後 즉 80

年代 前半(가령 第5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期間인 1982~1986년에 이르는 期間)에 이르러 國防豫算의 國家豫算總額에 對한 比率이 10%~20%線(先進國型)으로 安定勢를 보이게 된다고 假定할 경우 國家豫算總額 規模의 增大와 이에 逆比例하는 國防豫算의 比率減少 사이에서 生成되는 莫大한 差額이 經濟開發 내지 社會開發 분야로 轉用 投入될 것은 自明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80年代를 對內面에서 自立經濟의 土臺가 다져지는 段階로 보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5.

80年代는 특히 80年代 後半은 對美關係面에서 종래의 傳統의인 紐帶를 더욱 強化하면서 韓·美關係를 보다 正常的인 友好平等의 關係로 現實化시키는 段階로 된다는 데에 큰 意義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韓·美關係는 本質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側面에서보다는 地政學的 側面에서 相關關係를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지닌다는 認識에서 檢討될 때에 그 意味를 우리가 보다 適確히 理解할 수 있다는 論理도 成立할 수 있다.

韓半島의 分斷은 地政學的으로 當時 海洋과 大韓을 各各 主導하던 美·蘇兩國의 「戰後處理」를 名分으로 하는 그들 兩國 自身の 1次의인 충돌가능성을 회피

하기 爲한 「必要」의 所産으로 理解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一部 論者들의 立場은 위와 같은 認識에 基礎한다고 볼 수 있다.

要컨대 美·蘇가 韓半島 分斷에 干與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立場에서는 그들 兩國이 分斷에 對한 責任만큼 相當하는 分斷處理의 責任도 受諾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北傀의 6·25南侵으로 因한 우리 側의 被害도 美國이 자기들 曠의 管理責任을 疎忽히 한데서 緣由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休戰 以來 美側의 우리에게 對한 軍援 및 經援은 우리의 美側에 對한 어떤 새로운 寄與를 요구하는 代價條件이 아니고 오히려 實은 被害補償의 性格을 띠는 즉 管理疎忽의 結果를 補償하는 當然條件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當然條件임에도 不拘하고 韓·美關係는 그 후(休戰 以來) 지금까지 美國의 韓國에 對한 軍援 및 經援의 繼續이 韓國의 美國에 對한 어떤 새로운 寄與를 誘導하는 代價條件의 形式으로 實現되어 온 感이 不無하다는 것이 一部 論者들의 見解이다. 그 寄與가 中·長期的 側面에서 우리에게 對外的인 不利益을 結果시키는 경우도 不少했다는 그들 論者들의 立場에서 본다면 自主國防과 自立經濟의 實現으로 美國의 적극적인 干與 以上의 軍援과 經援의 施惠를 辭讓할 수도 있게 될

80年代 後半 以後에는 韓·美關係가 보다 現實的인 友好平等의 關係로 發展될 수 있다고 展望할 수도 있을 것이다.

筆者는 純粹 個人的 私見에서는 위의 論者들의 見解를 外面하지 않는 立場에 있음을 自認한다.

政府가 最近 推進中인 對內 自主國防體制의 強化 努力과 對外 經濟協力關係의 多邊化 努力도 結果的으로는 80年代 後半 以後의 韓·美關係 改善, 強化에 크게 寄與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6.

80年代는 또한 民族史의 側面에서는 韓民族이 겪어 온 最近世 百年史의 얼룩진 悲劇과 汚辱을 未來指向의 清算할 수 있게 되는 民族史의 새로운 悲劇止揚의 章이라는 點에서 더욱 더 큰 意味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舊韓末 以來의 悲劇과 汚辱은 우리가 自主國防의 能力과 自立經濟의 力量을 缺如했던 데에 原因이 있다고 하여 過言이 아닐 것이다. 勿論 그러한 國防力과 經濟力을 具現할 수 있는 當時 大韓帝國 臣民들의 굳건한 精神力과 그 對外的 表現으로서의 外交力이 貧弱했던 것이 보다 根源의인 理由가 된다는 事實은 再言의 餘地가 없다.

아름은 70年代 後半에 自主國防이 完成되고 80年代 中半에 自立經濟의 土臺가 다져진다는 것은 現代國家가 지나야

할 이 두 가지 基本條件의 缺如로 온갖 悲劇과 汚辱을 經驗해야만 했던 最近世의 民族史를 民族의 自尊과 權益을 스스로 保障하는 正常水準의 民族史로 高揚(Aufheben)시키는 重大한 意味를 지닌다는 事實 앞에 우리는 注意를 集約할 必要가 있다.

民族史를 再建하는 이러한 條件의 充足의 歷史現實의으로 對北關係面에서는 北쪽의 好戰勢力이 退陣하고 南北對話面에서는 우리 主導下의 平和定着이 實現되며 對美關係面에서는 實質平等 紐帶關係가 強化되는 등으로 浮揚될 것을 想定할 때 오늘날 우리 모두가 推進하는 自主國防과 經濟自立을 爲한 마무리 作業은 民族史의인 重大課題라 하여 마땅할 것이다.

7.

80年代 後半은 國家安保의 側面에서는 解放 以後 80年代 前半까지의 「分斷·反共安保」가 止揚되는 바탕 위에서 「統一·民族安保」가 새로이 要請되는 國家安保의 高揚段階로 될 것이라는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80年代 中半 以前에 北韓의 이 테올로기의인 對南挑戰이 減少되고 그만큼은 거꾸로 地政學的 利害關係의 側面에서 우리 主導下의 韓半島 統一을 不願하는 소련, 中공 등 強大國家들의 對韓半島 挑戰이 逆比例해서 自動 增大되리

라는 論理的 假定을 前提로 한 판단이다.

實地 80年代 中半 以後 北韓의 對南強硬路線이 무너지고 穩健勢力이 들어 선 다음 南北間 平和定着의 바탕 위에서 우리 主導下에 人士往來 등 統一接近이 實現되는 경우에는 소련·중공은 이것을 長期的 眼目에서 韓半島內 南北間 勢力均衡이 北韓에 不利한 方向으로 기울게 되는 兆朕으로 判斷하여 어떤 形態로든지 妨害하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境遇 美國·日本 역시 韓國이 소련·중공을 자극하면서까지 統一接近을 추진해 들어가는 것이 도리어 大陸勢力과 海洋勢力間의 潛在的 衝突要因을 增大시키는 結果로 되리라는 판단에서 우리의 統一接近努力을 直接 또는 間接으로 妨害하고 나설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다.

結局 「分斷·反共安保」의 마무리 段階로서의 80年代 前半 以前の 韓國安保는 지난날의 民族史的 受難의 經驗을 거울삼아 強大國家들의 挑戰에 새로이 對處해 나가는 80年代 中半 以後의 「統一·民族安保」의 次元으로 高揚되어야 할 宿命的인 課題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對處하기 爲한 우리의 努力은 첫째 消極的 側面에서는 美國·日本 등 海洋友邦 強大國家들에게 우리의 國防이나 經濟를 無理하게 偏重的으로 依存시키는

일을 止揚하는 自主自立的 方向으로 傾注하여 그들의 우리에 대한 影響力 行使의 可能性을 極小化시켜야 할 것이고, 둘째 積極的 側面에서는 소련, 中共 등 大陸 敵性强大國家들이 우리의 統一接近努力을 妨害하기 爲하여 取할 모든 形態의 威脅에 對處할 수 있는 現實的인 代案確保에 傾注해야 할 것이다. 大統領閣下的 두 차례(75年, 77年)에 걸친 公式否認에도 不拘하고 外國의 一部 觀測通들이 韓國이 은밀히 核武器開發을 推進하고 있다는 式으로 觀測하고 있는 것도 그 觀測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前에 그들의 그러한 觀測이 80年代 中半 以後에 있어서의 韓國의 對強大國 民族安保問題를 그들 나름대로 意識한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感이 든다. 요컨대 核開發問題는 그 論難 自體가 反共安保의 水準을 넘어선 民族安保의 次元에서 擧論될 때에야 意味가 있다고 본다.

8.

위에서 우리는 現在 政府가 강력하게 推進하고 있는 「自主國防」과 「經濟自立」이 혼히 있을 수 있는 어떤 特定時期에

있어서의 한 政權의 通常的인 소위 「施策」정도가 아니고 1905年 乙巳保護條約以來 무너졌던 民族의 威身을 회복하고 亡國의 傷處와 後遺症으로서의 分斷의 汚辱을 清算코자 하는 民族史的인 至上課題임을 確認해 보았다.

軍人の 訓練의 苦痛도, 市民의 納稅의 負擔도 모두가 다 80年代 以後의 榮光된 統一祖國의 앞날을 겨냥하는 自主國防과 經濟自立을 實現키 爲한 歷史創造의 「보람」의 蓄積을 意味한다는 點에서 우리는 우리 民族史的인 어느 다른 前時代에 生을 營爲했던 祖先이나 將次 우리의 努力으로 構築될 平和와 豐饒를 누리며 살게 될 後繼들보다 우리 손으로 지난 歷史의 債務를 清算하고 새 歷史의 章을 연다고 하는 「보람」과 「공지」와 「신념」을 가지고 歷史現實에 精進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確實히 「歷史」가 우리에게 配應해 준, 跳躍과 奮發을 爲한 「機會」라고만 느껴진다.

機會는 恒常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77年의 意味도 이런 觀點에서 吟味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

×

宗風堂의 民族의 主體性

主體性의 질은 논리를 다시 한 번 確인하
歷史는 결코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지 않을 수 없다.

崔 昌 圭

〔서울대학교 教授〕

1. 歷史의 論理~發展과 進步

어느 歷史에도 發展 없는 歷史는 없
다. 歷史는 이와같이 發展의 개념을 이
미 그 안에 담고 있다.

歷史와 떠날 수 없는 개념, 그러나 그
發展의 개념은 특히 近代史에 와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어느 歷史단
계보다도 그 歷史의 發展速度가 빨랐던
近代史 그 자체의 歷史的 사실에 연유하
는 것이었다. 즉 近代史에서 千年 걸려야
이루었을 歷史의 總量을 近代는 百年에
이루었고 다시 中世史에서 百年 걸려야
이루었을 歷史의 總量을 단 10년에 이루
어야 했을 때 近代 그 자체는 분명 發展
이란 이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
던 歷史의 너무나 많은 幅을 가지고 있
었다.

여기서 진정 發展은 近代史의 흥아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같은 發展에도 歷史적으로
문제에는 있었다. 즉 發展은 분명히 歷史
變化의 한 形態였지만, 그 發展이 가져
오는 歷史變化의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
하나에 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 아무 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커다
란 工場이 하나 생겨났다.

아무 것도 없던 빈 허허벌판에 이같
이 커다란 工場이 하나 들어섰을 때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의 變化요 그래서 그것은 歷史에서 發展의 한 모습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歷史는 이제 분명히 거기에 들어선 工場의 내용이 무엇이나? 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똑같은 규모의 工場이라도 거기에 생겨난 工場이 製藥工場이나? 製鐵工場이나? 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것이고 똑같은 製鐵工場이라도 그것이 직접 自國鐵鑛石의 製鍊工場일 경우와 輸入鐵鑛石의 加工工場일 경우는 그 의미는 또한 사뭇 다를 것이다.

이럴 경우 歷史는 부득이 이같은 變化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식의 變化가 가장 바람직하나? 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變化 가운데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變化, 그래서 發展이라 하여도 歷史의 要求에 가장 合理的일 수 있는 發展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進步라고 다시 부른다.

여기서 發展과 進步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그 떠날 수 없는 發展과 進步의 사이를 올바른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歷史는 비로소 올바른 自己前進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歷史의 進步는 반드시 發展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發展이 곧 進步는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進步의 개념으로서 歷史의 發展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이다.

그렇다면 歷史의 變化 가운데에서 무엇이 그 進步임을 결정해 주는 것일까? 그 많은 發展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進步를 추출하고 그래서 歷史의 發展 앞에서 그 進步의 規範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부득이 歷史의 主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歷史의 主體, 그것은 물론 歷史發展의 책임을 지는 原動力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歷史의 發展 앞에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發展의 방향인가? 를 다시 말하여 자기 歷史에서 그 進步의 방향이 무엇인가? 를 결정해주는 궁극적 主體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歷史 앞에서 결코 主體 없는 進步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主體 없는 歷史의 發展문제들 여기서 생각해 보자.

歷史의 발전에 있어 그 현실적인 필요는 물론 創造力이지만, 그것의 궁극적 규범은 어디까지나 幸福이란 價値임이 분명하다.

이 경우 歷史는 그 필요한 創造力이 누구의 創造力인가를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 규범인 幸福이란 價値 앞에서 반드시 「누가 幸福하나?」 하는 그 幸福의 主體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幸福이란 價値는 그 자체가

이미 「누구의 幸福이고」 또 「누구쪽으로 幸福하냐?」하는 그 主體와 方向性을 묻는 규범적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歷史의 變化에서 그 主體와 方向性이 확인된 進歩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狀況變化의 총격과 그 결과만이 나타나는 發展으로 끝날 경우, 거기서는 결코 그 歷史變化에서 얻어야 할 幸福이란 가치나 그 幸福을 확인하며 향유할 수 있는 主體의 의미가 전혀 밝혀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韓國史에서 밝혀질 수 있는 모든 發展이 바로 5천만 韓民族이 그 主體가 되고 그래서 그 發展의 결과는 그대로 5천만 온 韓民族의 幸福으로 직결되어야 할 지 民族國家的 進歩의 개념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

2. 發展의 規範과 民族的 主體性

우리들의 民族史 속에서 가장 많은 歷史變化의 幅을 담았던 것은 역시 저 開港(1876年) 이후 近代 百年이었다 하겠다.

실로 우리는 그 開港 百年 동안에서 저 이전의 歷史에서라면 수백년 아니 千年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歷史변화의 총격을 동시에 치루어야 했었다.

그것을 놓고 發展이나? 進歩냐? 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빠르기도 하

고 또 거기에 얼룩진 상처도 너무나도 많았다. 여기서는 그대로 近代라 해 놓고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開港 百年을 이같이 近代라 해 놓고 살펴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近代 百年의 모습은 우선 한 마디로 대단히 不幸한 近代였다는 특징으로 결론지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1876年 開港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近代史가 그만 30년 뒤인 1905년에 主權의 喪失(乙巳條約)이란 民族史 최대의 비극으로 나타났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1876年의 開港은 그것이 自意든 他意든 우리들 近代史에 있어 최대의 총격이었고 그 총격 뒤에서 일어났던 韓國近代史의 變化도 그만큼 크고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우선 1876年 開港은 韓民族이 5천년 歷史上 최초로 西歐의 秩序와 制度的으로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실로 歷史의인 변화였고, 다시 1880년대 淸을 본받아 세운 統理職務衙門의 설립과 같은 온전한 制度改革이나(1880年) 비록 三日天下로 끝났지만 日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저 甲申政變과 같은 과격한 制度改革 등은(1884年) 모두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저 西歐의 近代와 연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歷史變化의 幅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여기에 1894년 여하튼 政治, 社會 진

반에 걸친 近代의 改革으로 나타났던 甲午更張의 變化도 큰 것이었고, 다시 1897년 비록 淸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近代의 主權개념을 가지고 선포될 수 있었던 大韓帝國의 출현도 歷史의 큰 變化임에 틀림 없었다.

그런데 이같은 큰 歷史의 變化가 연속되었다는 데도 그 變化를 체험하고 그것을 의식한 韓民族의 歷史의 位置나 評價는 여전히 不幸이라는 한결같은 비극일 수 밖에 없었다.

즉 1876年 開港은 韓國史에 최초로 西歐를 결합시킨 近代에의 충격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한 마디로 日本의 韓國에 대한 義務는 없이 오직 韓國의 日本에 대한 義務만을 묶어놓은 심각한 不平等의 不幸이 一方的으로 들어 있었고(그것은 이미 日本에서 開港은 하나도 없이 韓半島에서의 開港만을 나열한 修好條約 13個條款 자체가 잘 말해준다), 1880년대 改革에서 韓民族에게는 최초로 制度的 近代化라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韓民族이 日帝의 더 무서운 干涉 밑에서 속박받아야 하는 不幸으로 떨어졌고(漢城條約), 다시 1890년대 改革에서 韓民族은 近代의 制度를 최초로 실천해 보는 發展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日帝의 勢力에 의하여 韓國의 內政이 흔들리는 심각한 不幸으로 연결되고 있었다(日本公使 大鳥의 위협과 乙未事變).

이같은 모습은 1905년의 歷史로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으니 甲午條約에 의한 韓民族 최대의 비극도 여하튼 韓國의 近代 政治史에서는 그 形式에 있어 최대의 變化임에 틀림 없었다.

우리는 여기 잠시 살펴본 우리들 近代史의 例에서, 歷史의 狀況이 變化하면 變化한만큼 우리들 韓民族이 따라서 그만큼 不幸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들을 확인하였다.

이때 變化했던 歷史의 狀況은 한 마디로 韓國史의 近代라는 狀況이었고 그 속에서 不幸해야 했던 韓民族은 여하튼 그 近代史의 主體였다.

따라서 近代로의 變化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近代의 主體(韓民族)는 그만큼 더 不幸해야 했던 이 歷史의 變化, 이것을 놓고 과연 오늘의 韓民族은 近代史의 發展이나 進歩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솔직히 發展이나 進歩는 커녕 不完全한 近代, 不幸한 變化만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같은 歷史變化는 왜 不幸한 變化였고 그 變化가 가져온 歷史의 結果는 왜 不完全한 近代이어서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모든 歷史變化에 있어서 그 發展의 主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우리들의 경우, 장군 百年이나 무

쉽게 變하여 온 近代라는 狀況의 主體는 한 마디로 우리들 韓民族이었다.

그런데 그 폭넓은 變化 아니 그 심각한 變化 속에서도 韓民族은 계속 시달리기만 하였고 不幸하기만 하였을 때 그것은 상황 속에서 적어도 韓民族은 그 幸福의 主體는 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같이 幸福의 主體가 될 수 없어서 쓰라려 하는 韓民族은 사실상 근본적으로도 우리의 그 近代를 이끌어 오는 歷史의 主體가 처음부터 되지를 못하였다.

즉 1876년 開港이 그것을 강요하던 日本과 거기에 저항하던 韓民族 사이에서 日本의 要求대로 그것이 실천되어 나왔을 때, 이미 그 歷史의 主體는 韓·日兩國이 아니고 日本이란 一方的 主體였고, 그것은 性格은 그 뒤에 따라온 韓民族 開化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았다.

즉 1880년대 초 우리들이 淸을 모델로 하여 制度改革을 하였을 때(統理械務衙門 등) 그 開化의 主體는 이미 정신적으로 淸이었고, 다시 1884년 甲申政變에서 日本을 기대하고 그것을 모델로 하여 開化를 시도하였을 때 그 急進開化의 主體는 여하튼 결과적으로 日帝의 세력으로 뚜렷이 나타났었다.

그같은 모습은 1890년대 日帝가 직접 우리들 開化의 대신 主體가 되어 우리의 近代를 인도하고 간섭하는 어이없는 모

습으로도 나타났고(1894년 甲午更張), 그같은 우리들 主體없는 近代의 不幸은 드디어 우리들 近代의 代身 主體노릇을 하려던 淸·日 사이의 전쟁에서 韓民族이 대신 희생되어야 하는 비극으로도 나타났었다.

韓民族이 이같이 자기 近代의 主體노릇을 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은 곧 우리들의 近代가 그 올바른 歷史主體와 만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主體없는 近代로 이름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近代史에 담겨 온 모든 民族的 不幸을 한 마디로 主體없는 近代의 비극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다.

3. 近代化와 主體性~進歩의 主體와 光復의 主體

우리는 이제까지 主體없는 近代, 아니 主體없는 歷史變化의 不幸에 대하여 뼈저리게 살펴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歷史의 主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그 歷史의 主體는 歷史 앞에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歷史 앞에 그 올바른 主體가 사라질 때 그 歷史가 아무리 절박하다 하여도 그것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歷史의 代役者는 결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民族이라는 主體는 아

우리 피로와도 歷史앞에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主張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같이 歷史앞에 오직 하나 밖에 없어 남이 결코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이 民族이란 主體가 歷史앞에서 사라지거나 歷史앞에서 밀려날 때 歷史는 여하튼 斷絶되거나 歪曲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近代史 속에서 主體가 斷絶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밀려남으로써 歪曲당할 수 밖에 없었던 歷史의 비극을 지금 이같이 「主體없는 近代」「不完全한 近代」의 不幸 등으로 다시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韓民族은 비록 저 不完全한 近代속이었지만 그 近代史의 主人 자리를 그대로 물려나거나 또 완전히 빼앗기지지는 않았다. 거기에는 실로 피눈물나는 그리고 끊임없는 抵抗이 따랐었다. 그것은 곧 近代史 속에서도 歷史의 主人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韓民族의 무서운 主體性이었던 것이다.

즉 1876년 開港에는 民族의 自存을 외치는 무서운 斥和나 斥邪의 물결이 맞섰고, 1880년대 改革에는 壬午軍亂과 같은 國家의 1次의인 集團抵抗이 일어났다.

다시 1890년대 日帝가 직접 조정하는 改革 뒤에서는 東學運動과 義兵運動(第1次 義兵)이 계속 일어났고, 저 1905년 開港 이래 30년의 變化가 종결되는 乙巳條約의 충격 뒤에서는 드디어 저 義兵抗

爭(第2次 第3次)이나 殉國抵抗과 같은 본격적인 抗擧의 물결이 일어났었다.

여기서 우리는 歷史의 主人 자리가 중요되던 1876년과 그 主人자리를 일단 빼앗기게 되던 1905년의 비극 사이에서, 그 主人자리를 끝내 지키기 위하여 항거하던 우리들 韓民族의 主體性의 숨결을 잠시 들여보자.

「지금 이 修好條約은 우리가 원해서 맺으려는 것입니까? 저들(倭)이 원해서 맺으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원하여 맺으려는 것이라면 歷史의 中心은 우리에게 있어 믿을 수가 있지만 저들이 원하여 맺으려는 것을 우리가 힘이 없어 그대로 따르다면 당장의 姑息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구렁텅이같은 저들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입니까? ...그러니 이같은 和約을 한 번 맺는 날 그것은 바로 이 나라 王朝의 門을 닫는 亡國의 날이 될 것입니다.....」(1876년 斥和議 五不可疏).

이같은 호소는 다시 30년 뒤 義兵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어 나타났다.

「우리는 당당 大韓禮義의 나라, 檀箕 이래 4천년 歷史에서 일시 中國의 藩屏이 된적도 있었지만 그 土地와 人民과 政治가 모두 우리의 自立이었고 自主였다. ... 이제 저 倭敵의 부림을 받고 살기 보다는 차라리 大韓의 自主民으로서 죽으려 한다...」(1906년 湖南義兵의 布告 八道土民)

이것은 모두 歷史의 變化 그 자체를 거부한 改革의 反對가 아니고 모든 歷史의 變化에 있어서 韓民族이 스스로 그 主體가 되어야겠다는 어디까지나 自主의 公式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自主의 公式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日帝에게 강탈당하였던 歷史의 主人자리를 다시 찾아내는 그 恢復力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름하여 1945년의 光復...

여기서 우리는 1876年에서 시작된 自主의 상처가 1910年까지 만 36년 계속되었다고 보았을 때 그같이 입혀진 自主의 상처를 벗어버리는데 1910年에서 1945年까지 다시 정확히 36년 소요되어야 했던 自主에 대한 歷史의 무서운 定律을 바라보게 된다.

즉 그것은 主體에게 일단 입혀진 상처는 그 主體에 의하여 쏟아지는 그와 똑같은 회복에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自主에 대한 너무나도 명징한 논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저 日帝에 의하여 歷史의 主人자리를 강탈당하였던 日帝 36年 동안 거기서 日帝가 主體가 되어 진행되어 왔던 일련의 變化는 그것이 發展이든 進歩든 여하튼 韓民族의 그것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日帝 36年 동안에 대한 우리들의 近代史의 評價는 日帝가 우리의 近代

를 대신 추진해 주고 도와준 近代의 연속이 아니라 日帝에 의하여 歷史의 主人자리가 바뀜으로써 韓民族의 近代가 36년이나 中斷당한 어디까지나 韓國史 近代의 斷絶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歷史는 결코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主體性의 질은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百年이면 그 百年전 西歐와 직접 만남으로써 韓民族이 스스로 이루어야 할 近代史가 그 사이에 대신 끼여든 日帝로 하여 이같이 근 半世紀 이상이나 단절당하였을 때 우리가 새로이 맞이한 1945년 光復의 歷史에는 필연적으로 그만큼 近代에서 늦어진 歷史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光復된 韓民族의 歷史에 붙여진 저 「後進國」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었다.

여기서 光復된 韓民族에게는 무엇보다도 後進國이라는 그동안 他律로 中斷당하였던 近代의 상처를 벗어버리기 위한 民族發展에 대한 논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오늘의 韓民族은 民族發展을 이루기 위한 近代化主體로서의 사명과 함께 그러기 위하여 自己歷史를 먼저 되찾아야 한다는 저 光復主體로서의 무거운 二重사명을 아울러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祖國의 發展像과

우리의 覺悟



朴 贊 葵

〈中央大教授〉

1. 序 言

韓國 사람에게서는 自己를 돌보이려고 하는 外向的인 性格과 反對로 될 수 있으면 그늘에 가려지기를 願하는 內向的인 性格이 同時에 存在한다고 말한다.

前者는 오랜 封建制度 아래에서 발달된 韓民族이 또다시 日本人들의 壓迫에서 自己를 認定받지 못한데서 온 反射的인 思考이며 後者는 우리 民族의 品性으로서 오랜동안 美德으로서 내려온 謙遜한 態度가 同時에 發顯되는 所致라고 말한다.

그런 가운데서 나타난 強烈한 獨立 自主精神은 다른 民族의 追從을 不許하는 우리들의 核心的 思考가 되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히 生存해 나아가는 方法을 익히게 되었다. 길으로는 나

약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우리들에게는 언제, 어디서, 어떤 方法으로 攻擊해 온다 하더라도 敵을 무찌를 수 있는 勇氣가 뿌리깊게 形成되어 있는 民族이다.

그러나 우리의 國土는 너무나 협소하며 充分한 資源도 갖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世界的인 資源 民族主義 傾向은 우리의 努力의 크기와는 相反된 方向으로 歸結되는 危險까지도 提示하고 있다. 國民 모두가 바라는 發展된 祖國을 驅歌할 수 있는 與件이 하루 빨리 成熟되기 위해서는 努力한 만큼의 代價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後退, 坐視, 無關心의 나약한 思考에 빠질 것이 아니라 總力을 기울이는 國民의 努力이 살을 에이는 아픔 가운데서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機械文明社會 내지는 高度 産業化社會

에突入하면人間은自然小市民的思考를 갖게 되어個人主義의傾向을 나타내게 된다고들 하지만機械를 움직이는人間,産業化社會를形成시킨張本人으로서의人間이 지녀야 할態度는 좀더나은社會를建設하기 위하여研究하고開發하는行動이要請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人間性を純化할 수 있는教育的制度的次元에서의努力 또한充實히進行되어야 한다.

筆者는總量規模에 나타난經濟發展의內容을考察하면서우리國土의變化와來日의韓國을 건설하기 위하여우리가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韓國經濟의 發展過程

우리나라는 지난第1,2,3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이推進되어 오는 동안量的擴大뿐만 아니라質的改善도 가져왔다.우리가 좀더 빠른時間에經濟開發計劃을 추진했다라면現時點에 있어日本經濟와 맞먹는位置에 놓여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놀라운發展을 이룩했다.

世界的인經濟成長率이年5%에 머물고 있던1962年에서1976年사이의우리經濟는10%라는驚異的인高度成長을 나타냈으며農林,水産業中心의後進的産業構造는重化學工業의育成으로先進的産業構造로變換하기에 이르렀다.

또한國民總生産은1975年不變市場價格으로1961년에54億弗이던 것이1975년에는188億弗로年平均9.3%의伸長을 보였으며1人當國民生産 역시1961年の83弗에서1976년에는690弗로增加하였다.

이와같은急激한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政策的優秀性和國民의努力 그리고技術人力의確保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外資導入과國民貯蓄의장려에서 온投資의擴大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即總投資가年平均17%씩增加하여國民總生産에 대한比率面에서도1961年の13%가1975년에는27%로擴大되었다는點에서立證되어진다.

그러나 아무리投資額이擴大된다 하더라도物價의騰위가극심했다면 이런經濟成長을 기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그 증거로서1965年에서1973년까지,即우리經濟가 그基盤을 완전히 굳히는期間中物價變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指摘할 수 있으며 또한 가지國際收支面에 있어서의長足の改善이라는點이다.

1961年の輸出은國民總生産의2%인41百萬弗이던 것이1976년에는30%에 해당하는7,560百萬弗을示顯하였다는데에서우리經濟가얼마나成長해왔고改善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表 1>

主要指標의 變化

內 容	年 度	1961	1973	1974	1975	1976
國民總生産(百萬弗)		2,124	12,306	16,680	18,761	24,811
商品輸出(百萬弗)		41	3,271	4,515	5,003	17,560
一人當國民生産(美弗)		83	361	481	532	690

資料：經濟企劃院「한국 통계연감」1976과「第 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서 편집 정리

3. 國土建設事業의 現況

우리는 總量規模에서의 變化를 考察해 보았으나 國土建設이라는 現狀面에서의 變化를 보고 臺灣의「10大 建設計劃」과 比較해 보기로 한다.

1961년까지의 우리나라는 特別한 建設計劃 없이 政府가 이루어야 할 基本的인 事業으로서 電力, 시멘트, 肥料라는 基幹産業이 몇 개 建設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不過하였으나 第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進行되는 동안 우리의 國土는 變化하기 始作했다.

農業의 현대화에 따르는 大單位 개간 사업이 이루어지기 始作했으며 全天候 農土의 確保를 위한 댐 建設工事 그리고 工業의 發展을 위한 工業團地의 造成事業이 그 中心이라고 하겠다. 그 結果 蔚山에는 石油化學콤비네티가 形成되었고 西海岸一帶에는 새로운 大單位 農土가 開拓되었으며 春川, 衣岩댐이 建設되었다.

1972年에서 1976年의 第 3次 經濟開發 期間中 이와같은 努力은 계속되어 京釜

間 高速道路와 京仁, 嶺東, 湖南, 南海를 비롯한 東海高速道路가 完成되어 産業活動을 신속하고 圓滑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技術陣만에 의하여「仁川독크」의 建設, 麗川工業團地의 造成과 第 7肥의 建設 그리고 浦港製鐵 및 蔚山의 現代造船, 昌原 機械工業團地의 建設은 우리 祖國이 發展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說明하여 준 것이라 하겠다.

모든 水源에는 새로운 工法에 依한 巨大한 댐이 建設되었으며 東海, 南海 그리고 西海를 잇는 海岸 Belt에 各種 工場이 그 雄姿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20年前만 해도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奇蹟이라고 表現해도 좋을 것이다.

1975年을 起點으로 하여 自由中國(臺灣)에서는 10大 建設計劃을 樹立하여 年間 1,300百萬弗 規模로 投入 5年間에 6,597百萬弗을 投入함으로써 1980년에는 繁榮된 臺灣을 建設하겠다고 한다.

그 計劃은

- (1) 南北 橫斷 高速道路의 建設
- (2) 鐵道의 電鐵化

- (3) 蘇澳~花蓮間 鐵道の 부설
- (4) 桃園에 臺北國際空港의 新設
- (5) 發電所의 建設
- (6) 石油化學工業의 増設
- (7) 製鐵産業의 育成
- (8) 高雄造船所의 擴充工事
- (9) 蘇澳港의 開發
- (10) 臺中近港의 擴充工事

로 되어 있어 現在 建設工事が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물론 1976年の 國民所得 850弗은 우리의 경우보다 아직도 앞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닦아는 工業團地와 기기에 建設되어 있는 各種 工場의 規模는 臺灣이 지금 進行中에 있는 「10大 建設計劃」이 끝이 남으로써 우리의 水準을 따라올 수 있으며 우리의 與件보다 좀더 나은 지난 60年代初에 伸長시킨 國力이 所得面에 있어서의 格差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國民總生産額으로는 우리가 自由中國보다 越等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臺灣人口는 1976年度에 1,600萬名을 突破했다.).

4. 80年代의 祖國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어려운 國際經濟의 變化與件에서도 우리 祖國은 着實히 發展하여 아시아에서는 日本 다음으로 強力한 國力을 維持하게 되었으며 南北對決이라는 宿命의 事實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努力은 世界 어느 나라 經

濟보다도 越等히 높은 成長을 해 왔다고 하겠다.

1977년부터 始作하여 1981년에 끝나는 第 4次 經濟開發計劃은 總量規模에 있어 國民總生産額이 1975年の 9兆 803億圓에서 1981년에는 16兆 2143億圓으로 1.8倍 擴大되며 一人當 國民總生産은 1975年の 257千圓에서 1981년에는 732千圓이 되어 美弗換算 532弗에서 1,512弗로 策定되어 있다.

또한 産業構造面에서도 農林, 水産業과 鑛工業 그리고 社會間接資本의 比重이 25.4%, 29.7%, 44.9%에서 81년에는 18.5%, 40.9%, 40.6%로 變化되며 그 가운데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42.4%에서 49.5%로 增大되며 先進國의 産業構造와 같은 樣相을 띠게 된다.

더욱 重要한 發展은 2,3次 計劃期間中에는 總投資額의 50%에 該當하는 資金이 海外貯蓄과 外資導入으로 充當되었으나 第 4次 計劃期間에는 92.4%에 해당하는 16兆 6,451億圓을 國內貯蓄으로 調達하게 된다는 點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國力이 擴大되어 自立的인 經濟建設을 할 수 있다는 希望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所致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 特記할 수 있는 것은 輸出과 輸入의 逆調現象을 完全히 脫皮하여 1981년에는 142億弗의 輸出에 138億弗 輸入이라는 貿易黑字現象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 來日의 祖國은 밝은 展望을 갖게한다

<表 2>

大單位 綜合開發計劃

地區名	開發面積 (4ha)	總事業費(100萬圓)			期 間
		內 資	外 資	計	
合 計	172.1	267,621	207,730	495,351	
榮山江(I)	34.5	50,243	22,757	73,000	1972~78
掩橋千(I)	24.7	48,089	24,895	72,984	1975~80
榮山江(II)	22.0	27,374	30,869	58,245	1975~79
南 江	12.2	18,164	11,824	29,988	1977~82
美 湖 川	12.7	9,641	15,730	25,371	1977~82
沃 舒	11.6	7,938	10,524	18,462	1980~83
插橋川(II)	40.0	94,500	74,100	168,600	1983~85

(註) 10千ha 以下地區는 除外

이와같은 計劃이 完成될 때 우리 國土의 農耕地面積은 現在보다 172.1千헥타가 增加하며 電子工業, 金屬工業, 機械工業 및 石油化學工業 등 重化學工業의 놀라운 成長을 가져와 海外에 프랜트를 輸出할 수 있는 充分한 能力이 造成될 뿐만 아니라 資源確保를 위한 國際間的 競爭에서도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

國土를 縱橫으로 연결하는 高速度路網과 鐵道の 電鐵高速化 그리고 港灣施設의 擴充으로 荷役能力은 倍加하여 大淸 淸, 忠州 淸 등의 建設로 全天候農耕은 이루어지고 <表 3> 工業園地와 觀光施設 등 5大圈域으로 이루어지는 國土開發事業이 마무리되는 段階에서는 우리도 잘 사는 나라의 國民으로서의 긍지를 世界에 과시하게 될 것은 分明하다.

<表 3>

多目的 淸 建設計劃

事業名	位置	期間	事業費 (百萬圓)	貯水量 (億M/T)	効 果			
					用 水 (百萬噸/年)	洪水調節 (百萬噸/年)	灌 溉 (ha)	發電施設 (kw)
計			173,056	55.0	5,757	931	127,300	53.3
大淸淸	大德	75~79	59,714	14.9	1,649	250	66,300	9.0
臨溪淸	旌善	79~83	27,560	2.7	274	9	—	15.3
陝川淸	陝川	80~84	12,605	7.9	524	72	1,100	8.0
忠州淸	忠州	78~83	73,177	29.5	3,310	600	59,900	21.0

5.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나上記한 바와 같은 豊富한 國力を 이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80年代의 祖國을 繁榮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計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를 밀고 나아가는 國民的 團結된 힘이 요구된다.

얼마 전 世界銀行(IBRD)에서는 韓國政府가 作成한 第4,5次 經濟開發計劃과 向後 15年間의 長期計劃指針을 土臺로 하여 韓國經濟의 長期展望에 대한 報告書를 發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990年代의 國民總生産에 차지하는 工產品의 輸出依存度는 輸入依存度の 內需充足 現象을 脫皮한다면 開發途上國 工產品輸出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人口增加率보다 勞動力增加率이 앞질러 完全雇傭을 達成할 뿐만 아니라 絶對貧困層은 相對的 減少가 可能하다고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이 報告書에서도 指摘하고 있는 바 高度成長을 持續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投資財源確保計劃인 國內貯蓄이 可能한 것인가의 問題와 輸出增大를 위한 工產品의 開發과 어려운 國際經濟條件 아래에서 9%의 高度成長을 持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問題가 놓여 있다.

우리는 지난 15年間의 實績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無限한 底力を 認定한다. 더욱이나 石油波動과 先進國의 輸入

制限措置에서도 슬기롭게 對處하여 年平均 10%의 成長을 示顯한 能力을 지니고 있다. 現在보다도 더욱 強力한 內需抑制과 輸出장려를 重要政策으로 밀고 나가면서 國民들의 勤儉節約의 氣風만 生活化한다면 우리의 計劃은 그대로 達成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6. 結 言

지금 우리의 5,000年の 歷史 가운데 가장 劃期的이고 雄大한 國土建設의 役事を 進行시키고 있다. 가난했기에 비뚤어진 마음을 풍요한 生活手段으로 혼 혼하게 變化시키는 精神改造作業의 一環인 새마을운동이 絶頂에 이르고 있다.

남에게 依支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開發하여 나아가는 自主, 自立, 自生을 위한 굳건한 姿勢의 樹立을 해야 하는 至上課題 아래 寸刻의 時間的 遲滯도 許容할 수 없는 立場이다. 學生은 學究에 專念해야 하며 公務員은 國民의 公僕으로서의 役割을 誠實히 遂行해야 하고 軍人은 國家保衛의 干城으로서의 任務를 다해야 하는가 하면 産業人은 말은 바 經濟立國을 위한 努力을 充實하게 進行시켜 나아갈 때 祖國은 좀더 發展의 速度를 더해 나갈 것이고 榮光된 統一 祖國을 後世에 물려줄 수 있다는 點을 強調하고자 한다.

韓民族의 國家觀

日帝治下の

民族抵抗運動을 中心으로

姜 容 求



民族五千年史에서 國家觀이 가장 뚜렷이 부각된 시기는 무력에 의해 국권을 강제로 강탈당하고 만 일제치하의 불운한 시기였다. 중병을 앓아 본 사람만이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듯이 국가를 빼앗겼던 일제치하의 선조들은 조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한 용운의 다음 글은 피맺힌 절규에 가깝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곁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들 항거한 뒤에 님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울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5천년 역사 속의 슬한 이 민족의 외침 중에서도 곳곳이 지켜온 민족의 절개가 꺾이여지고 만 일제치하이기에 억압에 도전하는 민족저항 정신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하고 끈끈한 것이었다.

이 끈끈한 저항정신은 민족분단의 쓰

라린 경험과 그 극복의 과정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밝은 햇불과 명확한 지표가 될 것이다.

10월 유신은 국민총화에 의해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이 민족의 지상과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도산 안창호선생의 구국운동의 정신을 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안창호선생은 일제의 무력에 민족이 집탈을 당해야 했던 이유를 힘의 부족에서 찾고, 교육과 경제력 확보에 그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排日運動이 단순한 비분강개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국민적 자각, 민족적 자각, 역사적 자각, 사회적 자각을 도모하는 교육과 민족자본을 조속히 실현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비단 안창호선생만이 아니라 일제치하의 저항운동을 벌였던 대부분의 애국지사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제 58周年 3·1節을 며칠 앞두고 日本이 獨島를 自己나라의 '領土'라고 말도 안 되는 主張을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일제치하의 저항운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믿는다.

I.

1905년 11월 굴욕적인 을사보호조약이

일본의 불법적인 강권으로 조인되자 전국의 애국지사들은 비로소 일본의 침략정책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미 일본은 치밀한 침략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이었으나 동방에의지국의 선량한 선조들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의도를 우방국의 호의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이 착각위에서 일본은 1904년 8월 한·일 협정서를 체결케 하여 한국내정에 깊이 관여하여 왔고, 마침내 국정 전반을 사실상 장악하고 만 보호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장 지연이 쓴 「是日也放聲大哭」에는 당시 설마하는 조상들의 심정을 논정해 준다.

「曩者 伊藤侯가 한국에 來함에 愚我人民이 逐逐相謂曰 候는 平日 東洋三國의 鼎足の 安寧을 自擔周旋하던 人이라 今日 來韓함이 必也我國獨立을 鞏固히 扶植할 方略을 勸告하리라 하여 自巷至京에 官民上下가 歡迎함을 不勝하였더니 天下事가 難測者 多하다도. 千萬夢外에 五條件이 何로 自하여 提出하였는고…」

한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건너 온 이등방문을 동양 3국의 鼎足の 平安을 도모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해 주기 위한 방략을 권고하러 온 사람으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던 것이다.

1906년 1월 일본은 한성에 총감부를 두고 초대 통감으로 이등방문이 취임한 다음 그해 7월에 경찰권까지 빼앗아 한

일합방이라는 대목표로 추진시켜 나갔다. 국운이 기운 것을 비로소 깨닫은 애국지사들과 전 국민은 맹렬한 저항운동을 벌였다. 의병은 날이 갈수록 한층 조직화되어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 전라, 함경남북, 경남, 평안남북으로 퍼져서 5년여에 걸치는 치열한 일대 무력항쟁을 일으켰다. 당시 의병장 중에는 閔宗植(홍성), 崔益鉉, 林炳瓚(순창), 申夏石(경상도), 柳麟錫(강원) 등이 유명하며 주로 儒林이 中心이 되어 전 민중이 가담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국민의 무지와 我國의 無力에 있음을 깨닫고 言論活動, 교육진흥, 경제부흥 등으로 국권을 회복하려 나선 애국지사들이 있었다. 그 당시 그들의 눈물겨운 투쟁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뇌리에 우국충정의 민족애와 동포애의 상징이 되고 있다.

1. 언론의 항쟁 :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될 당시 우리나라엔 抗日敎國을 부르짖어 민중의 지지를 받아오던 신문이 셋 있었다. 이른바 황성신문(사장: 張志淵), 대한매일신보(사장: 영국인 Ernest T. Bethell) 그리고 상기 두 신문에 비해 논조가 약간 온건한 제국신문이 그것이다.

그 중 황성신문은 9월 5일 「日俄媾和談判」이 조인된 뒤부터, 보호조약의 체결같은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는 설과 기사로 정부와 민중들에게 주의

와 경고를 하여 왔고, 마침내 新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자, 11월 20일자 신문에다가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비통한 논설을 실고, 잡보란에는 「五件條約請締願末」이라고 하여 국권이 갖긴 경과를 자세히 보도하였다.

황성신문의 강경한 논조에 당황한 일본은 이 날짜의 신문이 사전에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장을 구금하고 신문을 정간시켰다. 이것은 일본의 불법적인 언론탄압이므로 대한매일신보는 절연히 일어나서 11월 21일의 1면 논설에서 「황성의무」라는 제목으로 同業紙 황성신문을 열렬히 옹호하였다. 이에 이어서 侍從武官長 閔泳煥을 비롯한 순국열사의 자결이 속출하고 민심이 흉흉하여 지자 이듬 해인 1906년 1월 장 지연을 석방하고, 2월에는 신문의 정간을 해제하였다.

이와같이 당시의 신문들은 일제의 총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의연히 항일구국의 논진을 폈는데, 신문의 체제도 독립신문의 간행으로부터 10년 밖에 안 되지만 광복할 진보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2. 사회단체의 합법적 저항 : 사회단체로서는 大韓自強會를 비롯한 同友會, 大韓俱樂部, 國民教育會 등이 일어나서 교육진흥과 증산흥업으로 국권을 회복하자고 주장하였다. 사회단체로 가장 강력한 것이 대한자강회인데, 윤 치호를 회장으로 하고 당대의 지사들이 총망라되

어 교육의 진흥과 국력의 부강을 기도하여 후원 독립의 기로를 닦으려 했다.

안창호선생은 미국에서 돌아와 자주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인 新民會를 조직하고, 그 합법운동으로 청년학회, 마산洞磁器會社, 大成學校, 太極書館 등을 설립하여 교육과 산업 진흥에 주력하는 문화운동을 일으켰고, 최남선은 일본에서 돌아와 출판사 新文館을 설립하고 소년잡지와 계몽서적을 발간하여 민중을 깨우치는데 힘썼다.

기타 교육에 의한 구국운동을 피하여 각종 사립학교가 도처에 세워졌고 친도교 및 기독교청년회 등 종교단체도 모두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선각자들의 맹렬한 자기 희생적 봉사에도 불구하고 1911년 8월에 한일합병조약이 배국노에 의해 드디어 조인되고 대한제국은 覆滅되고 말았다.

II.

第一代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일본의 현역 육군대신 寺內正毅는 제도상으로 헌병과 경찰을 일원화시켜서 자도의 헌병대장에 경찰부장을 겸무하게 하고 이런 조직체계가 郡, 邑, 面의 말단 행정구역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

寺內는 언론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고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독립사상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를 말살하

는 것을 통치의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그래서 한 가닥 남은 민족정신의 거점인 사립학교와 교회를 탄압하였고 이런 정책은 그의 후임자에 계승되어 3·1운동으로 그 후임자가 퇴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단정치는 너무나 포악무도해서 한민족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비참을 극한 식민지의 노예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탄압을 가하면 가할 수록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민족혼이어서 1919년엔 마침내 남녀노소 전 민중이 일제의 총검 앞에 맨주먹으로 항쟁하여 민족의기를 드높이는 3·1운동이 발발하였다. 이 운동은 비록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여 실패로 끝났지만,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워서 민족정기를 북돋고 세계만방에 일본의 폭정을 규탄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일본의 총검에 과감히 뿔기한 장렬한 감투정신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전 민족이 크게 자성하여 독립을 달성하는 길은 민족 자체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점이다. 일본은 헌병에 의한 무단정치가 사실상 실패에 돌아가자 제3대 총독의 부임을 계기로 소위 문화회유정책을 폈다.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억압이 완화되자 전국 방방곡곡에는 민족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진흥시켜 곳곳에 사립학교와 사립강습소 등이 속속 설립되었고 마침내 민족의

誠金으로 대학을 건립하겠다는 私立大學
期成運動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일방으로 殖産興業을 위하여 국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또 이것을 널리 애용하
자는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으며 농촌의
조합운동까지 생겼다.

또한 봉건사회를 탈파하여 근대적 민
주주의 사상이 보급되어 조선사회의 최
하위 계급이던 백정을 각성, 인권운동을
일으키게 하였고, 소년 소녀를 우대하고
선도하자는 소년운동, 여성을 규방과 부
역에서 해방하여 남녀동등의 신생활을
건설케 하자는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었다.

국어를 존중하고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자는 한글운
동이 지식계급의 선각자에 의해 일어나
조선어학회가 창립되었고 근대문학이 비
로소 시작되어 신파조를 벗어난 신극 운
동이 土月會를 중심으로 발흥하였으며
기타 영화, 체육활동 등도 전개되었다.

기미독립운동이 갖는 의의는 그 운동
이 정치적으로는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민족문화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한 계기
가 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실로 한민
족은 이 운동을 계기로 표현히 각성해서
구각을 벗어 던지고 민족근대화에 박차
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가 향유하는 신문화가 모두 이때에 싹을
튼 것임을 명심해야겠다.

3. 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긍

지와 함께 신생의 활기를 불어넣어 세계
사의 진행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의욕적
민족신생의 계기가 된 것이다.

III.

日本의 소위 「문화회유정책」은 만주사
변 이후 아시아대륙 침략정책으로 포악한
무단정치로 다시 전환되었다. 한국을 그
들의 대륙침공을 위한 병참기지화 하기
위하여 그들은 소위 內鮮一體의 同化政
策을 추진시켜 오다가 2차대전 발발이후
엔 노골적으로 「皇國臣民化」運動을 강행
하고 物的 心的 總動員體制를 확립하
는데 광분하였다. 우선 민족정신을 말살하
기 위하여 「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強
制로 제창시키고 일방으로 「朝鮮思想犯
保護觀察令」을 發布하여 사상탄압을 더
욱 가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치욕적인 것은 創氏制度를 선포하여 일
본식 성명으로 전부 고쳐 부르게 하고
朝鮮語文의 使用을 금지케 하였으니 5천
년 민족사의 최대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소위 내선일체로 시작하는 황
국신민화 운동에 도전하는 세력을 어지
없이 짓밟기 위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족색채의 신문과 잡지를 모조리 폐간
시키며 1941년에는 「朝鮮思想犯 豫防拘
禁令」을 선포, 우리의 애국지사들을 하시
하처에서 구금할 수 있는 발악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942년에 부임

한 제8대 조선총독인 小磯國昭는 「朝鮮青年特別鍊成令」과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장정을 죄다 전쟁터로 끌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민족문화유지의 血路를 타개하여 국학을 연구하는 震壇學會가 탄생하였고 <與猶堂全書>나 문고본으로 된 우리 고전이 발간되어 간신히 민족의기의 명맥을 이어 왔다.

「震壇學會」는 1934년 5월에 발족된 것으로 우리나라와 그 인접국가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학가 20여명의 발기로 결정되었고 그해 9월에 간행된 「與猶堂全書」는 茶山 丁若鏞의 遺著로서 간행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民族文化의 창달이다.

民族抹殺政策으로도 표현되는 일본의 식민지화정책의 이 시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운동이다.

1931년에는 소위 「비상시국」이 아직 초기에 있었으므로 日警의 취체는 다소 여유가 있었다. 이 틈을 타서 東亞日報는 한글 보급운동을 일으켜 우선 제1회로 1931년 7월 25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조선어학회의 저명한 한글학자들을 동원하여 순천, 여수, 목포 등 남북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글 강습회를 열게 하였다. 조선어학회에서는 수시로 지방 인사의 요청에 따라 한글강습회를 개최한 바는 있었지만 이처럼 3, 40處가 동시에 강습회를 열어서 수십명의 강습생을

낸 것은 한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해인 1932년에는 강사도 늘었고 개최지역도 더 늘어나 자못 성황을 이루었는데 3년째인 1933년부터는 일경의 불허로 많은 지방에서 강습회가 중지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완전히 중지되었다. 이것은 일경이 한글운동을 일제의 식민지화정책에 도전하는 일종의 민족운동으로 본 때문이다.

그러나 일경의 강력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한글지지운동은 다방면에서 일어나 일경은 이를 일일이 저지할 수 없었다.

정기간행물인 잡지 東光, 眞生, 新생이 새 철차법을 사용했고, 東亞日報는 아동란, 소설, 사실 등을 한글로 썼고, 조선일보도 일부를 한글로 써서 신랄자 준비의 완료를 기다리는 형편이었고 기독교측의 모든 문서가 새 철차법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한글운동은 대중적으로 실용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때 발표된(1933. 10. 29)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한글역사상 획기적인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병참기로서 한국을 완전 식민지화 하기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갖은 잔학행위를 일삼던 일제의 암흑시대에 민족저항운동은 다분히 움츠러 들 수 밖에 없었지만 그 대신 광복 이후의 민족 새역사를 창조하였던 해외의 임시정부와 그 활약은 눈부

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軍國日本은 1944년 阿部信行이 第九代 총독으로 부임할 때에는 그들의 운명은 공진동화의 최후에 도달하여 있었으나 그러면서도 압박과 착취를 여전히 가혹하게 하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천황 裕仁이 항복을 방송하여 한 민족은 비로소 해방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

× ×

한국사는 수난의 역사이나 그 때마다 수난을 극복한 슬기의 민족사이다. 그러기에 민족사의 단절을 초래할뻔 했던 일제치하의 민족저항정신은 그만큼 치열하고 빛난 것이었다.

세계 역사상 3·1운동만큼 강렬한 민중운동이 있겠는가. 일제치하 속에 기록된 각종 배일운동—정치, 사상, 경제, 문화운동—은 때로는 강력한 일제의 탄압에 움츠러 들기도 했으나 그 때마다 뿌리는 더욱 튼튼하게 아래로 뻗어간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저항정신은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시련도 극복해 나갈 민족의 저력으로서 우리의 민족혼을 감동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속에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나아가서

는 민족중흥의 계기가 될 유신체제를 지속해 가고 있다. 그러나 유신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 모두가 민족사의 단절위기에 서 선조들이 보여 주었던 슬기와 투쟁 그리고 수난을 당해야 했던 원인을 경건히 반성하고 선조의 빛난 얼을 오늘의 유신과업들에 반영해 나갈 때만이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제치하의 민족수난에서 우리가 배운 중요한 교훈은 국가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 국가 없는 나와 나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다는 것, 곧 국가관을 확고히 다질 때만이 민족의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이다. 종전 싫건 내부 모 내 형제이듯 나는 국가의 아들이요 일원인 것이다. 곧 국가의 발전은 나의 발전이요 공익은 나의 이익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은혜에 보국하는 길은 우리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완수하는 길이므로 우리는 北傀와의 對共鬭爭에 있어서는 生存을 爲한 召命으로 생각하고 고유한 傳統文化와 民族의 正統性을 守護하고 分斷된 祖國統一을 하루 속히 이룩하여 世界 속에 雄飛하는 民族中興의 歷史의 使命을 다하는 보람이 되어야 하겠다.

共 産 黨 組 織 理 論 과

北 傀 勞 動 黨



76.5월

河 辰 鎬

一. 서 론

1917년 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아마 1883년 런던에서 객사하고 만 마르크스가 還生하여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선진 공업국가에서, 그것도 일국적 조건에서가 아니라 선진 공업국가들에서 동시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조건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마르크스의 견해인데, 어찌까지 황제의 나라였던 본진적 러시아에서, 주민의 90%가 농민이며 「프롤레타리아」라고는 근소한 수에 불과한 농업국 러시아에서, 또한 교육수준이 극히 낮아 과도한 문맹인구를 안고 있는 후진국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역사상 최초의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었다는 것은 마르크스에게는 청천의 벽력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지배적이었던 마르크스의 이론을 뒤엎고 러시아에 공산국가를 설치한 자는 니코라이 레닌이요, 그의 당조직 이론이다. 지구상에 있는 오늘날의 모든 공산국가는 레닌의 당 조직 원칙에 따라 당을 조직하고 독재를 행하고 있다고 보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세력을 확대하려 애쓰는 모든 붉은 무리들은 레닌의 전략술을 모방 내지는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다. 레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공산주의라는 유명은 자취를 감추었거나 미미한 것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라는 환상적 이론가가 없었다면 레닌의 그 모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손, 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 글은 레닌의 당 조직의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 첫째, 당조직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설과 폭력혁명론을 음미하고 둘째, 레닌의 당조직이 어떤 원칙 위에 전개되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공산당의 괴뢰에 불과한 북괴노동당의 조직이론이 러시아 공산당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임을 살펴보려 한다.

二. 階級鬭爭說과 暴力革命論

共産主義理論을 理解하고 批判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問題는 「階級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共産主義者들이 소위 「모든 역사는 階級鬭爭의 歷史」(共産黨 선언에서)로 規定하면서 階級革命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階級鬭爭의 理論에서 마르크스는 지

급까지 존재한 모든 社會는 歷史發展에 따라 自由人과 奴隸貴族과 平民, 領主와 農奴, 匠主와 匠人 등의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나누어져 대립해 왔으며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부르조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누어져 서로 對立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두 계급 상호간의 투쟁을 強要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 또는 사회제도라고 하였다.

共産主義의 이 階級에 대한 概念을 分析해 보면

가. 「역사적으로 規定된 社會的 生産의 體制 속에서 그가 차지하는 地位」

나. 「生産關係에 對한 그의 關係」

다. 「社會的 勞動組織 속에서의 역할」로 보아진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社會經濟制度下」에서 그가 차지한 地位를 基礎로 하여 「그 種의 한 편이 다른 한 편의 노동력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人間的 集團」을 階級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階級意識을 노동자계급에만 局限시켜 적용하였는데, 즉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극소수의 부르조아와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로 對立 分裂되고 프롤레타리아의 利害는 社會全體의 理解와 一致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社會全體의 이익을 위해서는 극소수의 부르조아계급의 生産手段을 社會的 所

有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오직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鬪爭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唯一한 革命的 階級임을 強調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 소위 唯一한 階級이 부르조아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희망을 마치 과학적 必然 사실인양 사회과학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記述하고 있다.

卽, 자본가들이 발달시킨 物質的 生産力이 資本主義社會에서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어 스스로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경제공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자본주의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여 자본가의 재산소유를 위태롭게 한다. 한편으로 工業이 發達함에 따라 勞動者는 그 數가 增大되어 組織을 공고히 하며 그를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게 된다. 모든 계급은 정치투쟁이며 노동자들의 계급으로서의 組織은 정당으로 발전하고 폭력으로 資本家를 무너뜨림으로써 마침내는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政權을 장악하게 되면 資本家階級은 이 社會에서 없어지게 되어 資本과 土地는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手中에 集中되어 새로 생기는 社會는 階級的 對立이 없는 共產主義社會가 되고 계급도 권력도 국가도 필연적으로 소멸하고 만다.

一見 그럴듯 하다. 그럴듯 하지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론으로 내세운 자본주의 멸망과 공산주의의 도래는 마르크스 死後 百年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자본주의는 소멸하기는 커녕 더욱 신속한 복지사회로 돌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성숙한 미국 내의 노동자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냉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 예언이라는 그의 신념이 허망한 이론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이 허망한 계급투쟁설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이론을 러시아에 언제라도 적용해 온 자가 자칭 마르크스의 수제자로 나선 니코라이 레닌이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주장한대로 자본주의 몰락의 징조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자 혁명이 가능한 지역을 자본주의의 발전이 초기단계이고 계급주의 사슬이 가장 연약한 것이라 하여 마르크스와는 상이한 주장을 내세웠다.

레닌은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내부 모순에 의한 사회혁명이 아니라 러시아와 같은 後進社會에서 革命集團이 조직되고 時宜에 맞는 戰術戰略을 使用하여 大衆을 폭력혁명에 가담시킴으로써 정권을 탈취하는 정치혁명을 主張하였다.

이 정치혁명은 공산혁명의 시기에

관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생산력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때 혁명은 자동적으로 수행된다고 본 그의 스승 마르크스의 학설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레닌은 전투적인 혁명집단인 공산당이 조직되고 사회적 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지배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언제라도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革命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마르크스와는 달리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의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후진국가에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마르크스가 농민세력을 무시한데 비하여 혁명의 主體勢力은 노동자와 농민의 노동동맹세력으로 農民革命과 노동자의 파업과 봉기를 병행시키는 것이 공산혁명의 당면과제라 하였다.

그는 혁명의 수단은 폭력에 의존해야 하며 도시에서의 무장폭동과 도시의 점령이 권력탈취의 선결요건이나 공산혁명의 전술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시기를 고려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가져야 하며 적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침투하여 의회민주적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를 분별 파괴시켜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과도 잠정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三. 共産黨組織의 理論

레닌은 폭력혁명의 수행을 위한 공산당 조직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혁명의 主體이긴 하나 대부분 무지몽매하고 무계획적이며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의식을啓導할 지도집단인 공산당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階級意識이 박약한 프롤레타리아에게 공산주의혁명의 重責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代表하여 革命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공산당은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위대이며 최고의 조직형태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당의 필요성과 성격을 파악한 레닌은 당의 구체적인 조직 원칙으로 民主的 集中制(Democratic Centralism)의 原則을 주장하고 당의 권위가 집행기구 위에 군림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강조하였다.

레닌에 의한 공산당 조직의 기본원칙을 요약 설명하면

첫째,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전위부대이며 계급의식을 지닌 단체지만,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전체가 아니요 노동자 계급의 일부라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일부인 당을 階級全體와 혼동한다는 것은 전위부대로서의

黨意識水準을 個個 노동자의 平均的 意識水準에까지 끌어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에 당은 벌써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계급의식 수준을 노동대중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보다 노동대중의 수준을 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의 중요한 임부라는 것이다.

둘째, 黨은 노동자계급의 前衛部隊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노동자계급의 組織된 부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黨員은 그 規律에 엄격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의 조직된 체계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당원이라고 자칭하면서도 당의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의 단순한 集合體라고 한다면 당은 결코 통일된 의지를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노동자계급의 선봉대로서 계급투쟁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全黨員이 단일공동체로서 조직되고 통일意志, 統一行動, 統一規律에 結合됨으로써만 당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단일목적에 향해서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당은 다른 일체의 노동자계급 조직 중의 최고 조직형태이며 노동자계급의 다른 모든 조직 전부를 프롤레타리아의 권력획득 혹은 유지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지도할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黨外組織

이 자발적으로 당의 정치적 지도를 수락하도록 모든 설득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 당은 노동자계급의 전위부대와 노동대중과의 연결의 具現이라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전위부대라 할지라도 또는 잘 조직된 것이라 할지라도 비당원인 대중과의 유대 없이는 당은 존재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계급과 연결을 상실하면 당은 자연히 약화되고 대중의 신뢰를 잃어 결국 파멸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당은 中央集權主義의 원칙 위에 조직되어야 한다. 즉 단일의 규약과 상부지도기관을 가지고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 중앙기관에 대한 개개세포의 복종, 상부조직에 대한 하부조직의 절대 복종이 긴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당의 陳列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은 지도자나 평당원에게 동등한 의무를 갖게 하는 통일적 프롤레타리아 규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율을 지킬 의무가 없는 엘리트와 규율에 복종해야 할 평당원 등 당내에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기의 원칙 속에서 특히 그는 당내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1) 어떤 운동도 지속성을 확보할 안

정된 지도자의 조직 없이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다.

(2) 대중운동이 확대되면 될 수록 그러한 지도자의 조직은 그만큼 더 필요하다.

(3) 그 조직은 주로 직업적으로 혁명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히 전제정부 하에서는 비밀경찰로부터 그 조직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노동계급이나 기타 사회단체의 남녀조직은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 수록 그만큼 더 잘 이 운동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능동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원칙은 오늘날 북괴사회내에 당간부, 열성당원, 반동분자 등 철저한 계급의 선을 만들게 한 원인이 되고 또 무식한 무산계급자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한다는 명분이 철저한 독재체제와 김일성 유일체제로 전락한 기틀이 되고 말았다.

四. 북괴 노동당의 조직 원칙

북한의 노동당은 초기에 있어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혁명전략 및 前衛政黨으로서의 공산당 조직이론에 일반적으로 충실하였다. 즉 1946년 8월에 제정된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1) 조선 노동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자기활

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2)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당건설의 사상적 기초임을 明示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 조직원칙에 레닌주의적 조직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은 그들의 소위 당규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자연적 귀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즉 레닌의 민주적 집중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당규약 제17조에서 ①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한 당조직 ② 당원의 당에 대한 복종, 하급당 조직의 상급당 조직에 대한 복종 및 전체 당조직의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절대복종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당규약 제 5조에는 ① 당원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옹호하며, 그것을 정확히 관철해야 하고 ②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당원들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유일한 당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일성은 이에 대하여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은 우리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인 담보이므로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사고하고 같이 행동하자고 하여 당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레닌이 말한 당강화방법 또는 개선과 발전의 기초라고 하는 비판

과 자기비판제도를 규약상 포함시키고 있다. 즉, 「당원은 당 회의에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다」(당규약 제5조)는 조항과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하고 당의 이익을 제 1생명으로 그것을 해치려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고히 투쟁하며 자기의 결함을 솔선 시정하여야 한다」(당 규약 제5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은 레닌이 말한 철의 규율과 비밀엄수에 관한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 실례로서 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숙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적” 조직원칙은 당의 실권자의 지배체제를 장식하기 위한 형용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노동당조직의 제1원칙인 “조직 우위의 원칙”마저도 당의 실권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김일성의 의사가 당의 의사로 되고 김일성이 당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뚜렷이 나타난다. 곧 모든 권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로 집중하고 중앙위원회의 권력은 김일성 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만 것이 오늘의 북괴정치 형태이다.

五. 결 론

무릇 마르크스 학설 중에서도 가장 비

과학적이고 허구에 찬 이론이 계급투쟁설이요, 그들의 국가관이다. 그들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자극하여 그들의 반국가 행동 내지는 폭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선동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라는 것이 지배계급의 도구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라면 그들은 국가를 혐오하고 중요하지 않 고서는 못견딜 것이다.

공산당은 이 증오감을 바탕으로 무산계급을 폭동에 참여케 하고 이 폭동을 전문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공산당원이다. 오늘날 공산국가는 이러한 폭동과 무력혁명을 거쳐 정권을 탈취하고 부와 행복으로 유혹되었던 노동대중을 짓밟고 일어서서 모든 권력을 당으로, 당에서 다시 소수의 지배자에게로 집중케 하며 당내 또는 대중 내의 모든 불만은 폭력으로, 위기의식으로 다스려나가고 있다.

이 점은 레닌의 당조직 이론을 그대로 모방한 북괴노동당도 마찬가지다. 북괴는 독재체제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갖가지 방법으로 억압하고 대외로 유도하기 위해 8·18사태, 남한의 북침위협설 등으로 꾸러가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지나 속고 억압될 대중은 아니다. 북괴는 폭력에 기초한 당조직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종말엔 그 폭력에 의해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마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당한다”는 격언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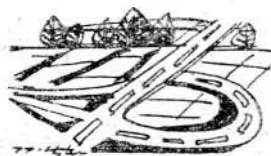
우리가 잘 산다는 基準은 過去와의 比較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의 橫적인 比較이고 공간적인 比較라고

보아야 한다.

韓國의 經濟成長分析

編
輯
室



韓國의 經濟가 開發계획을 세운지 만 15년이 흘렀다. 15년간에 우리의 經濟집행 결과로서의 성과와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나아가서는 금년(1977년)부터 실시되는 4차 經濟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 經濟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가 經濟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1962년부터이다. 정부가 이런 開發계획을 세울 때는 開發에 대한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대강 3단계로, 3차 계획 동안을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1차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화 해보자는 것이 1차 계획의 기본전략이었다.

그리고 2차계획 기간에는 수입을 대치할 수 있는 경공업 부문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3차계획 기간에는 경공업에 덧붙여서 중화학공업 쪽으로 이행해 왔다.

또한 금년(1977년)부터 실시된 4차 經濟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중화학공업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사회복지적인 면에도 가미를 하자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經濟개발 계획하면 그 나라의 발전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는 일단 經濟개발 계획이라는 편을 썼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經濟사회개발이란 사회字가 들어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경제개발 계획도 중요하지만 소위 복지적인 이런 면을 가미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발 계획을 우리가 극대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성장을 극대화 한다는 뜻도 되겠고 우리가 사회개발을 추구한다면 성장을 극대화 또는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극대화 한다기보다는 소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복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년까지 15개년 동안을 어디까지나 고도성장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금년(1977년)부터는 다소 복지적인 면에도 가미를 하자는 이러한 일단이 작년도에 실시한 재형저축이라든가 또 금년부터 실시될 각종 산재 보험에 대한 보급 문제 등등을 제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차 계획에서는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에 역점을 두었으며 2차계획에서는 경공업에 역점을 두었고 그리고 3차에 있어서는 중화학공업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며 4차에도 중화학공업에다 이제는 복지적인 면도 가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차 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주로 도로, 항만, 전력, 관개시설, 댐 등 이와같이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주변 사업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차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에는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을 조속히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공업에다 역점을 두었고 이것은 아는 바와 같이 북한경제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북쪽은 처음부터 중공업 또는 화학공업에다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노동력을 조속히 흡수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다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 과거 15년 동안에 약 400만명 이상의 고용을 무난히 흡수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역시 4차계획은 고용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생산을 하면 반면 소비가 따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산을 함으로써 소득이 나오는 것인데 이 소득에서 일부는 소비가 되고 일부는 저축이 된다. 이 저축은 바로 투자가 되는 것이며 이 투자가 다시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계획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목표는 고도성장을 추구하며 즉 성장을 극대화 하자는 이야기이다.

즉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자재를 들여다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그 소득의 크기

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들어온 것은 그 값이 해외로 나가게 되니까 벌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GNP)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매년 늘어나는 율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 우리의 개발계획의 기본전략인 것이다.

그러면 이 소득을 극대화 하려면 이 소득의 크기는 어디서 좌우되는가. 그것은 곧 저축에서 좌우된다.

즉 저축을 많이 해서 그것이 투자 제 원화 돼서 다시 생산쪽으로 연결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다고 볼 때 이것을 우리는 투자가 크고 이 투자 규모가 크면 클 수록 생산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의 규모가 커지면 소득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소득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 우리의 개발전략의 기본 목표였던 것이다.

즉 소득을 극대화함에 있어서 우리의 저소득으로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우선 소비가 되어야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인데 소비가 안 될 때는 물건을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을 늘려야 되겠는데 우리는 수요를 소비에 찾지 말고 저축개념에 해당하는 수출에다 찾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축에 해당하는 수출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되므로 쓰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니까 저축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래서 이 저축에 해당하는 수출을 극대화 함으로써 우리가 소득을 극대화 하자는 것은 1, 2, 3, 4차 계획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유리한 점은 첫째 양질의 노동력이 많았다.

이것은 큰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적인 지원이며 우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 왔다.

한편 정부에서는 일반업체보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를 싸게 해주며 원가들 절감케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세 제면에서도 우대를 해주었고 이 외에도 전기요금이나, 수송, 공업용수 등을 싸게 해주며 외국에서 많은 자원을 빌려올 때는 한 기업의 신용만을 믿지 않으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정

부에서 보증을 서주는 등등의 엄청난 지원을 했던 것이다.

참고로 71년부터 76년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71년 1,040억원

1972년 1,570억원

1973년 2,760억원

1974년 3,430억원

1975년 4,200억원

1976년 1/4분기 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온 것이며 각 수출업체는 양질의 노동력과 기업체 자신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모범정신, 창의력 등등이 복합되어 가지고 우리는 고도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수출에다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다음 이 개발전략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새마을 운동인 것이다. 필자 역시 새마을 교육을 받기 전에는 불평을 했었다.

바쁜 사람들을 끌어내어 쓸데 없는 짓을 하며 왜 제복들을 입혀가지고 이 짓을 하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1주일 동안 새마을 교육을 받고 퇴소소감을 쓸 때 느낀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한 직업을 불문하고 새마을 교육을 받아두어야 하겠으며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우리가 이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새마을 교육이란 것이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새마을 교육은 계속되는 우리의 개발계획의 하나라고 판단을 한다.

이상과 같은 개발전략과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것이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며 물론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말이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15년동안 평균 10.9%의 실제의 성장률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과거 60년대의 일본의 고도성장과 맞먹는 수준인 것이다.

일본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일으킬만한 힘을 가졌던 것이며 2차대전까지도 유발시킬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며 또 2차대전에 패망한 일본이 한국동란에서 장사를 잘 하고 또한 국제정세 하에서 그네들은 온전해 왔기 때문에 그네들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발전해 온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해가면서까지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 즉 우리의 자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국방비에 충당하는 막대한 군사비는 소비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소비적인 요소를 안고 있으면서도 15년 동안 평균 10.9%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다.

일인당 국민 소득은 62년에는(개발초년) 불과 87불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 76년말 현재 680불 이상의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이것은 첫째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소위 가족계획 즉 인구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즉 62년 개발 전에 3.3%의 인구 증가율이 최근에 와서는 1.7%까지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성장률에 힘입어 1인당 평균소득이 680불까지 달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엔 일본은 4,500불, 미국이 7,500불이나 된다.

이와 같이 이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고 느껴지며 우리의 길길은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15년간의 실적을 평가해 볼 때 고도성장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으며 둘째는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 자부하고 싶다.

62년에 우리의 제조업의 구성이 14.5

%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28%까지 배가가 됐다.

반면에 농림어업은 62년에 36.6%가 75년에 25.7%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소득구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다.

그런데 일본의 농림어업의 구성이 우리의 25.7%에 비해 5.9%, 미국은 4.4%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가까운 일본에 비교하면 아직도 요원한 것이다.

또 우리가 국민저축률이 62년도에는 1.6%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76년도에는 18.1%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재정에 자립도가 높아진다는 뜻이 된다. 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적게 빌려와도 우리의 힘으로 고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저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제개발 또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음 우리가 성과를 들 수 있는 것은 높은 성장인 것이다.

참고로 62년에는 우리의 수출이 5,500만불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77년도에는

한국은행의 추리이지만 100억불로 본다.

그러므로 81년도에 202억불은 무난히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고용의 증대이다.

62년부터 76년 사이에 취업자는 약 455만명이 늘었는데 이중 약 55만명은 농림어업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늘은 것이며 약 400만명은 제조업, 광업, 그리고 각종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수자인 것이다.

우리는 1년에 1% 성장하는데 약 40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최저 연간 10% 성장해야만 그래도 실업자를 없애고 다 취업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체질이 되어 왔다.

그리고 모든 물가가 오르면 수출이 잘 안 된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정액소득자 즉 봉급자가 피해를 보게 되며 물가는 선행적으로 많이 오르고 정액소득자의 봉급은 후행적으로 적게 오르게 마련인 것

이다.

결론적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다.

필자 자신이 가난한 농촌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라났지만 그 가난하기만 했던 농촌은 옛날과는 달리 풍요해 지고 있으며 잘들 산다.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은 과거와의 비교가 아니라 현시점에서의 횡적인 비교이고 공간적인 비교라고 본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과거보다 잘 사는 데서 오는 만족감보다도 현시점에서 이웃보다 못사는 데서 오는 불만이 더 크다고 개념을 정의하고 싶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다루어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항상 그러한 것을 머리에 두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4차 경제개발계획을 이룩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써 볼까 한다.





美
國
行
政
府
의
對
韓
政
策
觀

編
輯
室

머 리 말

「지미 카터」씨의 대통령 당선은 보수 정당인 공화당 정권으로부터 8년만에 민주당 정부로 바뀐 것을 뜻하고 미국의 역사로 본다면 독립 2백주년을 넘기는 역사적 단계에서 새롭게 3백년을 향해 전진하는 첫 해를 장식하는 새로운 임무와 기대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월남전쟁을 최악의 상태로 마무리 짓고 인지반도에서 물러나 동맹국들로부터의 신뢰감을 잃게 했으며 소련과의 「테탕트」회담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양골라」 사태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세계 지도자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워터게이트」사건을 비롯한 정치계의 많은 스캔달로 인한 미국 국민의 불신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등장한 「지미 카터」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도덕주의와 이상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不淨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외정책의 영속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정책은 변화가 예견된다. 특히 선거 공약을 통해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및 동북아시아 안보상의 중요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주장울 통해 앞으로의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하여 예견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세계지도자 역할

미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동안 미국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짓밟고 침략주의 세력을 전 세계에 뻗고 있는 공산주의 위협과 공포의 현실에서 자유세계의 생존과 모든 가치를 지켜왔으며 고도의 선진자본주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공산주의 주장이 평화 대신 전쟁을, 희망 대신 절망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으며 핵 전쟁에서의 세계파멸을 힘으로써 계속 막아 왔다.

이러한 세계 지도자적 위치를 지닌 미국에 대해 세계 속의 역할에 전 인류의 기대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월남사태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또다른 커다란 화문을 안겨 준 것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인 것이다.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군림해온 미국이 이제는 정책 변화로 먼 옛날 이야기화 해 버릴 것인가?

2. 주한 미군의 역할

미국은 우리와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어 왔고 정부 수립 후 많은 미국 원조로 국가 기반을 다졌으며 6·25 동란과 월남전 때는 혈맹관계로서 공산군을 무찌르는데 피를 나눈 전우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는 공산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많은 미군 장병이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역할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주한 미군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유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54년에 성립한 한국 방위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주한 미군은 주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 신의와 믿음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지난 26년 동안 3만 3천명의 생명과 100억달러의 재산과 미국 외교의 명예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미국은 고립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를 제3국가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고립주의자가 될 경우 친미적인 제3국가들이 친소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둘째, 일본에 대한 미국 보장에 대한 실질적 증거로서 역할이다.

카터 대통령 당선으로 미군 철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일본은 정부와 언

론, 학계 등을 구별할 것 없이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장치인 미일 안보체제는 사실상 주한 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어서 일본과 사전에 양해를 얻겠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은 사전 협의의 반대급부로 유럽에 있어서 독일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과 같이 對韓원조에 대한 日本측의 분담 문제가 부각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후쿠다 수상이 주한 미군의 철수는 한미 직접 당사자간의 문제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지만 여하간 일본의 안전이라는 점에서나 동북아시아의 안전이라는 입장에서나 주한 미군의 감축 특히 지상군의 철수는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세째, 세계전략의 중요한 거점이다.

이는 주한 미군 병력과 시설 및 오키나와에 있는 전진배치는 유럽 전쟁 발발시 아시아 가상적국의 군대가 우탈산맥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유럽의 정면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유럽전선과 중공과 소련 등의 가상적 세력을 포괄적으로 의식한 동서의 총체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역할은 1975년 스테신저 미국방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국방백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즉 동남아에서의 우리의 주요 거점들은 인근 오키나와의 지원 병력과 더불어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다.

한국에 있는 미 제2사단은 전선의 한국군과 더불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불의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는 합당한 보장을 주는 견고한 전선과 충분히 유리한 비율의 인력과 노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배치는 또한 비상시 더 큰 병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아마도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 위기가 터질 경우 우리는 아시아에서 몇 가지 주요 목표를 지니게 될 것이다.

첫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모험을 저지하고

둘째, 현재 아시아에 배치된 병력이 우탈산맥 이서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며 그리고 세째는 육지에서고 바다에서고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

한국과 오키나와에서의 우리의 배치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의 기동병력과 아울러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편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말함으로써 주한 미군의 역

할을 표명하고 있다.

3. 주한 미군의 장래

이와 같이 북괴의 무력남침을 저지하는 역할 이외 세계전략적 가치 그리고 동남아시아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 미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주장에 의해 살펴본다.

카터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 주한 미군에 관한 최초의 언급에서는 주한 미군의 전술적 핵무기의 철거와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다가 다음에는 한미 양국과의 협의에 의하여 주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후퇴했고 미 지상군이 철수하는 경우에 공군에 대한 방위를 다짐했다.

그 후 영국 선데이 타임즈지와 의 회견에서는 한국안보나 미군감축에 대해, 소련의 보장을 얻겠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정강정책을 통해 한국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 확인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북괴의 8·18만행에 대한 포드의 강경조치를 지지했으며 대아시아 정책에 관한 카터의 선거 유세와 민주당 정강정책을 분석해온 카터의 외교정책 고문 제롬코헨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아시아 정책의 주축을 일본과의 우호 및 협력에 두고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관건으로서 또 미국의 대

한공약 그 자체로서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터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거나 평화유지 장치가 마련됐을 때는 주한 미 지상군의 이동배치와 점진적인 철수를 고려하게 될 것이며 또 강력한 전술공군과 해군은 잔유시키되 한국으로부터 핵무기 철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3일 말했다.

또한 카터대통령은 당선 후 첫 공식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데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국 외교정책 근본은 불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로버트 펜세트 국무성 대변인은 76년 11월 10일 우리의 대한 기본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안보상의 관심도 불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이 한국정부 및 한국 국민과 가깝고 건설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다짐했다.

사이러스 벤스 미국부장관은 77년 1월 11일 주한 미군 감축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은 엄숙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최근 카터 미대통령 특사인 몬

대일 부통령과 후꾸다 수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의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한국의 군사능력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아닌 감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몬데일 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없으며 한반도는 미국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며 힘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후꾸다 수상에게 한국의 안정을 바라며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일본과도 협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후꾸다 수상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카터 대통령이 공언한 주한 미군 철수계획은 비록 한·일 양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심스러운 추진을 전제로 다짐하고 있지만 한국 자체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안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철두철미하게 정부와 면밀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당사자인 우리를 제쳐 놓은채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제3국과의 결정은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른바 도덕성에도 어긋난다. 이 문제는 멀리 한반도 분단이란 비극적인 역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새삼 당시 열강의 도의적 책임조차 묻고 싶은 우리의 심정이다.

아름다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현존 군사적 균형을 조심성 있게 유지하는 전제 아래 한국정부의 직접 참여와 양해를 조건으로 신중히 협의되어야 한다.

미국도 태평양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갖는 태평양국가로서 잔류한다.

「미국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공약을 그 자체로서 또 일본 안보에 대한 관건으로서 재확인한다」는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 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카터 미국 행정부의 대한정책의 향상을 주시하고 아울러 한·미·일 3각관계의 보다 긴밀한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맺는 말

한반도는 또다시 국제 정치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한데 이어 북괴의 정무원 총리 박성철은 1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코시킨 수장과 회담을 가졌다는 공식 보도에 뒤이

어 북괴 소련간의 경제문제, 중공의 정변, 한반도의 지금의 정세, 앞으로 있을 주한 미군의 철수에 대한 정책을 이 자리에서 협의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떠돌고 있다.

그리고 같은날 북경에서는 북한의 주중공대사 현준국이 이입에 앞서 이례적으로 당주석 화국봉, 국방부장 엽검영, 부총리 이선범, 외교부장 황화와 회담을 가졌다.

이와 같은 동태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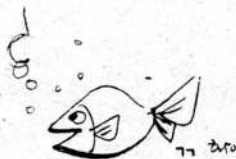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남북간의 불가침 협정을 수락하는 전제조건에서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괴측으로부터는 터무니 없는 남북 정치 협상을 제의해 옴으로써 정면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와 같은 면을 볼 때 그들은 적화 통일 노선의 불변성을 입증하고 대남무력 도발을 계속 자행하려는 저의를 노

출시켰으며 대남 악선전과 위장평화공세를 격화하고 휴전협정 위반은 물론 결정적 시기를 포착하려는 저의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우의를 다져왔고 공산군을 격멸하는데 혈맹을 맺었다는 데서 대한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국방력 강화의 제1차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정부의 어떤 정책변화에도 우리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우리의 말은바 사명 완수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북괴의 결정적 시기 포착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입각하여 한·미 두 나라가 보다 긴밀하고 진실되고 충실한 우의와 협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금 우리의 총력안보태세를 굳혀 경제건설과 국방력 배양에 총력을 경주해야겠다.



하늘의 勇士



梁 震 錫 譯

이 실전기는 2차대전 당시 미국의 첫번째 에이스(ACE: 적기를 5대 이상 격추시킨 전투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호칭)가 된 「윌리엄 알 던」의 체험 수기이다. 필자는 그 후에도 유럽과 버마 전선에서 P-47과 P-51 조종사로서 많은 전공을 세웠고, 전후에는 중국, 이란, 브라질 공군의 군사고문관으로 근무하였으며 1973년에 미공군 중령으로 퇴역하여 지금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화가와 작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1941년 8월 27일의 캄캄한 새벽, 여군 당번병이 내 숙소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와 눈부신 불을 켜다.

“4시입니다. 한 시간 안에 주기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서 일어나 시간에 대십시오.” 그녀는 즐거운듯 뇌깔이면서 내 코앞에 꿇인 차 컵을 들이댄다. 제

기랄, 새벽 4시에 그처럼 종알떨건 뭐람?

“그래 그래, 일어난다. 오늘 날씨는 어때?” 나는 즐면서 물어봤다.

그녀의 대답은 하늘이 아주 맑고 별이 짹짹이며 곧 날이 밝을 것이란다.

에이참, 비가 와서 오늘 하루를 쉬든

지, 안개가 잔뜩 끼어 대기하면 몇 시간 만이라도 잠을 더 잘텐데……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오늘은 안 그렇다. 전쟁은 지옥이다! 아침 밥을 굶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침대에서 뛰쳐 나와야 한다.

나는 침대에서 억지로 빠져나와 미지근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남은 비행복을 입은 후 식당으로 갔다. 제71독수리 대대의 몇몇 전우들—목거리, 잉글샘, 크로우리, 거씨, 프로빈자노—은 벌써 아침밥을 먹고 있었고 만 친구들은 다음 수분 안에 띄엄 띄엄 들어왔다.

다른 보통 때 아침같은 대기 상태에서는 겨우 4명 내지 6명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대대 조종사의 대부분이 나온 것을 보고 나는 놀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히 생각했다.

샘은 오늘 아침 우리 대대 전부가 서어커스를 할 것인데 그게 그가 아는 전부라고 했다(영국 공군에서 서어커스는 전투기 임호를 받는 폭격임무를 말한다).

우리 아침밥은 여러 여군들이 잘 대접해 주었는데 메뉴는 두개의 소세이지(당시는 90프로의 빵과 10프로의 고기를 섞은 것), 한개의 토마토 플라이(계란 플라이 대용인데, 나는 물렸다), 토스트, 잼과 영국 사람들이 커피라고 잘못 부르는 짭짤한 물이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귀관은 모르는가?”라는 물

자부족 표어 때문에 불평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받는 계란배급은 한달에 한 개 뿐이다. 그날 아침은 행정을 보는 군인들도 전부 일찍 일어나 있었다.

십분 내에 아침을 마친 우리 여섯명은 식당을 물러나와 조지 브라운 중위의 소형 트럭에 타고 노오스 위일드 비행장의 끝에 있는 주기장 대기실로 갔다. 나머지들은 스탬카가 배차된 대대장 패리우드하우스와 함께 타고 갔다.

주기장에서 우리는 각각 편대와 비행기를 배당받았다. 나는 블루우 편대의 3번기에 배정되었다. 내 비행기는 스피트라이어 II A, 부호번호 XR-D, 일련번호 P7308이다. 나는 늘 XR-D 또는 XR-T 항공기를 탔었다.

두 가지가 다 좋은 기계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XR-D가 약간 더 좋은 놈이었다. 비행기 출동준비를 하고 낙하산과 헬멧을 챙기기 위해 우리가 주기장으로 나갔을 때, 작전계의 한 병장이 우리 71대대의 준비사항을 보고하려고 11전대를 호출하고 있었다.

기장은 내 스피트의 엔진시험을 막 끝마치 있었다. 엔진에 이상이 없음이 그가 알려주었다. 나는 왼쪽 날개 발판을 밟고 올라가 내게 맞도록 낙하산의 벨트를 고쳐 기수에 있는 내 자리에 놓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연료계기를 점검한 나는 마스터 스위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위치를 “ON”위

치에 놓아 보았다. 그 후에 연료펌프를 열었다가 닫았다. 다음에는 빨리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스톱를, 혼합기와 프로펠러 피치를 맞춰 놓았다. 나는 무전기 코오드와 산소, 뷰우브를 끌고 헬멧을 조준기 위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지도함의 지도를 점검하고 창 스크린 위로 손을 뻗쳐 백밀터를 맞춰 놓았다. 엔진 냉각 온도는 약 85도로서 정상이었으며, 수압과 산소 압력도 좋았다.

나는 좁은 기수에서 빠져나와 항공기의 주변을 거닐면서 점검했다. 모든 것이 오케이이다. 출발준비가 다 됐다.

나는 갈색과 녹색으로 위장된 내 XR-D의 동체를 사랑스럽게 두드려 주었다. 이때서야 날이 새면서 하늘이 꽤 밝아왔다. 나는 정비사에게 양식 400을 서명해 주고 주기장 대기실로 돌아갔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 젠장, 기다리는 것은 질색이다. 나는 내 구명대를 걸치고 탄 킨구들처럼 의자에 깊이 앉아 수분간의 눈감고 잠들기 작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작전전화가 요란히 울려와 우리는 모두 약력은 것처럼 선잠에서 깨어 새 정신이 바짝 들었다. 대대장이 전화에 가서 11전대의 참모로부터 서어커스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수분간의 대화를 한 끝에 대대장은 전화를 끊자 급적인 노우트를 집어 들고 브리핑 육판으로

다가왔다.

“자 됐다. 서어커스 86작전 시작이다. 우리 비행단은 9대의 브렌하임 폭격기를 엄호하여 밀레에 있는 제철소 폭격을 감행할 것이다. 우리 대대는 상공엄호비행을 할 것이고 단의 다른 2개대대는 근접엄호비행을 할 것이다. 정보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2개대대의 적전투기를, 심중판구는 아베빌에서 날아올 놈들과 조우할 것이라고 하니 정신들 바짝차려라. 그리고 놈들을 보면 네 호출부호를 대고 놈들의 시계방향과 고도 위치를 알려라. 네가 「밴디트」(적기)라고 불러대면 우리 서어커스단의 모두는 원형비행을 하게 된다. 엔진 시동시간은 06:00시, 10분 남았다.

선잠들은 수평비행을 하게 되면 편대장에게 바깥 붙어라. 질문 있나? 없으면 가자!” 짧고 재미 있게 목적지까지만 좋겠다.

붉은 대공포화

이제 시간은 08:15. 이륙이 늦어졌었다지만 하늘에 떠 있는 것은 한 시간 조금 넘었다. 우리의 고도는 18,000피트. 적 전투기가 상공과 후면에서 기습 공격해 오는 것으로부터 9대의 브렌하임 폭격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공엄호비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15,000피트로 케이프 그리스베스 근처에 있는 프랑스 해안을 통과하여 밀레에 있는 제철소를

향하여 세인트 오머어로 비행 중이다.

우리의 전편대는 9대의 폭격기와 36대의 전투기로서 서어커스 86을 형성하고 있다.

나는 훨씬 아래쪽에 산재된 구름을 통하여 독일군의 88밀리 고사포가 평화롭게 보이는 녹지대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쏘아올리는 섬광을 보았다. 흑갈색의 포탄이 우리를 편대의 약간 뒤와 아래에서 작렬하고 있었고 한 때는 아주 가까이에 서도 터졌다. 나는 천천히 사라져 가는 검은 연기의 길다란 통로를 잠시 뒤돌아 보고 우리가 날아온 경로를 쉽사리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해안을 통과할 순간부터 독일놈들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쏘아댔다.

대대장은 넓은 V자 전투대형으로 벌리고 고도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브렌하이임 폭격기대의 상공을 전후로 누비며 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가 각 편대장에게 명령하는 목소리는 내 무전기 에어 폰을 타고 똑똑히 들렸다.

“파아손 화이트 편대. 파아손 대대장이다. 화이트 편대는 대형을 유지하라.

화이트 2번기는 뒤떨어지지 말라”

나는 대형의 오른쪽을 올려다 보았다. 화이트 편대 2번기는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그 소리는 2번기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한 소리 같다. 낙오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자들은 적다. 낙오되면 끝장이 나는 것 뿐이다.

낙오된 놈은 적전투기가 쏜살같이 날아와 격추시켜 버린다.

또다시 대대장의 카랑 카랑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 온다. “파아손 대대. 대대장이다 대공포화가 올라온다. 109형 적기가 날아오나 잘 감시하라.”

우리 뒤에서 터지는 붉은 대공포화의 연기가 여러 개 보였다. 아주 위험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붉은 연기는 적의 전투기가 이미 올라와 있어 이 연기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기들이 무전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붉은 연기를 볼 때마다 나는 척추를 바늘로 콧속 찌르는 것과 같은 흥분을 느꼈다. 앞으로 다가올 수분 동안에 내 목숨이 다할지도 모른다.

이 맑고 아름답고 눈부신 여름 하늘에서 나를 죽일 놈이 있고 내가 놈들을 죽일 일이 생기기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독일군 조종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나는 속으로 물어 보았다. 아마 그들도 같은 생각일거야.

나는 계기판의 조준반사기 스위치를 켰다. 조준기의 점과 원이 내 눈앞 유리판 위에 흐린 오렌지 색으로 비쳐 왔다.

나는 폭을 32피이트로, 거리를 250야드로 맞췄다. 그리고는 연료 표시기 단추를 눌러 봤다. 연료는 충분하다. 연료소모를 많이 하더라도 앞으로 한 시간

짧은 전될 수 있다.

다음에는 나침반을 내가 가고 있는 현재 방향의 반대로 맞추어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최종적인 예비작업은 공중전 혼란 후에 생기는 초도 방향탐지 문제를 제거해 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총 단추를 “사격” 위치로 놓았다. 나는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되었다.

5대째의 격추

“파아손 대대장. 여기는 블루우 1번기. 109 3대가 7시 방향 상공에 있습니다.”

나는 머리를 왼쪽 뒤로 꺾 돌려 나보다 약 4,000피트 상공에서 적기 3대를 찾아낼 때까지 하늘을 훑어 보았다. 놈들의 비행방향은 우리와 같음에 분명히 다른 요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회초리채와 같이 백색의 탄흔이 나의 오른쪽 날개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조종간을 칩것 왼쪽으로 당겼다 놓고 스톱틀을 완전히 열면서 급상승 회전을 하였다. 나는 내 무전기를 송신 위치에 놓으면서 칩착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파아손 대대. 여기는 블루우 3번기. 놈들은 6시 방향 위에 있다.

아래쪽은 조심하라.”

맨 위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했다. 나는 나의 대대와 폭격기 엄호대에게

경고를 주었다. 처음 공격해 온 적기에는 조금 늦었지만 다음에 공격해 올 ME-109에 대하여는 조심을 하도록 해 주었다.

내 아래는 이제 상공엄호 전투기 11대의 대형이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 대대의 각 편대는 넓은 V자 대형을 깨고 분리되었다. 우리는 모두 2대 또는 3대씩 무리를 지어 흩어져 있었다. 공중전이 시작되면서 각 소편대는 특수비행을 하고 있었다. 독일 공격기는 우리 위에서 직선으로 파고 들어와 임호를 깨뜨리고 폭격기를 공격하려 한다. ME-109의 첫 편대장은 급강하하면서 나에게 속사를 가해 왔다.

우리 비행대형의 오른쪽 위에 회전기 꼬리가 보였다. 우리의 스피트 파이어 1대가 그 뒤에 그리클 연기를 뿜어 내면서 빠른 속도로 급강하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 라디에터나 엔진 냉각계통이 피격되어 프랑스 해안으로 날아가 파손된 비행기를 끌고 귀환하려는가 보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바랐다.

4대의 다른 독일군 편대가 공중전에 합세하려고 강하하고 있었다. 그들의 넓은 남빛의 부푼 동체부분이 아침해살에 반짝이었다. 나는 그들의 짧고 네모진 날개에 페인트된 흑색의 +자와 그 주변의 흰 페인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모든 ME 전투기들의 기수는 밝은 노랑색이었다. 우리는 이 독일군 부대를

알고 있다. 그들은 전에도 내가 조우한 바 있는 아베빌에서 온 놈들이다. 독일 기의 대부분은 ME-109E형이며 그 중의 약간은 신형인 ME-109F형이었다.

내 추측으론 조지 브라운 중위가 편대장인 B편대의 한 스피트 파이어가 4대의 새 칠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상승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기관총 8문에서 .303 탄환을 세번째의 ME-109의 동체로 쏘아대는 것을 보았다. 적기의 동체는 꼬리부분에서 두 동강이 나버렸다. 그러고는 그 안에 있는 20밀리 기관포 저탄소가 피격되자 왼쪽 날개가 폭발하면서 분해해 버렸다. 금방 ME기의 후드가 벗겨져 나가더니 적의 조종사가 그의 기수로부터 튀어 나왔다.

순간 나는 그의 낙하산이 헬센 밑에서 그를 나누어 썰 때까지 그가 공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놈은 아주 재수가 좋은 놈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커다란 불빛이 터지고는 없어졌다. 다른 누가 정통으로 얻어 맞은 모양이다. 나는 그것이 스피트 파이어인지 아니면 109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항공기의 파편과 조종사가 하늘에서 비처럼 밀려 떨어지고 있었다.

공중전은 이제 겨우 20초나 30초가 지났을까다. 하늘의 싸움에서는 상황이 너

무 빨리 지나간다. 땅에서 우리를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투가 수분밖에 안 걸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전투조종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진다.

이 공중전을 하는 동안 나는 다만 적의 첫 편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었다.

나는 나에게 좋은 목표가 될 ME-109를 찾기 위해 사방을 훑어 보았다.

나는 지난날까지 적기 4대를 격추시켰다. 이제 하늘의 용사 "에이스"의 타이틀을 따는데는 한번만 더 이기면 된다.

그 때 바로 내 위쪽으로 2대의 ME-109를 보았다. 놈들은 분명히 피격된 스피트나 브렌하임이 낙오하여 모기지로 귀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한 파손 항공기는 그냥 내려와서 쏘아버리면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밤이다.

나는 뒤쪽으로 급상승하여 두 대의 적기 상공에 다다랐다. 나는 그들의 약 1,500 피이트 위에서 해를 등지고 있었다. 엔진 스톱볼을 다 틀고 뒤에 있는 적기를 향하여 내려 쫓았다. 그 중의 앞선 리더는 내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빨리 그의 뒤쪽으로 역회전을 하면서 나로부터 피해 내려갔다. 나의 목표인 두번째 항공기는 왼쪽으로 상승하면서 선회를 한다. 나는 약 150야아드의 거리로 접근하여 109를 내 조준기에 맞추는 순간 발사 단추를 눌렀다. 내 애기는 8문의 기관총 소리를 날카롭게 울리면서 약

간 떨고 있었다.

화약이 타는 냄새가 기수에 가득 차면서 내 코를 찔렀다. 나는 이 냄새를 좋아한다. 이것은 내 척추를 근무세워주고 내 근육을 뻗뻗하게 해 주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 내 머리는 광광 울리고 나는 웃어보고 싶어진다.

나는 내 기총으로부터 회백색의 탄흔이 ME기의 꼬리쪽으로 내뿜는 것을 보았다. 포탄이 작렬하자 승강기와 라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적기의 동체에서 조각이 튀었다. 거리는 이제 50야아드 이내이다. 엔진 오일의 검은 액체가 내 창 스크린에 튀겨 오고 짙은 갈색 연기가 나를 향해 물려왔다. 나의 적기는 골로 간 것이다. 한대를 또 겨주시킨 것이다. 기쁘다. 나는 이제 5번째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6대를 채워라

나는 장갑진 엄지손가락을 기총단추로부터 떼고서 적기가 아래에 깔린 프랑스 들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왼쪽으로,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급상승 선회를 하였다. 그 비행기는 이제 심한 화염에 싸였다. 그 늪은 뒤로 길다란 연기 꼬리를 남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늪은 푸른 불꽃처럼 보이고 있다.

그 독일군 조종사가 나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이상스러웠다. 아마도 그는 신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이제는 다 끝나버린 일인데.

우리 대대의 각 편대들은 이제 11,000 또는 12,000피트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보다 2,000피트 위에 있다. 나는 멀리 떨어진 아래쪽 릴레 교외에 있는 폭격기의 목표인 제철소 건물과, 우뚝 솟은 굴뚝들을 보았다. 폭격기들로부터 일렬로 연속되는 폭탄이 떨어진다. 목표지점에서 웅장하게 터지는 폭음 충격파를 볼 수 있었다. 9대의 브렌하임은 모두 우리가 근접엄호하는 방어전투기에 감싸여 있다. 이제 그들을 또다시 모기지로 모셔가야 한다.

내 아래쪽은 여러 무더기의 공중전이 행해지고 있었다. 우리 스피트파이어들은 이런 싸움에서 꽤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 탱크에 남은 연료로 영국까지 돌아갈 수 있지만 적지에 남아서 오랜 시간 머물기에는 불충분하다. 아마 앞으로 십분 정도다.

내 애기의 왼쪽 날개가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갔다.

날개의 금속표면이 몇 군데 갈라지고 끝에는 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 뒤를 빨리 쳐다보니 적의 공격기가 왼쪽 뒤 약간 높은 곳에서 급강하해 오고 있었다. 그 늪은 아까 내가 해 치운 친구와 같은 조의 리더더인가 보다.

나의 생사를 판가름할 시간은 아마도 3초밖에 없다. 독일군의 예광탄은 마치

불덩이처럼 내 기수를 번쩍하고 지나 갔다. 나는 스로틀을 잔뜩 밀어 넣고 클랩을 완전히 내리면서 나의 얘기를 그의 표준기로부터 맹렬히 벗어나게 했다. 이제 그는 너무 빨리 접근해 온다. 나는 속도를 몹시 줄인 탓으로 운 좋게도 얼어 터지는 것을 가까스로 면했다. 그는 내 머리 위의 10피이트도 안 되는 거리를 스쳐 지나갔다.*

109F의 엷은 남빛 동체 부분이 내 창 유리를 채웠다. 나는 그 동체 밑에 있는 기름 줄기와 리벳 나사까지도 볼 수 있었고 그 위에 있는 흑색의 +자 국적 표지, 부대 표지, 기수 옆에 페인트된 붉은 수탉도 보았다. 독일군 조종사는 나를 똑바로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가 방금 저지른 실수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는 기총을 발사하였다. 놓쳐 버릴 수가 없다. 나의 기총은 3~4초 이상 불을 토해 내지 않았다. 나는 탄환이 독일기의 배에 박히는 것을 보았다.

109에서 조각이 튀겨 나왔다. 그 비행기의 엔진으로부터 회색의 검은 연기 줄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비행기 전체는 갑자기 붉은 백색의 불꽃 속에 휘말렸다.

그 비행기는 뒤로 서서히 굴러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꼬리 부분이 작살났다. 그 놈이 내 밑으로 멀리 굴러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기가 싫었다. 2대 격추! 내 얼굴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

었다. 나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험쩍이고 있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다른 109가 나보다 약 500피이트 아래에서 나의 비행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놈은 아마 귀환 중인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나를 발견한 것이다. 내가 그의 꼬리쪽으로 강하 회전을 하자 그는 맹렬한 회피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75야아드까지 접근하였다. 그는 급히 급상승을 하였다. 나는 그의 배면으로 짧게 기총을 퍼 부었다. 그는 우선회를 하며 치달더니 내 조준기를 가로 질러 곧바로 날아 들었다. 우리 두 항공기 사이는 30야아드도 멀어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발사했다. 그는 연기를 품기 시작했다.

이 순간 나는 나의 백밀러를 통하여 4대의 ME-109가 나를 요격하러 올라오고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 재수 없는 일이다. 나는 스로틀을 끝까지 밀어넣고 조종간을 나의 배쪽으로 힘껏 당겨 그들의 뒷쪽으로 올라 가기 시작했다. 제일 가까이 있던 놈이 나에게 기총을 쏘아댔다. 그의 빛나간 겨냥은 재수가 좋았었다. 20밀리 기관포와 기관총탄은 나에게 뺨쳐 왔고 내 꼬리의 방향을 돌려 놓았다.

죽음의 비행

나는 조종간을 앞당겨 내 스피트를 역

전시키니 지평선이 거꾸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폭발음을 들었고 내 비행기의 동체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왼쪽 날개가 또 맞은 것이다. 나는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기수를 통하여 불명어리가 번쩍이면 내 계기판을 두드려 부셨다.

내 오른쪽 발을 몹시 때리면서 라다 페달을 킁기며 발을 마비시켰다. 두번의 날카로운 가격에 내 오른쪽 다리를 때렸다. 내 머리를 앞으로 갈기면서 내 눈은 눈부신 백색 섬광으로 시각을 잃었다. 그러더니 어둠침침해졌다. 나는 가냘프게 유리 조각과 금속이 기수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전쟁에서 아무도 죽기를 싫어하는 두려움이 나에게 닥쳐 왔다. 전쟁이 끝나면 여러 가지 할 일을 꿈꾸는 나에게 죽음이 닥쳐 오다니……

나의 목과 머리 뒷쪽이 몹시 아팠다. 내 팔과 다리는 공중에 가볍게 떠 있는 것 같았으나 나는 아직도 그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 무게를 느꼈다. 조종간을 잡고 있는 내 손은 끌려 다니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떼려고 해도 손가락이 떼어지지 않았다. 수초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내 비행기는 추락하여 폭발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 생애를 통해 내가 사랑하던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떠 올랐다. 그들은 모두 나를 보고 반갑게 웃어주는 것이다. 나는 친밀한 목소리들이 상냥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떠 있는 이 순간을 그들이 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뒤 흔들리던 내 머리가 기수의 후두를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시각을 잃었으나 그 후에 내 눈을 덮고 있는 심한 어둠이 조금씩 반짝였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난 계기판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귀환과 기도

나는 머리를 들어 창 스크린을 통해 쳐다보니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물판이 나를 감싸 안으려고 위쪽으로 미친듯이 밀어닥치고 있었다. 순간 나는 내 두 손에 갑자기 오면서 조종간을 힘껏 끌어당겼다. 내 스피트파이어의 기수가 친친히 들린다. 밑에 있는 땅덩어리는 소용돌이를 멈추고 땅과 하늘이 제자리에 자리잡는다. 지평선이 다시 나타났다!

내 두뇌는 내가 살았음을 알려준다.

나는 소리없이 웃었다. 나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다.

힘이 내 몸에서 되살아났다. 내 맥박은 몹시 뛰고 있다. 내 피부는 차고 축축한데도 땀을 계속 많이 흘리고 있었다. 나는 떨었다. 나는 죽음이 멈추었음을 믿게 되었다.

나는 다시 1,200피트의 고도로 비행하게 되었다.

나는 적기가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가 보기 위하여 뒤와 위를 살폈다. 아무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불란서 해안으로부터 약 5마일 떨어진 암볼티우스의 작은 도시가 있는 이 적국의 하늘에서 외톨박이가 되었다. 나는 내 비행기와 나의 상처를 확인하면서 영국 쪽으로 기수를 향했다.

왼쪽 날개는 큰 구멍이 생기고 찌꺼져 있지만 보조날개의 조작은 괜찮은 것 같았다. 햇빛에 구멍이 내 기수의 왼쪽으로 스며 들어왔다. 그것은 내 계기판을 때린 포탄 파편으로 생긴 구멍입에 틀림없다. 계기로부터 떨어진 유리 조각과 쇠붙이들이 기수의 바닥에 흩어져 있다.

나는 오른쪽의 내 비행화를 보았다.

구두의 앞쪽은 떨어져 나갔고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나의 라다 페달은 피가 튀겨 있으며 약간 휘어 있었다.

오른쪽 바지는 무릎 바로 밑에 피로 축축하였으며 그 곳으로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머리와 목의 통증은 나를 몹시 괴롭혔으나 그 이상 나의 다친 몸을 조사하기 두려웠다. 나는 가족 비행 헬멧 밑으로부터 내 머리털로 스며드는 끈끈한 액체를 느꼈고 내 목과 볼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산소통을 확 열고 깊게 숨을

쉬었다. 나는 이제 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

내 앞 멀리에 영국 해협의 바다표면이 반짝임을 보였다. 내 스피트파이어 엔진은 거칠고 과격하게 울리고 있다.

모기까지 잘 충분한 기름이 있다. 혹 있을지도 모를 적기 공격에 대비하여 나는 내 비행기를 잠전하 좌우로 조작해 보았다. 해협 횡단비행은 나를 반겨주는 도우버의 백색 절벽이 보일 때까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내 엔진은 힘이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이제 800피트로 낮춰져 있다. 나는 무전기 스위치를 켜고 "메이데이"를 큰 소리로 외쳤다.

2분이 되었을까 말까 하는 사이에 2대의 스피트파이어가 나와 합세했다. 그들의 리더가 날개를 흔들면서 그를 따르라고 손짓을 했다. 스피트는 나의 후미를 지키기 위하여 뒷쪽으로 날아갔다.

나의 엄호기는 해안의 절벽을 넘어 폴크스톤읍 가까이에 있는 호킨지의 작은 풀밭 비행장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나는 연료 혼합을 「Rich」로 바꾸고 프로펠러를 「Fine」 피치로 놓고 랜딩 기어를 「Down」 위치에 놓으며 최종 접근로를 돌면서 플랩을 내렸다. 엄호 스피트파이어 한 대가 랜딩기어가 내려졌다고 신호를 해 주었다.

나의 비행기에는 기수에 아무런 표시 등이 없다. 모두 부서진 것이다. 나는 비

행장의 잔디표면이 나의 날개 밑으로 스쳐 지나갈 때까지 선도기와 같은 속도로 고도를 낮추었다. 나는 퉁퉁히 스로틀을 달으면서 약간 가라 앉는 느낌을 받을 때 내 바퀴는 풀밭 위로 살짝 굴러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돌아왔다! 나는 무사하다! 극도로 긴장한 지난 몇 시간 동안에서 완전히 풀려 난 느낌이 나를 휩싸았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의 병원차가 활주로 끝에 정차하고 있음을 보고 그리 비행기를 물고 가 엔진을 켰다. 의무병이 항공기가 몇 대서 있는 주기창 근처의 연료차를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그 곳에 가서 연료 보급과 재무장을 받으란다. 나는 그에게 나의 부상을 알리고 항공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그는 피물은 내 얼굴과 헬멧을 보고, 또 피에 얼룩진 기수와 보미트가 엉망이고 날개가 약간 떨어져 나간 것을 훑어보았다.

군의관이 곧 다가와 내 팔을 보더니 나를 기수에서 꺼내어 내 스피트라이어 날개의 그늘 밑에 나를 눕혀 주었다. 이제 나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나의 손가락은 찬 풀잎과 닿았다. 또다시 땅으로 돌아오니 참 좋다. 누군가가 불붙인 담배를 내 입술에 물려 주었다.

나는 내 바지 현좌를 찌개는 소리를

들었다. 두 개의 기관총탄 구멍이 내 오른쪽 장딴지에 뚫려 있었다. 내 비행구두를 벗겨보니 내 오른쪽 발의 앞면은 20밀리 기관포 파편으로 찢어져 있었다

의무병이 조심스럽게 내 가죽 헬멧을 벗겨보니 기관총탄은 내 머리 뒤를 스쳐 지나갔었다. 피는 보았지만 친만 다행이다.

의무병 둘이서 나를 들것에 누이고 기다리는 병원차로 들고 갔다. 군위관은 주사를 놓으면서 나를 폴크스톤에 있는 빅토리아 왕실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말했다. 나의 애기 XR-D여 잘 있거라. 너는 훌륭한 연노릇을 해 주었다. 너와 내가 둘 다 잘 치료되어 낫기를 바란다.

병원차가 출발하자마자 정보장교가 나에게 다가와 반대편에 앉았다. 그는 나의 모기지와 소속을 물었다. 그는 내가 어디 있는가를 본대에 알려 줄 것이다. 그 후 얼마 동안 나는 나의 전투 보고서를 구술하였고 그는 그것을 그의 작은 공책에 기입하였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다했고 이제 그는 그의 일을 하면 된다.

내 팔에 놓았던 마취 주사의 효험이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에이스가 된 나는 정신을 잃어 갔다.

現代戰은 潛在的 工業力이 아니라 防衛力으로 顯在化된
防衛産業이 要求된다.

우리나라 航空産業의 將來

△
1
▽

그 育成策을 中心으로

林

貞

赫

△ 航空 評論家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말하여 한 國家가 追求하는 目標은 安全과 繁榮이며 그 手段은 富國強兵이다. 그러나 이 國家目標은 國家에 따라 자기의 利益과 價値觀, 그리고 歷史的, 地政學的 立場에 따라 위의 國家目標의 普遍性 속에서 자기의 獨立的인 具體性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國家目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土統一과 그의 永久的인 保存이며,

둘째, 國家繁榮을 위한 經濟的 自立과 社會的, 文化的 近代化를 기하며

셋째, 대외적으로 國威宣揚을 위한 國際的 地位를 향상시킨다.

우리의 軍事力은 이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의 國家目標 達成을 否定하고 毀謗하는 것이 北傀의 政治, 外交路線이며 특히 武力赤化를 노리는 그들의 軍事的 威脅이므로, 우리의 軍事力은 우리의 國家目標을 達成하기 위하

여 自主國防能力을 배양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특히 60年代 末부터 自主國防을 목표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自衛精神의 培養에 힘써 왔으며, 70年代 중반기부터는 自衛의 精神의 바탕 위에 「내 나라는 내 힘으로 지킨다」는 自主力量의 育成을 통한 自力防衛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前者는 69年 7月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駐韓美軍 1個 師團이 철수하게 되자 그 空白을 메꾸기 위하여 71年에 시작된 「國軍現代化 計劃」에서, 그리고 後者는 76年에 시작된 「自主國防能力 計劃」에서 그 具現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後者는 「자기 나라의 國家安保를 남에게 의존하던 時代는 확실히 지나갔다. 자기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하겠다는 굳건한 決意와 能力을 갖고 있어야 生存이 가능하다」는 朴大統領閣下의 特別談話(75. 4. 29)에서 그 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

이 「自主國防能力 計劃」의 가장 중요한 課題의 하나가 바로 有事時 戰鬥力을 構成하는 武器 및 裝備를 國內에서 生産하기 위한 우리 나라 防衛産業의 育成이다.

그간 우리 나라의 防衛産業은 驚異의 速度로 발전하여 왔다. 그 한 실례로

서 74年 10月 「國軍의 날」 퍼레이드에서 國産裝備가 처음으로 公開되었으며, 여기에는 트레일러에 실린 81mm 迫擊砲, 3/4톤 트럭에 실린 4.2인치 迫擊砲, 2.5톤 트럭이 牽引한 105mm 및 155mm 榴彈砲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最新裝備의 도입과 國産裝備의 補完으로 우리의 軍事力은 더욱 莫強하게 되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北傀가 南北韓不可侵協定締結에 응한다면 駐韓美軍撤收에 반대 않겠다는 朴大統領閣下의 年頭記者會見에서의 지적에서 엿볼 수 있다시피 우리의 自主國防能力은 문자 그대로 莫強한 힘으로 成長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防衛産業에 있어서 航空機工業이 상대적으로 弱勢에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과연 우리의 航空産業은 이스라엘, 中華民國, 日本 등 우리의 關心對象國과 비교하여 어느 水準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戰力化에 이바지하도록 育成해야 할 것이며, 그 運營主體는 누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라이선스 生産을 할 경우 지금의 PL-2 訓練機가 아니라 戰鬥用 航空機로서 어떤 機種을 택할 것인가 라는 政策上的의 主要問題들이 提起된다.

本稿는 이와같은 問題意識下에서 그간

國內外에서 公開된 關係刊行物에 대한 文獻調査를 통하여 航空産業의 必要性, 政策決定上의 問題點, 研究開發, 現行 航空機 取得樣式의 長短點, 그리고 이스라엘, 中華民國, 日本 등 關心對象國의 航空産業의 과거와 현재를 分析하고 이를 準據點으로 하여 우리나라 航空産業의 育成策을 導出코자 한다.

다만 紙面의 制約으로 광범한 관련 자료를 폭넓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한다.

2. 航空産業의 必要性

오늘의 戰爭에 있어서 決定的 役割을 하는 것은 現有軍事力(Force-in-being)이다. 즉 現代戰은 戰鬪가 시작될 후 潛在的 工業力을 防衛力으로 顯在化하는 轉換時間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今대 潛在的 工業力이 아니라 防衛力으로 顯在化된 防衛産業이 要求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工業力이야 말로 최대의 軍事的 資産」이라는 「노스탈지」한 思考方式은 우리나라의 軍事計劃을 망치게 한다(註 1)고 볼 수 있다. 심지어 長期戰이었던 2次大戰에서도 「聯合國의 潛在的 工業力은 프랑스를 救出하지 못하였으며, 최초의 2~3年間은 이렇다할 도움이 되지 못했다」(註 2)고 하며, 韓國動亂에서 釜山을 救出하고 反擊하게

된 것은 潛在的 工業力이 아니라 現有軍事力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 오늘날 速戰速決의 戰爭(Making its wars short and decisive) 樣相으로 高度의 切열한 消耗戰을 强요하는 이마당에 潛在的 工業力을 戰爭勃發 후에 防衛産業으로 轉換할 時間적 여유가 없으므로 平時에 防衛力으로 적극 顯在化한 防衛産業을 育成해야 한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은 급속히 成長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 중 航空機工業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는데 있다.

오늘의 航空戰力은 戰爭의 主導的 役割을 한다는 것은 最近의 戰史가 입증하고 있다. 그것은 科學技術革命에 따른 航空機의 可恐할 特性과 그의 獨特한 運用에서 由來된 것이다.

이같이 戰爭의 主導的 役割을 하는 航空戰力面에 있어서 우리 空中戰鬪要員들의 戰術, 戰技, 士氣, 團結心, 敵愾心 등을 포함한 質的 面的 精銳性은 각국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물론 戰力の 物量的 면만을 云云할 수 없다. 敵의 量的 優勢를 우리의 質的 優勢로 相殺할 수 있다. 예컨대 戰史의 記錄이란 대부분 劣勢하나 質이 좋은 軍隊가 數的으로 우세한 軍隊를 敗北시킨 記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量的 隔差는 敵의 誤算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Operational Research의 元祖라고 불리는 英國의 Fredrick W. Lanchester의 交戰理論에서 보면 實戰 闘力=量的 戰闘力×質的 戰闘力, 즉 戰闘력을 量과 質로 구별하고 戰闘는 그것이 相乘效果로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原則論으로 말하여 「自主防衛의 体制化에 있어서는 量的으로는 所要數의 完備 및 과거의 美國 供與品の 國內調達에로의 轉換에 의한 自給体制의 強化가 기대되며, 質的으로는 裝備現代化에 대응하도록 國內技術에 의한 國產裝備의 強化의 必要性이 높아진다」(註 3)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에서 볼 때 航空裝備는 항상 높은 性能의 것이 필요하며, 또 自主開發에서 完成까지 상당한 時間과 豫算이 所要되기 때문에 航空機 完成品 輸入의 樣式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完成品 輸入에만 의존하게 되면 自主國防能力에 필요한 國產航空機의 保有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外國과의 技術提携 및 技術導入을 적극 추진하고 自主技術에로의 移行과 進歩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高度의 技術이 요하는 航空産業은 他 産業部門에 많은 誘發效果(Trigger effect)와 波及效果(Spillover effect)를 준다. 航空産業은 전형적인 知識集約的 産業이며 장래의 産業構造上 중요한 역할을 하는 産業이다. 즉 附加價值(Added value)가 높고 資源節約型 高加工度産業이다. 또한 航空産業은 技術先導産業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技術波及效果가 큰 産業이다. 따라서 航空産業을 振興한다는 것은 다른 産業部門의 技術水準을 더욱 向上시키는 일이 된다. 이것을 圖示하면 다음 표와 같다. (註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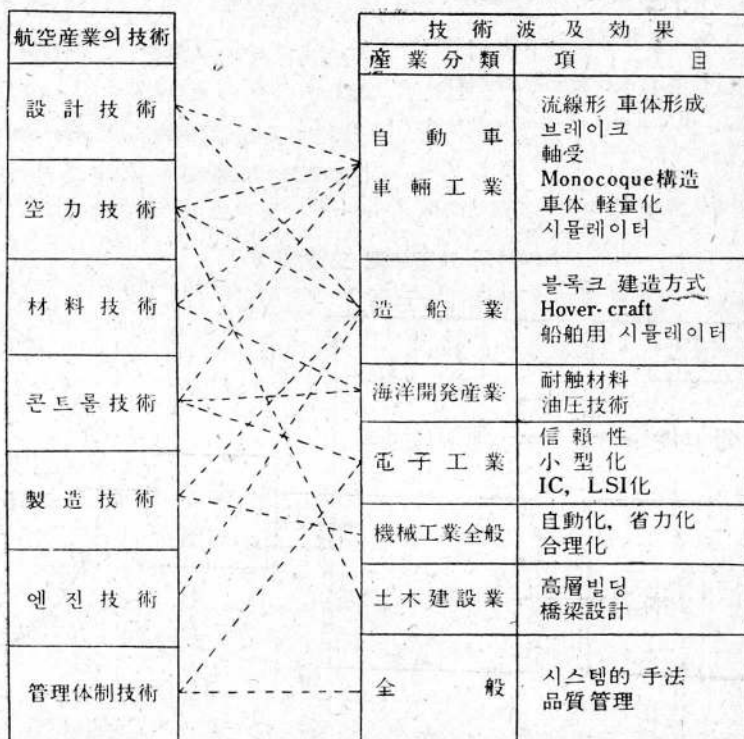
單位 重量當 價格

品 名	1噸 當 價格(\$)
旅客機	19萬 3,000~22萬 8,000
乘用自動車	2,450~ 2,800
칼러 TV	1萬 4,000~ 2萬 1,000
트랜지스터 라디오	2萬 4,600~ 5萬 2,600
電子計算機	7萬 ~14萬
카메라	15萬 7,900~19萬 3,000
航空 엔진	28萬 ~35萬

附加價值率 및 資源節約度

工 業 別	附 加 價 值 率 (%)	1人當 原材料 使用 (\$)
鐵鋼業	29	3萬
電機工業	40	1萬 1,500
一般機械工業	41	1萬 2,000
自動車工業	33	2萬 1,400
造船業	34	1萬 5,400
航空機工業	54	8,070

航空產業의 技術波及 效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航空産業은 自主國防能力을 培養하는데 必要하며, 아울러 航空産業에서 助成된 技術의 高度化는 다른 産業分野에 技術上의 刺戟을 주며 高度의 民需産業의 發展에 귀중한 役割을 한다. 더욱 産業構造를 高度化함으로써 輸出의 商品構造를 改善하여, 貿易의 將來에 이바지하게 되고, 國民生活의 伸長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3. 政策決定上의 問題點

우리 나라는 1972年初 美國의 Pasm-any社의 PL-2 複座輕飛行機(訓練機) 1臺를 試製, 1974년까지 총 4대를 試製하였다(註 5)는 보도가 있다. 76년에 시작된 自主國防能力 計劃에서도 航空産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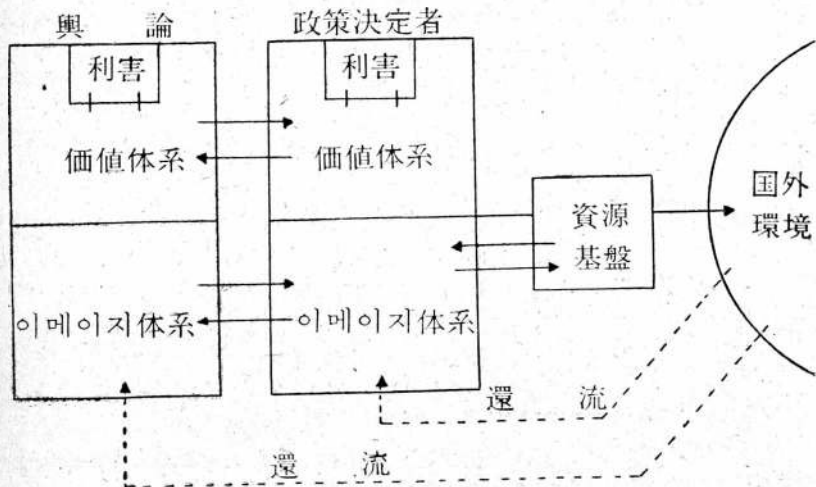
育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戰鬥用 航空機로서 어떤 機種을 選定하고 어느 水準의 研究開發費를 投入하여 라이선스 生産 또는 自主開發을 推進하느냐 라는 政策決定의 問題가 주목된다.

편의상 Scott의 政策決定 모델을 이용하여 이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輿論部分에서는 個人 또는 民間企業이 航空産業 育成에 대하여 가지는 利害觀念이다. 利害는 일반적으로 이른바 「기브 앤드 테이크」의 得失計算에서 나오며 매우 經驗의이고 現實的인 要素이다. 예컨대 航空産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稅金構造, 經濟的 誘因, 資源分配, 國民生活에 影響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고

Scott의 政策決定 모델(註 6)



용擴大, 外貨節約, 經濟的 利益 등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現實的인 要素이며 특히 政策決定者는 自國의 生存과 利益이라는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s)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價値體系는 「무엇이 옳으냐」의 判斷의 基準을 주며 여기에는 民族, 文化, 傳統, 이데올로기, 正義, 내셔널리즘(Nationalism) 등이 포함되어 그것이 利害關係와 相互作用을 한다.

現實的으로 오늘의 우리 國民意識에서 큰 구실을 하는 것이 이 價値體系이다. 예를 들면, 北傀의 野慾을 억제하기 위하여 약간의 國民生活의 壓迫이 있더라도 이것을 스스로 감수하고 防衛力을 強化하는 것이 國民의 義務라는 使命感이다. 우리는 防衛誠金 모집에서 보여준 너나 없는 誠意에서 이것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이 「너나 없는」 誠意는 현재 우리 國民들이 가지는 共同運命體의인 단결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8·18 祈門店 도끼事件 때 休暇中의 兵士들이 즉각 스스로 歸隊하였고 또 마을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 성의껏 음식을 제공하며 뜨겁게 환송한 일은 모름지기 오늘날 우리의 軍官民 一體의 굳건한 防衛意識이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하나의 실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航空産業 育成에 대한 正策決定에서 「이미지 體系」도 간과할 수 없는 要素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미지體系는 主觀的이고 士氣나 自負心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예컨대 國外環境에서 우리보다 조건이 나쁜 나라에서 이미 최신향공기를 제작했다는 것을 느낄 경우 그것이 還流(Feedback)되어 國民의 士氣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北傀가 만약 MIG-21을 生産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그것이 刺戟이 되어 그 反應이 이미지 體系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政策決定者의 입장에 있어서도 상술한 利害, 價値 및 이미지 體系가 작용하며, 특히 資源基盤을 고려하여 航空産業 育成에 대한 政策決定을 내리게 된다. 防衛力 增強을 위한 研究開發에서 航空産業에 어떤 優先順位를 주며, 여기에 어느 정도의 人的, 物的, 技術的 資源을 配分할 수 있느냐에 따라 航空産業에 대한 政策決定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防衛의 問題는 오늘의 問題임과 동시에 將來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集團防衛體制는 그것대로 必要하고 價値가 있으나 最後에 自己를 지키는 것이 自己이다. 最後를 지키는 것은 自己라는 自力國防의 精神으로 現在에만 重點을 둘 것이 아니라 5年後, 10年後, 30年後의 國防을 생각하여 航空

産業 育成에 대한 政策決定을 옳은 評價 下에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航空戰力은 한 軍을 초월한다. 이 겨레의 生存과 安全을 위한 방패이며 그 強化는 現代戰이 要求한다. 微視的 評價를 거부한다. 航空戰力의 自主國防 能力化는 外國의 新銳機 導入과 아울러 航空武器의 自體生産을 要求한다.

外國의 航空機 輸出은 크게 세 가지 패 턴으로 구분된다. 즉 自國의 航空産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支拂可能한 나라에 무 조진 販賣하는 産業的 輸出, 한 地域에서 自國의 權益을 유지하기 위하여 航空 機를 供與하는 權益的 輸出, 그리고 航 空武器를 輸出함으로써 自國이 戰爭에 말려들거나 局地戰爭이 發生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輸出을 거부하는 制限的 輸 出이다.

문제는 國際環境, 對外政策의 변동으 로 武器輸出을 制限할 경우, 戰時에 完 成品 輸入 依存國의 戰勢는 어떻게 될 것 인가 라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4. 資源基盤과 GNP

우리 나라는 日本, 이스라엘, 中華民國 과 마찬가지로 輸入原料에 依存하는 産 業構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를 제외한 위의 나라들은 현재 最新銳機 를 라이선스(License) 生産을 하면서 自

主開發에 의한 國產航空機를 제작하고 있다. 그것은 위의 나라들의 防衛政策者 들은 航空戰力의 現在에만 重點을 두지 않고 巨視적으로 未來의「國際環境의 變 化」마저 예상하고, 技術적으로나 財政의 으로 制限이 있더라도 결국 自國의 安全 이 위협될 경우, 自國에서 만든 航空武 器도 내 나라를 지킬 힘을 키우겠다는 政策決定에서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目標을 향하여 상 당한 進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서히 國 內調達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航空機를「完成品 輸入」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現在 뿐 아니라 未來의 航空戰 力強化를 위하여 거의 일변도적으로 外 國의 最新銳機 選定에 重點을 두고, 그 完成品 導入으로 現在와 未來의 自主國 防能力의 培養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우선 우리의 航空産業을 育成하는데 필요한 利用可能한 資源이 문제가 된다. 資源은 우리들의 欲望과 비교하여 언제나 限定되며 따라서 우리들의 行動이 이 에 따라 拘束된다. 따라서 資源的 制約 은 가끔 資源的 拘束이라고 불리운다. 航空産業의 規模와 內容을 選定하기 위 하여 資源面의 制約을 어떻게 表現하는 가 라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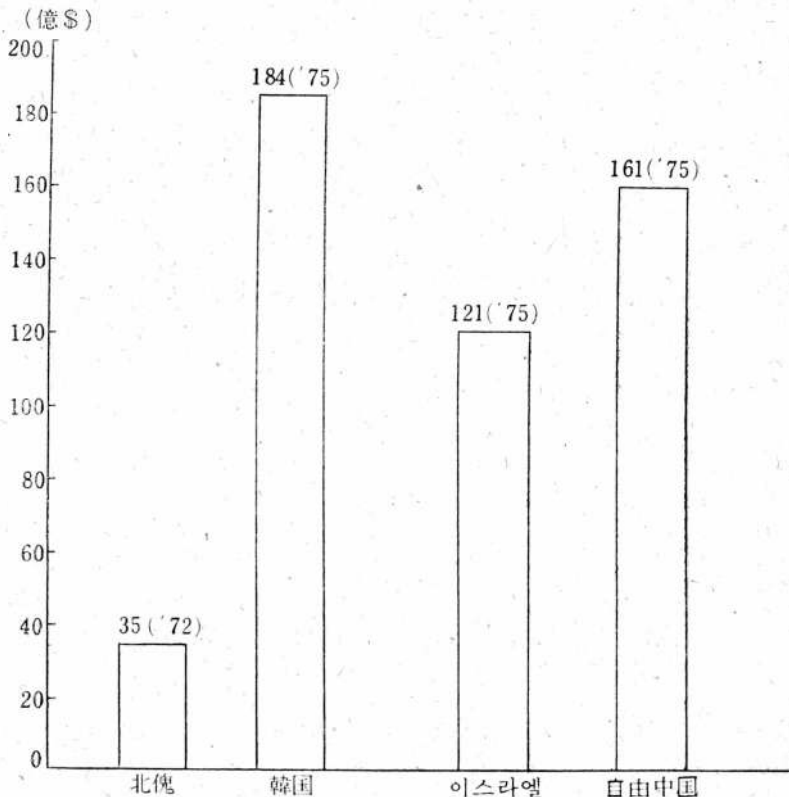
資源面의 制約은 예컨대 熟練技術, 金

屬, 設備... 등 個別的인 供給豫定量에 의하여 表現되는 「個別的 制約」과 이와는 달리 즉 使用可能한 個別資源의 量이 아니라 앞으로 支出可能한 貨幣의 量이라는 「一般的 制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의 國防經濟學은 주로 工業動員의 問題를 다루었기 때문에 個別的 資源의 制約을 強調하는 傾向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抑制과 報復反

擊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現有軍事力 (Force-in-being)을 計劃하는 것이 必要하며, 敵我的 戰力隔差를 메꾸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資源을 現有航空戰力으로 轉化시켜야 하는가 라는 問題가 重要하며, 이 問題를 研究하려면 주로 일반적인 貨幣的 制約面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떤 意味에서 個別的 制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個別的인 資

GNP 比較(75年 現在)(註 7)



源의 供給은 固定的인 것이 아니며 流動的의이다. 예컨대 技術者의 總供給量은 教育에 의하여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熟練工의 再教育에 의해서도 變化된다. 鑛物埋藏量도 集約的 採掘에 의하여 大量으로 얻을 수 있다. 이와같이 資源의 轉換이 可能함으로 航空産業 育成方案에 있어서는 個別制約을 기준하지 않고 一般制約인 貨幣單位로 다루는 政策을 選擇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GNP의 몇 %를 國防費로, 國防費의 몇 %를 航空産業에 配定한 것인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 이스라엘, 中華民國들도 個別資源이 不足하지만 輸入에 의하여 航空産業을 크게 育成하고 있다는 것이 그 反證이 된다. GNP를 비교하면 앞 표와 같다.

다만 個別制約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航空機 製作에 필요한 技術(Know-how)

의 習得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航空産業에 필요한 技術은 다음과 같다 (註 8).

- | | |
|-------------|-----------|
| 1. 航空技術 | 7. 油壓技術 |
| 2. System技術 | 8. 信賴性技術 |
| 3. 機械技術 | 9. 品質管理技術 |
| 4. 電子技術 | 10. 安全性技術 |
| 5. 電子材料技術 | 11. 無公害技術 |
| 6. 化學材料技術 | |

물론 이밖에 많은 技術이 필요할 것이다.

UNESCO 統計年鑑이 지적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人力資源(註 9)은 量的 面에 있어서는 國際比較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있으나, 오직 質的 面이 문제가 되며,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航空産業에 必要한 여러 技術分野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나 라는 의문이 생긴다.

科學技術人力 資源

國 家	年	科學者, 術師, 技術者				
		總 保 有 量				
		總計	科學者 및 技師		技術者	
		計	(女)F	計	(女)F	
Asia						
Brunei ¹⁴	1971	2,237	589	18	1,648	352
Cyprus ³²	1971	*6,650	*4,650	*1,163	*2,000	*290
India ³³	1973	*1,174,500

Iran	1972	160,372	127,793	24,668	32,579	11,064
Iraq ⁸⁴	1971	22,540	7,862	...	14,678	...
Israel ⁸⁵	1973	*76,000	*36,000	*7,700	*40,000	...
Japan ⁸⁶	1973
Jordan ⁸⁷	1971
Korea, Republic of ⁸⁸	1973	1,056,908	364,940	...	691,968	...
Kuwait ⁸⁹	1970	9,504	4,063	191	5,441	98
Laos	1970
Lebanon ⁴⁰	1969	...	5,134
Mongolia ⁴¹	1972	2,040	1,908	603	132	...
Singapore ⁴²	1971	...	*5,660
Sri Lanka ⁴³	1972	18,454	7,457	...	10,997	...
Thailand ⁴⁰	1969	...	5,583
Europe						
Austria	1969/70
Belgium ⁴⁴	1969
Bulgaria ⁴⁵	1972	598,293	183,307	68,397	414,986	225,463
Czechoslovakia ⁴⁶	1973	...	327,772	112,680
Denmark ⁴⁷	1970
Finland	1971	773,369	170,379	80,269	602,990	289,458
France ⁴⁸	1971	1,702,260	992,000	...	710,260	...
Germany, Federal Republic of ⁴⁹	1972
Gibraltar	1971	164	41	—	123	2

朴大統領閣下는 77年 年頭記者會見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에 치중토록 하겠다...重化學工業 중에서도 技術産業, 頭腦産業에 力點을 두고 技術開發에 힘쓰겠으며 이를 위한 技術者 養成에 주력하겠다. 정부는 技術人力養成을 위해 이에 따른 專門研究所를 많이 설립할 계획이나 이미 시행 중에 있는 研究所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航空産業도 技術集約的 頭腦産業으로서 그 高度化를 위하여 技術者 養成이 필요하며, 軍·官·民의 協力體制,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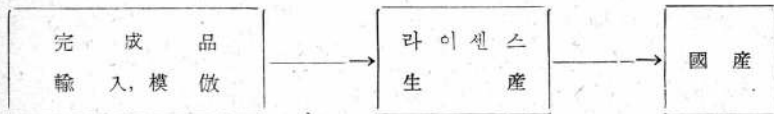
民間企業, 大學, 國立研究機關, 國防研究機關의 協력이 필요하다. 다만 그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研究開發의 割據性, 적절한 全體計劃의 缺如, 強力한 中共指導의 不在, 重複(Overlap), 競爭 등을 피한 一元的 協力體制가 필요하다고 본다.

5. 航空機 取得樣式

各國은 質的, 量的, 時間的인 防衛上의 要求를 充足하고 防衛의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方法으로 航空

機를 取得한다.

- (1) 外國에서 完成品을 輸入한다.
- (2) 라이선스生産(外國에서 라이선스를 얻어 國內에서 生産)
- (3) 모든 것을 國産



즉 일거에 國産化를 하지 않고 段階的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제 가지 方法은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完成品輸入의 長短點(우리들의 경우) 短點으로서는

- ① 國防能力의 自主性을 기할 수 없다.
- ② 우리의 體格, 우리의 地理的 特質, 用兵上의 條件에 적합한 장비를 얻기 어렵다.
- ③ 運用上 발전된 改善要求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 ④ 在庫狀況, 部品 入手 곤란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긴다.
- ⑤ 部품을 필요할 때 신속히 보급하기 어려우므로 高率의 豫備를 필요로 한다.
- ⑥ 整備技術의 習得이 곤란하며, 高度의 修理技術이 필요할 경우 라이선스契約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4) 이상 세 方法의 混合型

많은 航空産業國의 실례를 보면 國産化를 確實히 추진하는 節次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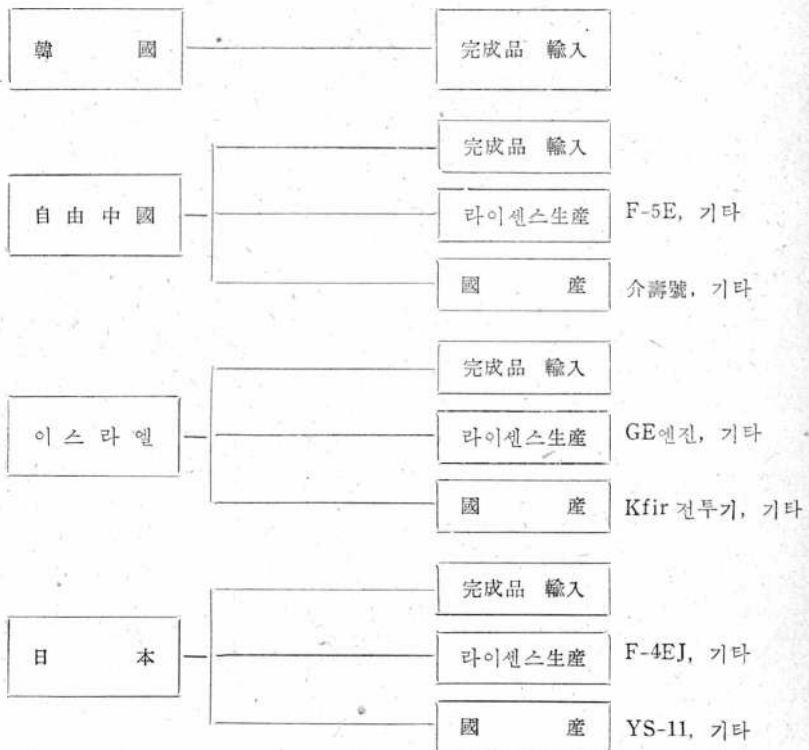
- ⑦ 따라서 航空機의 稼働率이 낮아질 節力이 있다.
- ⑧ 독특한 秘密을 가진 裝備를 生産할 수 없다.
- ⑨ 軍事技術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 ⑩ 關聯生産部門에 대한 波及效果가 없다.
- ⑪ 運用維持費가 높다.
- ⑫ 外貨를 流失한다.
- ⑬ 經濟成長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 ⑭ 關係製品의 코스트를 引下할 作用이 없다.

長點으로서는

- ① 最新銳機를 入手할 수 있다.
- ② 短期間에 所要量을 얻을 수 있다.
- ③ 整備를 신속히 하기 위한 專用整備器材는 通常 既製品이 있어 이것을 輸入하면 된다(새로 設計할 必要가 없고, 복잡한 시뮬레이션 機器가 불필요하다.).
- ④ 價格이 國産의 경우보다 싸다.

위의 長短點으로 보아 國產의 長點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關心對象國의 航空機 取得樣式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같은 他國은 複線型的으로 航空機를 取得하는 反面 우리는 單線型的으로 取得하고 있다.

우리보다 GNP가 낮고 個別資源 制約이 있는 自由中國, 이스라엘이 이처럼 航空産業을 育成하며,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그것이 收益性 있는 輸出産業으로 成長하고 있다는 事實을 예의 주목하고

後進의인 우리의 航空産業 育成政策을 再診斷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요컨대 우리의 航空裝備 取得源을 多元化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라이센스生産을 거쳐 國産化로 移行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눈부신 經濟發展의 원동력의 하나는 外國으로부터 技術을 導

入하여 그것을 우리의 탐과 努力으로 消化하고 定着시키고 더욱 發展시킨데 있다고 할 수 있다.

航空産業에 있어서도 外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 큰 貢獻을 한다. 따라서 우선 航空機, 미사일, 탐제무기, 기타 電子裝備을 위해서는 技術導入에 의한 라이선스生産方式을 대폭 도입하여 우리의 裝備 近代化에 이바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6. 研究開發의 問題

우리의 方衛産業을 위한 研究開發計劃에는 優先順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航空産業에 관련된 研究開發도 그 優先順位上 어디엔가 있다고 본다.

資源의 效率적인 使用面에서 이 優先順位主義(Priorities Approach)는 물론 매우 說得力이 있다. 즉 制限된 豫算범위 내에서 요망되는 品目を 必要도에 따라, 매우 중요한 品目は 위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래에 記載하게 된다.

그러나 이 優先順位主義의 活用에는 매우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 세컨데 優先度の 順位를 A, B, C...로 나열할 때 우선 全豫算을 第1順位인 A에 投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第1順位인 A에 대하여 『이 이상 필요없다』의 정도까지 돈을 투입하고, 다음에 第2順位에

『이제 만족하다』라고 할 때까지 豫算을 투입하는 식으로 下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優先順位表가 의미하는 것은 優先順位가 낮은 品目보다 높은 品目に 보다 많은 豫算을 投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優先順位가 높은 迫擊砲의 R&D보다 優先順位가 낮은 戰鬪機의 R&D는 보다 많은 費用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요는 여러 R&D 支出對象에 대한 적절한 資源分配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낙후된 우리나라 航空産業을 위한 R&D에는 그것이 戰力化에 이바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最少不可缺(Minimum essential)한 資源分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航空技術의 特性은 航空戰의 特性과, 지결되는 作戰要求(Operational requirements)로 다른 生産技術보다 훨씬 앞서는 「先行性」, 航空機 發達の 無限界性에서 오는 「短命性」, 獨創적인 航空技術과 機術 戰技의 保安을 위한 「機密性」, 이를 충족하기 위한 「研究開發費의 巨大性」 등이 포함된다.

1線 空中戰鬪員들은 敵對方보다 우월한 高度의 裝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自立國防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新銳機를 도입하면서, 이

와 併行하여 라이선스生産, 나아가서 國産을 함에 있어서는 위의 作戰要求에 대응할 技術可能性(Technical feasibility)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資源分配上的 必要主義(Requirements approach)의 입장이라기보다 적어도 戰力化에 이바지한 技術可能性의 提高에 차질이 없도록 航空産業의 R&D 費用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航空産業의 研究開發에는 多額の 經費와 高度의 技術力을 필요로 하는 한편 여기에는 不確定 要素가 매우 많으므로 作戰上的 性能要求와 所要時期를 만족시키고 最少의 費用으로 達成하게끔 SA, OR 또는 費用效果分析 등의 技法을 보다 광범히, 보다 정확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研究開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基礎研究(Basic research)이다. 航空産業의 研究開發을 위한 基礎知識을 追求함에 있어서 關係研究分野(예컨대 氣體力學, 冶金學, 原子物理學等)의 大量의 基礎研究의 支援을 받을 수 있는 體制가 확립되어 있는가 라는 점이다.

둘째, 實驗的 開發 또는 應用研究(Exploratory development or applied research)면의 誘因이 不足하지 않느냐 라는 점이다. 이것은 實用器材를 직접 얻는 것이라기보다 技術的 資産을 늘리

자는데 있다. 누구인가 『새로운 主翼의 氷結防止法, 새로운 航空燃料』의 着想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이와같은 着想이 장려되고 적절히 보수를 받도록 制度化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妥當性을 인정하고 技術的 資産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試驗(또는 檢證)을 해야 하며, 그것은 風洞試驗으로 될 경우도 있고 또 機能模型(Working model)을 제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와같은 試驗에도 投資가 없는 費用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器材開發(Component development), 즉 航空戰力用 器材의 個別的 開發에 있어서 民間企業體의 參與가 적고, 주로 空軍의 修理廠이 맡고 있지 않느냐 라는 점이다. 예컨대 航空엔진, 空對空 또는 空對地 미사일을 위한 誘導裝置, 誘導裝置를 위한 자이로·스코우프 등의 開發을 주로 軍의 修理廠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이다. 國防은 우리 國民 모두가 맡는다는 認識下에 民間企業은 愛國心을 가지고 적극 여기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네째, 앞으로 武器體系開發(Development of weapon system)에 적절한 費用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研究開發費 중에서 이 武器體制의 開發이 그 金額의 大部分을 차지하게 되므로 主裝備과 補助裝備(예컨대 航法裝置, 電子裝

備, 爆彈...) 開發을 위한 最小要求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航空産業의 研究開發이 뒤떨어진 原因은 일반론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점에 있지 않느냐 라고 평가된다.

첫째, 着手前의 研究不足에서 오는 計劃의 未備,

둘째, 유일한 最善의 方式選擇 때문에 代案을 併行하여 研究하기 어렵다는 制約,

셋째, 試驗實施의 非能力과

네째, 開發中の 改修 또는 改良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없다는 점,

다섯째, 가장 결정적인 豫算不足에 있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註 1. Thomas K. Finletter, Power and Policy, Harcourt, Brace and Company, New York, 1954, p. 256.

註 2. C. J. Hitch, America's Economic Strength,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41, p. 60.

註 3. 駒井健一郎, 研究開發費を十分に, 國防, 1969年 8月號, p. 103.

註 4. 航空ジャーナル, 1974年 9月號,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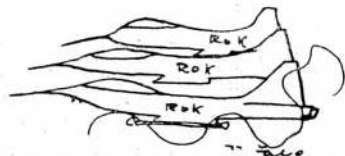
註 5.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1975~76, p.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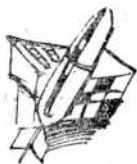
註 6. Andrew M. Scott, The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System, Macmillan, 1967, p. 9.

註 7. Military Balance 1976~77에 서 作成

註 8. 航空ジャーナル, 前掲書

註 9.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74, p. 560.





電 子 戰 運 營

概 論

明
正
秀

1. 序 論

電子戰이 本格的으로 試圖, 使用되기 始作한 것은 第二次大戰中 레이다가 出現한 後부터이다. 물론 레이다의 出現以前에 이미 通信手段으로서의 電磁波의 利用은 큰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이것은 常識化되고 期待할 수 있는 程度의 效果를 낼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레이다의 出現은 그 당시로서는 常識的인 範圍의 期待를 벗어난 커다란 進歩였고 收獲이었다.

레이다의 出現으로 航空機의 役割은 큰 制約을 받게 되었고 특히 最近에 와서는 레이다와 미사일이 組合된 誘導 미사일이 對空防禦面에서 매우 큰 役割을 하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 電子戰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레이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敵과 對峙狀態에 있는 境遇는 레이다는 最前方의 戰術武器에 속한다. 이에 比하면 其他 電磁波를 利用하는 軍事的 手段(주로 通信系統)들은 一種의 戰略武器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直接的인 兵器들과 差異가 있다면 이러한 武器(레이다, 通信機, ……)들은 相對方에 依해서 그 機能이 減少, 또는 麻痺될 수 있다는 것이다. 卽 레이다의 境遇 敵地에서 適當한 妨害電波를 發射하여 友軍地域의 機能을 麻痺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電子戰이란 電

磁波를 利用한 良質의 裝備를 發展시켜서 즉 좋은 武器를 만들어서 內實을 期하는 同時에 並行하여 敵의 電磁波利用을 妨害하는 手段(ECM)도 發展시켜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技術的인 面에서나 經濟的인 面에서 電子妨害(ECM)가 훨씬 容易하고 效果의 이다. 그러므로 電子戰의 경우 電子妨害의 役割은 계속 커질 것이다. 參考로 美國이 1974會計年度에 電子妨害를 위하여 投入한 돈을 보면 約 13억2천만달러나 되며 1978년도에는 과거의 추세로 보아 약 21억7천만달러로 推定하고 있다(註 1).

2. 電子戰의 定義 및 區分

電子戰(Electronic Warfare)은 美空軍規程에 다음과 같이 定義되어 있다. 電子戰(EW: Electronic Warfare)이란 敵의 電磁波의 使用을 制限, 縮小, 拒否 또는 逆利用하기 위하여 軍事的 目的으로 電磁波를 使用하는 행위와 友軍의 電磁波의 使用을 保障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註 2).

또한 電子妨害(ECM)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ECM이란 敵이 사용하는 電磁波의 效果를 減少, 또는 사용을 妨害하는 행위를 말한다." (註 2) 卽 ECM이란 電子戰의 일부분이면서 또한 內容의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개의 경우 電子戰, 電波妨害 또는 電子妨害란 말은 ECM으로 通用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해도 의미상의 잘못은 없다. 앞으로 여기서는 ECM이라는 말과 EW(電子戰)이라는 말은 混用하기로 한다.

ECM은 그 隨行하는 目的에 따라서

- 混亂(Confusion)
- 欺瞞(Deception)

으로 區分되며, 混亂을 目的으로 하는 ECM은 ECM을 當하는 순간부터 즉각적인 ECCM행위가 시작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混亂을 目的으로 하는 ECM은 完全히 除去시키기가 어렵다. 한편 欺瞞을 目的으로 하는 ECM은 ECM을 당하고 있다는 事實을 모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ECCM행위가 隨行되지 않지만 일단 ECM을 認識하면 비교적 쉽게 ECCM을 하여 除去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技術的인 面은 앞으로 다루어 나가기로 한다.

ECM은 또한 目的達成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의 構成方法에 따라

- 能動的 電子妨害(Active ECM)
- 受動的 電子妨害(Passive ECM)

로 區分된다. 能動的 電子妨害란 ECM을 행하는 자가 電磁波를 직접 發生 또는 敵의 電磁波를 받아서 더 큰 出力으로 增幅시켜서 輻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로는 재머(Jammer)를 들 수 있다. 반면에 受動的 電子妨害란 目標物에서 發射되는 電磁波를 利用하는 消極的인 方法을 말한다. 受動的인 ECM은 초기에 가장 널리 使用된 方法으로써

代表的인 方法으로 채프(Chaff), 디코이(Decoy), 電磁波吸收, 物質의 使用, 그리고 레이더 단면적의 縮小 등을 들 수 있다.

過去에는 半導體 技術이 發達되지 못했으므로 電磁波를 스스로 發生하여 增幅할 수 있으려면 매우 큰 裝備과 많은 電力이 必要했기 때문에 能動的 電子妨害는 널리 實用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最近에는 堅固하고 信賴性 있는 良質의 半導體 素子들로서 작은 規模의 能率이 높은 能動的 電子妨害 裝備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값도 充分히 싸고 效率面에서도 過去에는 想像도 못할 정도로 改善되었다. 反面에 受動的 電子妨害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채프는 더 이상의 커다란 進展을 못 보다가 다시 1, 2次 中東戰을 통해서 여전히 有用하게 使用될 수 있다는 것이 立證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通例의 大型 레이더 또는 미사일을 포함한 火力制御用 레이더가 펄스형 레이더였기 때문에 速度가 빠른 航空機에 對해서는 채프가 거의 無用之物로 되었다. 즉 펄스 레이더의 移動標의 表示器(MTI)는 채프를 거의 完全히 除去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中東戰에서는 도플러 레이더가 實戰에 登揚하게 되었다. 도플러 레이더는 移動標의 과 레이더간의 相對速度에 依해 周波數가 變化하게 되므로 지금까지의 能動的 電子妨害에 依한 影響을 거

의 除去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다시 채프가 도플러 레이더에 대한 電子妨害의 手段으로서 再登揚하게 된 것이다. (스틱스: Styx 미사일, SA-6 등은 도플러 레이더를 使用하고 있다(註 3).

3. 能動的 電子妨害 (Active ECM)

能動的 電子妨害를 하기 爲한 基本 裝備은 제머(Jammer)다. 제머는 그 動作原理에 의한 몇 가지로 區分해 줄 수 있다. 트랜스폰더(Transponder)도 電子妨害의 目的으로 제머로 使用될 수 있다.

1) 固定周波 제머(Spot Jammer)

固定周波 제머란 電磁波 에너지를 特定의 좁은 周波數 代役(레이더나 기타 目標裝備의 帶域幅 정도)에 局限시켜서 目標에 對해 電磁波를 發射하는 것을 말한다. 固定周波제머에는 순수한 正弦波만을 큰 出力으로 내 보내서 目標裝備가 飽和狀態가 되어 作動을 못 하도록 하는 正弦波 제머와 노이즈를 變造시켜서 노이즈 出力을 發射하여 目標을 識別할 수 없도록 하는 노이즈 제머가 있다. 一般的인 半導體發振器의 경우 노이즈가 매우 많기 때문에 實際로 노이즈를 變造시키지 않아도 좋은 노이즈 제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머의 構成과 그 結果를 그림 1, 2, 3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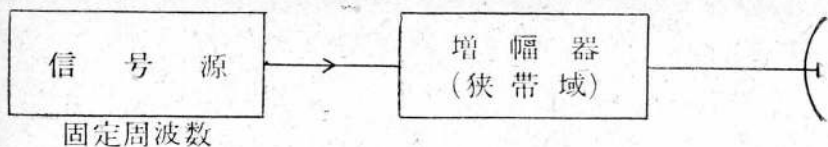


그림 1. 固定周波 재머의 構成(正弦波 재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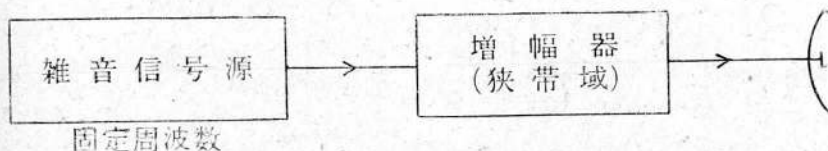


그림 2. 固定周波 재머의 構成(노이즈 재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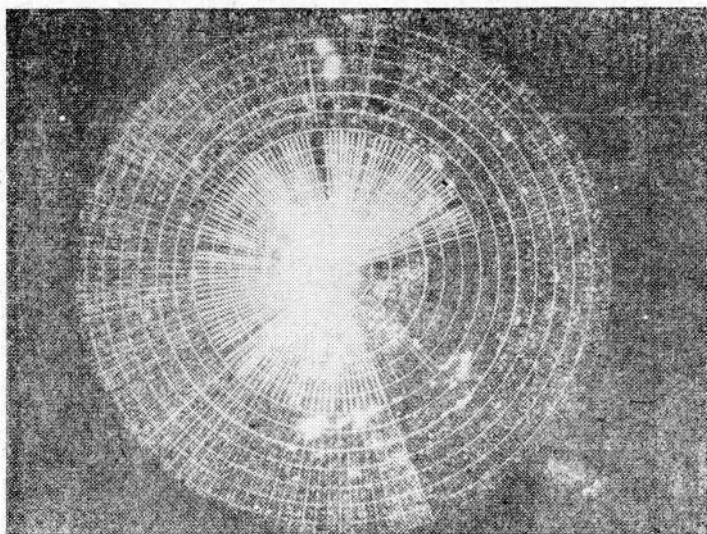


그림 3. 고정주파 재밍을 받은 레이더 스코우프사진

2) 掃引 재머(Sweepthrough Jammer)

掃引 재머란 掃引周波數源(Sweep Signal Source)을 使用하여 여러 周波數에 對해 교대로 ECM을 하는 것을 말한

다. 過去에는 마그네트론이나 다른 종류의 空洞發振器를 使用했기 때문에 빠른 時間으로 周波數를 掃引하는 것이 不可能했다. 그러나 現在는 半導體 發振器들이 實用化되고 그 中에서도 電壓동조형 발진기(VCO: Voltage Controlled 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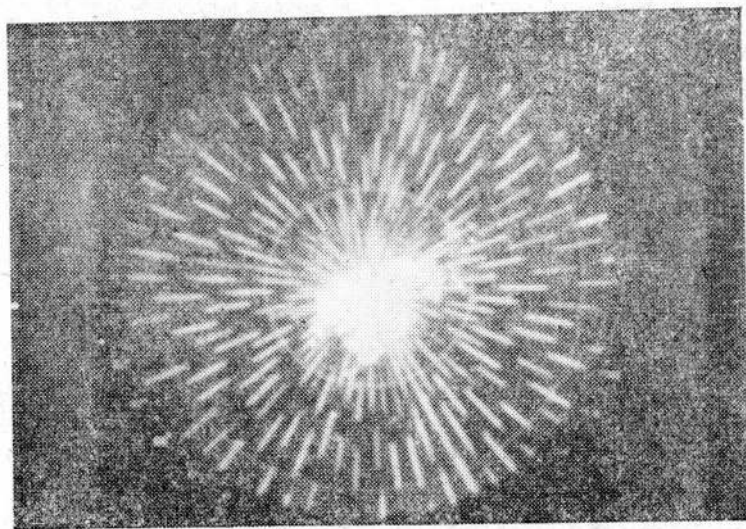
그림 4. 掃引 재머의 構成

cillator 또는 Voltage Tuned Oscillator)가 손쉽게 됨으로써 매우 짧은 時間 안에 掃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機械的인 掃引에서 電子的인 掃引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그림 4와 같이 構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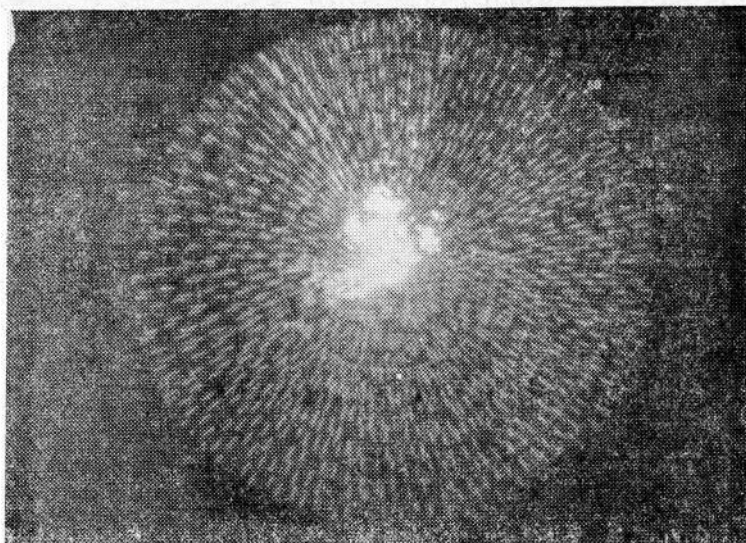
掃引 재머는 固定周波數에 비해 넓은 周波數를 재밍하여야 하므로 더욱 큰 出力을 必要로 하게 된다. 그러나 넓은 周波數를 교대로 빠른 時間에 재밍하기 때

문에 인접한 周波數가 다른 몇 개의 레이다를 同時에 재밍할 수 있다. 또한 재밍을 받는 레이다가 周波數를 바꾸어도 持續的인 재밍을 할 수 있다.

掃引 재머는 여러 周波數를 교대로 재밍함으로써 레이다 스크루프에는 不連續的이고 規則的인 點으로 나타난다(그림 5 참조). 이것은 掃引率과 레이다의 안테나 回轉速度에 의해서 規則的인 點의 배열



< 掃引率(Sweep Rate)이 낮을 때 >



< 掃引率(Sweep Rate)이 높을 때 >

그림 5. 掃引 재밍을 받은 레이더스코우프사

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3) 彈幕재머(Barrage Jammer)

이것은 固定周波 재머를 인접한 周波數를 모두 包含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겹쳐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큰 出力이 必要하고 소인 재머에 比해서 훨씬

強力한 재밍을 할 수가 있고 재밍 効果도 固定周波 재밍 때와 같이 나타난다. 固定周波 재밍의 경우는 레이더가 재빨리 周波數를 바꿈으로써 재밍을 除去시킬 수 있으나 탄막재밍의 경우는 스코우프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固定周波재밍 때와 같이 나타나도 周波數를 바꾸어 주어도 재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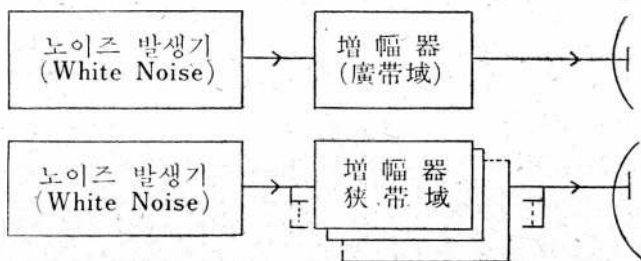


그림 6. 彈幕재머의 構成 (1) 廣帶域 増幅器를 이용한 彈幕 재머 (2) 이웃한 周波數의 狹帶域 増幅器를 여러 개 이용한 彈幕 재머

을 除去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構成은 그림 6과 같다.

4) 리피터 재머(Repeater Jammer)

리피터 재머는 目標 레이다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적당히 지연시키고 增幅시켜서 다시 송신하는 裝置다. 이것은 特殊目的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一般의인 리피터 재머와

특히 航空機나 船舶의 거리를 偽裝하기爲한 거리(欺瞞) 리피터(Range-Gate-Stealer), 방위기만리피터(Azimuth-Gate-Stealer), 조준기피 리피터(Break-Lock Repeater)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리피터는 理論的인 面에서는 모두 같다. 즉 모두가 지연회로(Delay Line)를 적절히 利用하고 또한 적절한 變造를 하여 增幅하는 것이다. 그림 7에 一般적인 리피터의 構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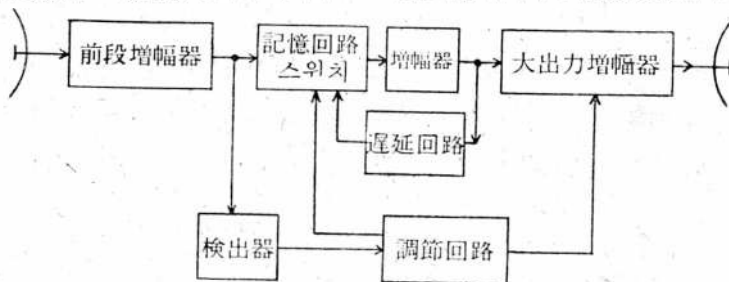


그림 7. 리피터의 構成

5) 트랜스폰더(Transponder)

트랜스폰더는 一般의인 리피터 回路와 原理는 같다. 그러나 트랜스폰더는 자체 내에 信號處理 回路가 있어서 受信된 信號(대개의 경우 펄스이다)를 再處理하여 다시 送信한다. 즉 주어진 연쇄펄스

(Pulse Train)를 적절히 조합 제배열하여 줌으로써 特定된 表示를 나타내게 해준다. 이것은 적의 연쇄펄스를 받아서 事전에 수집된 정보나 또는 敵 航空機 또는 敵 船舶에서 發射되는 것을 分析하여 적기(또는 우군기)인 것처럼 偽裝시켜 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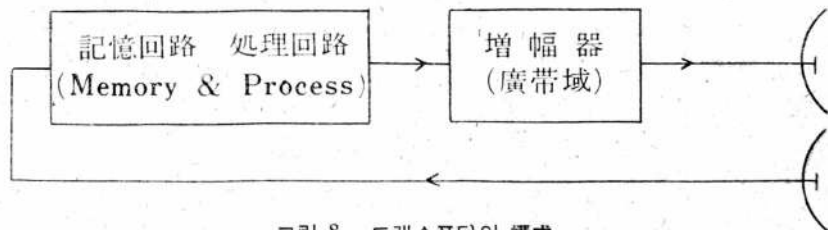


그림 8. 트랜스폰더의 構成

4. 受動的 電子妨害 (Passive ECM)

受動的 電子妨害 手段의 가장 좋은 方法은 채프의 使用이다. 또한 채프와 기타 手段을 複合的으로 使用하는 것이다. 最近에는 디코이(Decoy)에 지상관제 能力을 부여하여 원격조종비행체(RPV: Remotely Piloted Vehicle)로서 개발되었다. 원격조종비행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디코이에 채프를 장착하거나, 또는 채프를 로켓으로 레이더 주변에 發射하는 方法 등은 매우 有利한 方法이다.

1) 채프(Chaff)

채프는 반파장(또는 4분의 1 파장) 다 이폴 반사기로서 알루미늄박이나 또는 알루미늄을 입힌 얇은 유리질이다. 現代 美空軍에서 使用하고 있는 채프裝備 AN/ALE-38의 경우를 보면 이 裝備는 100 MHz~10GHz까지를 ECM할 수 있는 채프로써 두께 0.002인치의 마일라테이프에 알루미늄박이나 또는 알루미늄을 입힌 얇은 유리질을, 없어서 말아 놓은 狀態로 있다가 使用할 때 빠른 速度로 풀어 주어서 흩어져 나가게 한다. 여기서 使用하는 채프는 폭이 0.1인치이고 길이가 12.5인치이다(註 4).

채프는 그 용도에 따라서

· 偽裝채프(Spot Chaff)

· 연막채프(Corridor Chaff)

로 區分되며 偽裝채프는 欺瞞용으로서 한뫼치씩 각각으로 띄엄띄엄 떨어뜨려서 航空機로 착각시킨다. 또한 연막채프는 混亂용으로서 연속적으로 부러져서 航空機를 차폐시킨다.

앞에서도 言及되었지만 一般的으로 채프는 저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第二次 世界大戰 때와 같이 航空機가 저속일 때는 매우 유리했었으나 現在는 空航機의 速度가 빠르기 때문에 채프와의 相對速度가 커서 레이더의 移動目標 表示器(MTI)로 쉽게 채프를 除去시킬 수 있다. 그러나 채프는 미사일이나 對空火力 제어 레이더의 조건을 기피(Break Lock)할 수 있다. 이것은 도플러레이더의 경우는 매우 有利하다. 그러므로 經濟的인 면에서 볼 때 채프는 能動的 電子妨害에 못지 않게 重要하다.

2) 디코이(Decoy)

디코이는 모형 航空機 또는 미사일로써 작은 모양으로 레이더 斷面的(RCS: Radar Cross Section)을 크게 한다. 一般的으로 디코이의 側面을 레이더에 노출시키고 공격기가 正面으로 레이더를 向하면 작은 디코이로서도 공격기보다 큰 레이더 단면적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레이더 단면적을 크게 해 주기 위해 디코이에 반사기(Corner Reflector, Luneberg Reflector)나 또는 리피

터를 달기도 한다. 最近에는 能動的 電子妨害와 受動的 電子妨害를 複合的으로 하고 성능도 단순한 모형항공기의 범위를 벗어나 원격조정비행체(RPV)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現在 美 空軍에서는 조종사 한 사람이 地上관제소나 공중관제소에서 한 번에 5~6대 이상의 無人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조정비행체(RPV)를 1977년말까지 개발완료예정으로 있다(註 5, 6). 원격조정비행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알아보기로 한다.

3) 回轉反射器(Rotating Corner Reflector)

錘型反射器(Corner Reflector)는 그림 9와 같은 모양으로 3개의 평면을 수직으로 교차하도록 만들어서 上部에 4개, 下部에 4개, 도합 8개의 구석(Corner : Reflection Corner)을 형성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反射器는 보는 각도에 관계없이 매우 반사파가 커서 작은 모양을 가지고서도 큰 目標物인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엔젤(Angel)이라고도 불리운다. 실제로는 3피트 정도 크기가 보통이며 이 정도로 B-52폭격기 정도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이것을 구성진 곳이 레이다를 향하도록 할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기도록 회전을 시키면 단면적의 變化가 생기게 되어 화력제어 레이다에 대한 경우는 목은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디코이의 코 부분에 장치하여 회

전을 시키면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지상에서는 반사방향과 거리를 적절히 이용해서 배치하면 항공기의 레이다가 목표물의 位置를 誤認하도록 할 수도 있다(註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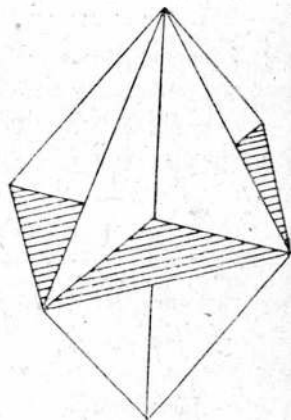


그림 9. 錘型反射器(Corner Reflector)

4) 레이다단면적축소(Radar Cross Section Reduction)

錘型反射器를 만들면 레이다 단면적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형태의 비행체를 만드는 데에도 그 모양에 따라서 크게 레이다 단면적을 바꾸어 줄 수 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정면에서의 레이다 단면적이 작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항공기는 정면에서 보면 커다란 원의 형태에 가깝다. 물론 항공역학적인 면이 우선하겠지만 전투기의 경우는 더욱 레이다 단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레이다 단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은 일정한 형태

에서 표면에 전자파 흡수물질을 입혀서 전자파의 反射를 줄여 줄 수도 없다.

參 考 文 獻

- 註 1. "What's the Future for Electronic Warfare?" Microwaves June, 1975, PP. 34~40.
- 註 2. Electronic Counter Measures Handbook, 1976, P. 74.
- 註 3. "Electronic Counter Measures Technology" Microwave Systems News, Nov., 1976, PP. 63~65.
- 註 4. "How Chaff Protects Aircraft" Microwave Systems New, Nov., 1976, PP. 69~72.
- 註 5. "The Search for Smarter and Scrapper Drones", Microwaves, Oct., 1973, PP. 42~52.
- 註 6. "Military Needs Propel Mini-RPVs into Tactical Flight Tests", Microwaves, Sept., 1975, PP. 34~41.
- 註 7. "Angel" Student Text KE-E-0024 Keesler Technical Training Center, 1965.

<북한 실화>

눈을 감고 방아쇠를

일본 NHK의 TV방송이 얼마 전 북괴 노농적위대 여성군사훈련 장면을 방영한 일이 있다.

화면을 보던 일본인들이 고소를 금치 못하였다고 일본 신문들이 기사화 한 일이 있다. 이 기사는,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겨서야 표적에 적중하겠느냐?』는 시청자들의 야유를 인용하였었다.

사실상, 지금 북괴군이 한국군을 두려워하는 이유의 하나가 실전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전쟁에서는 남자들도 전투경험이 없으면 겁을 집어 먹고 머리를 쳐들지 못한다. 하물며, 여성들이야 말하면 무엇하겠는가?

次期 戰鬪機 F-18의 全貌



尹 快 煥 譯

General Dynamic 회사와 Northrop 회사간의 1975년에 있었던 F-16 및 F-17의 치열한 전투기 개발경쟁에서 General Dynamic 회사의 F-16 전투기가 미 공군에 의해서 선정됨으로써 Northrop 회사의 설계사와 기술자들에게는 확실히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양 회사의 전투기들은 시험비행을 완전무결하게 수행하였으며, 선정된 제반 목표를 충분히 충족시켰고 또 능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그러나 F-16은 하나의 주요한 장점이 있었는데 이는 미 공군의 최신에 전투기인 F-15가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엔진인 Pratt & Whitney F-100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 외 몇 가지 미 공군이 F-16을 선택한 이유로서는 기존 정비시설과 후방지원이 간단하며 스피아(Spa-

re)를 보관하는 재고품이 있다는 점들이다. 그러나 이 경쟁은 항공역학적으로 크게 발전된 F-17의 Career를 끝낸 것은 아니었다.

1974년 봄 미 국방성은 미 해군에서 요청한 VFAX 다목적 경전투기의 개발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항공회사와 교섭한 결과 6개회사에서 이 제의를 수락하였다. 동 VFAX 계획은 1974년 가을에 미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F-16이나 F-17과 같은 항공기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F-16, F-17과 똑같은 2대의 항공기를 놓고 McDonnell Douglas에서 연구한 결과 F-17이 미 해군의 요구를 거의 충족시킬 수 있으며, 해군의 특성에 맞도록 개조함에 있어서도 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마침내 McDonnell Douglas회사는 차기 미 해군의 공중전투기로 약간 개조 설계한

YF-17기를 제외하도록 Northrop회사와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동 항공기를 F-18로 칭하게 되었다.

최초의 계약(1975년 중월에 발표되었음)은 McDonnell Douglas회사와 Northrop회사로 돌아갔으며 엔진생산 회사로서는 General Electric회사가 선정되었다. 기타는 해당 관계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비행시험은 1978년 7월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F-18전투기는 함대작전에서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단좌, Twin-Engine항공기이다. 현재 F-4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후위기로서, A-7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전투기로서 약간 다른 2가지 형의 신형 경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A-7보다는 더 크고 또 더 무거우나 F-4보다는 작고 더 가벼운 F-18전투기는 앞으로 기대되는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들 두 항공기보다 우세하다. 동 항공기는 주 계약회사인 McDonnell Douglas회사와 Northrop회사에서 개발 중에 있다.

F-18의 항공역학은 YF-17기의 항공역학과 아주 흡사하나 후퇴익(後退翼)면과 Dogteeth 장치가 추가된 전연율 12% 증가시켰다. 이와같이 증가시키므로 해서 함대접근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F-18의 2개의 '수직 Tail

(尾翼)은 그 크기가 양각에서 확고한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을만큼 크다. 수평 Tail은 아음속(亞音速) 및 초음속(超音速)에서 함대작전 및 비행에 필요한 기동에 알맞도록 설계되었다.

동체의 뒤에 있는 General Electric 회사에서 만든 2개의 Low by-pass Engine은 Inlet이 고정되어 있으며 Engine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여 준다. Engine은 그 중량이 가벼우며 추력대 중량비는 약 8:1 정도이다.

엔진(Engine)

General Electric회사의 F-404-GE-400엔진은 Low by-pass Engine을 확대한 추력 16,000파운드급의 고성능 엔진으로서 YF-17에 사용한 General Electric회사의 YJ-101엔진을 직접 개조한 것이다. 동 엔진은 35° 일각(逸角)을 겸한 63° 및 43°의 양각을 포함한 극도의 역경과 고도에서 YF-17의 비행 시험 중 철저히 시험하였다.

YJ-101엔진과 F-404엔진의 차이는 by-pass Ratio를 2에서 34까지, Turbine Inlet 온도를 50°, 아프터버너(A/B)의 직경을 약 1인치 각각 증가시킨 점이다. 동 엔진이 J-79에 비하여 부품을 크게 감소시킨 이유는 현재의 고도의 기술(State-of-the Art)을 크게 인용하지 않고 주로 가격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으로서, 따라서 위험이 그만큼 적고 또 가격도 보다 싸다. 뿐만 아니라 엔진의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에 완전히 개발되었거나 비행기에 사용중인 엔진에 비하여 안전성이 보다 높다. F-404 엔진은 J-79엔진에 비하여 고장률이 3배나 적으리라 예상한다.

F-404엔진은 각각 통합된 AMAD (Airframe Mounted Auxiliary Drive) 체제가 되어 있으며 이 AMAD는 연료 펌프(Fuel Pump)와 수압펌프(Hydraulic Pump) 및 발전기(Generator)를 작동시킨다. 또 동 AMAD는 에어터빈스타터(Air Turbine Starter)가 장치되어 있다. 엔진에 보다도 오히려 AMAD에 이 장치를 함으로써 엔진과의 연결회수가 감소되며, 따라서 엔진이 보다 빨리 작동할 수 있다. 동체의 APU에서 에어터빈스타터에 압축된 공기를 넣어 주면 엔진이 작동된다.

공기는 지면쪽에서나 또는 엔진의 반대쪽에 있는 8자형 도관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 엔진이 작동되면 파워어샤아프트가 AMAD를 움직이고 따라서 펌프와 발전기가 작동된다. APU는 엔진을 작동시키지 않고 또는 어떠한 다른 힘을 이용하지 않고 전력과 수압력, 연료압축 및 냉각 등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체계를 지상에서 체크하는데도 사용한다.

GE F-404엔진은 1단계 고·저압축 터빈에 의하여 회전하는 고성능 트윈 스폴프프리셔(Twin Spool Compressor)를 사용하며, 그 압축률은 25:1이다. 설계 및 비용에 신중을 기하여 엔진의 압축률과 터빈 인렛(Turbine Inlet) 온도를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콤프리셔의 수와 터빈스테이지(Turbine Stage)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보다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중량을 줄이고 엔진의 성능을 보다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F-404엔진은 길이가 158.8인치(403cm)이며, 직경은 34.8인치(88cm)이지만 추력대 중량의 비율은 약 8:1이다.

터빈 배기가스온도가 높아질 때에는, 아프터버너(A/B)를 냉각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F-404엔진은 저압축 콤프리셔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공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냉각이 된다. 엔진 내부에 계속 냉각된 공기가 유지됨으로써, 기관실은 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항공기는 보다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들며 낮은 온도를 지탱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조립이 가능하다. 이것은 항공기 체계를 간결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 특징이다.

J-85엔진의 설계와 비슷하게 아프터버너(A/B)는 에놀러파이로트프레임홀

더(Annular Pilot Flame Holder)와 1단계식 주연료분배체계가 있으며 이는 추력변조물 순조롭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증강기(Augmentor)는 엔진바이패스에어(Engine bypass Air)의 일부분으로 생각된다. 배기 노즐은 변형플랩으로 이젝터플로우쿨링(Ejector Flow Cooling)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폐(開閉)형이다.

각각 추력이 16,000LBS급인 2개의 F-404터보팬엔진은 추력대 중량비는 약 1:1이고, 최대속도는,음속 1.8배 이상이며 자체 내부연료만을 사용하면 400 N/M 이상 비행할 수 있다. F-18은 외부연료까지 사용하면 2,000N/M 이상까지 항적거리(Ferry Range)를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A/B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되는 힘에 의하여,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

유 용 성

합대이착륙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F-18함재기는 높은 안전성과 우수한 정비성을 겸비할 것이며 동시에 이와같은 특징은 F-18이 필요에 따라 원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항공기의 안전성은 2가지 방법 즉 평균고장간격(Mean Time Between Failures)과 평균고장비행간격(Mean Flight Time Between Failures)으로

측정한다. McDonnell Douglas회사는 확실히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F-18함재기는 F-4 및 A-7을 포함하여 현재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항공기보다 우수한 것이라고 보증하였다. F-18계획의 초창기부터 안전성 문제는 전반적인 설계 및 개발과정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F-18에 장착된 모든 장비 하나하나는 정식적인 비행시험과 또는 생산에 들어가기 전의 개발시험기간중에 엄격히 시험, 분석 및 결정이 되었다.

General Electric F404-GE-400 엔진

형태 : Low bypass Turbofan

추력 : 7,250kp(16,000LBS)

길이 : 4.03m(158.8in)

최대직경 : 88cm(34.8in)

Compressor Stages :

Low Pressure Compressor 3

High Pressure Compressor 7

Compressor Pressure

비율 : 25 : 1

Combustor : Annular

Turbine Stages :

High Pressure Turbine 1

Low Pressure Turbine 1

조종 :

전기-액체역학(Electrical-Hydraulic)

노즐(Nozzle) :

수압식 작동개폐(開閉)형(Hydraulic Actuation Converging - Diverging Type)

F-18의 안전성은 엄격한 정비기술을 토대로 하였다. F-18함재기는 정상정비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비 및 보수지점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 여러 곳에 분산시켜져 있으며, 엔진은 21분 이내에 제거하여 다른 것과 대처할 수 있다. 추적식 레이더는 조작에 용이하도록 튀겨 나오며, 전자장비는 몸통에 장치된 문을 신속히 열면 나오게 되어 있고, 보조전원장치는 외부의 어떤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점검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 또 Windshield는 계기판 뒤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작동하며 캐노피는 완전히 조종실을 열 수 있도록 Over-Rotate되고 탄약통은 앞으로 밀어 아래로 내리면 쉽게 제거된다.

무장 및 생활성

공대공 전투무장을 할 경우에는 F-18은 양쪽 Wing tip에 각각 Sidewinder 미사일 1발씩과 동체 아래 부분에 Sparrow미사일 2발, 그리고 기수 부분에 20mm M-61 Gun(6연신) 1문으로 무장을 한다. 3개의 외부연료탱크는 동체 중심부분과 Inboard Station에 적재한다. 공격입무를 수행할 때에는 중앙과 Inbo-

ard 및 Outboard Station에 공대지 무기로 무장을 한다.

원전무장을 하고도 F-18함재기는 F-4J의 Escort Range보다 더 긴 전투기의 Escort Range를 가진다. 또한 F-18은 Mach 0.8에서 Mach 1.6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아주 급선회를 할 수 있으며, 아주 쉽게 적기를 발견할 수 있다. F-18의 미익탐지거리(Tail-on Detection Range)는 F-4J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

경 공격기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F-18은 기존 다른 경 공격기의 정확도만큼이나 또는 더 좋은 정확도를 낸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나 유도무기를 효과적으로 투하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다른 경 공격기 체제와 비교하면 F-18은 우수할 것이고, F-18의 민첩성과 그 추력은 목표물 상공에서 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무장선회능력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무장추력대 중량비도 또한 크게 개선시켰다.

F-18의 공격형은 기수에 Gun과 Side-Winder 2발로 무장을 하고 공대지 무기를 신속히 제거할 수가 있으므로 그 자체는 전투능력이 있다. F-18의 전투상승한도는 45/50,000ft이다.

특히 F-18의 고귀한 특징은 생활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전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F-18의 취약성

F-18의 성능 및 제원

제 원	기 폭		40.7'	무 장	기 총		M61 Vulcan 20mm		
	기 장		56'		의부최대 적 재량		13,700LBS		
	기 고		15.3'		Store 수		9		
	익 면 적		392ft ²		공 대 공		AIM-9×2 (Wingtip) AIM-7×2 (Inboard)		
	후 퇴 익				공 대 지		U/K (Outboard)		
	총 중 량		33,500LBS		GP폭탄		중량U/K		
	승 무 원		1명		전 자				
	내부연료		11,000LBS						
	엔 진	종 류	F404-GE-400						
		추 력	16,000LBS						
성 능	최대속도		M=1.8	함재작전용 ACLS 자동착함체제 (自動着艦體制)					
	순항속도								
	항적거리		2,000N/M						
	전투행동반경		40N/M						
	추력/중량		1.0						
	최대 G		7.5						
	실용상승한도		50,000'						

을 크게 감소시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F-18의 급유선은 자동으로 봉합되며, 따라서 엔진의 위어나 사이에는 연료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F-18의 생환성은 기존 항공기에 사용하는 수압액체(Hydraulic Fluid)보다 가연성이 낮은 수압액체와 엔진의 화재예방, 진화체제 및 정교한 ECM체제를 이용하여 크게 보장되었다.

설계 및 체제특징

F-18의 조종실은 조종사가 조종하는데 간편하도록 세심하게 잘 되어 있다. Head-up Display는 전투중 필요한 비행 Data를 쉽사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조종간(操縱桿)과 Stick에는 필요한 모든 조종장치가 되어 있다. 조종사는 머리와 손을 최소한도로 움직여 가며 이를 사용하여 최대의 효과적인 비행 및 전투를 할 수 있다.

F-18의 동체와 날개에는 약11,000LBS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다. 또 300Gallon의 외부연료탱크 3을 사용하면 총 16,000LBS 이상 연료를 적재할 수 있다.

F-18에 사용된 무기체제는 체공무기조종체제(Airborne Weapons Control System)로써 여기에는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28in 레이다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 사용중인 관성항법체제보다 더 정확한 관성항법체제는 장거리항법에 큰 도움을 준다. 동 항법능력은 역시 Air Data Computer Set와 레이다 항법장비, 전자고도계, 자동방향탐지기, TACAN 및 완전자동 함대착륙체제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써 전천후작전능력이 있다.

F-18에는 공대공 및 공대지임무에 필요한 모든 모드(Mode)가 되어 있는 전자장비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전자장비의 대부분은 완전 복합 디지털(Digital) 중복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비록 모든 전자장비가 작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었는 Control-by-wire시스템을 이용, 기지로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F-18 공중전투기를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하여 Northrop와 McDonnell Douglas 회사간에는 팀이 형성되어 있다. 미해군 및 해병대의 F-18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McDonnell Douglas회사가 주계약 회사이다. McDonnell Douglas 회사는 기체(機體)개발에 대해서는 70%, 항공기 생산에 대해서는 60%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한편 Northrop회사는 여분을 맡게 되며, McDonnell Douglas에서 받은 2억 3,000만불의 계약금의 한도 내에서, 수압, 연료, 기상조종장비, 제 2전원 및 시동장비를 포함하여 동체의 중심과 뒷부분 및 항공기의 2중수직 Fin을 개발할 것이다.

McDonnell Douglas 회사는 최종적인 조립, 동체전면, 날개, 안전장치, 착륙 및 착륙 Gear, 전자장비, 조종석 및 비행조종체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최초의 F-18의 조립은 1977년 후반과 1978년 초에 완성되도록 되어 있고, 최초 비행시험은 1978년 7월로 계획되어 있다. 시험비행용으로 F-18 11대가 제작될 것이며 1980년에 최초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생산하게 될 F-18의 약 10%는 복좌훈련용이 될 것이다. 이 훈련용의 후방조종석에는 Head-up Display 장치만 제외하고 모든 조종 및 Display 장치가 장치될 것이다. F-18은 1983년 10월에 가서 매월 9대씩 생산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F-18의 장래

원래에, Northrop회사와 미 공군이 YF-17에서 도출(導出)한 F-18은 함재 및 지상기지용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18은 주로 항공모함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18의 함재 및 지상기지용의 부속품들은 공통되거나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각국의 주문에 따른 지상기지용 F-18은 미 해군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생산가격을 적게 들여 생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함재 및 지상기지용은 사용국들에 대해서는 유익할 것이다. McDonnell Douglas회사와 Northrop회사의 팀업 계약에 따라, Northrop회사는

F-18경량급에 대해서 주계약회사가 될 것이고, 반면 McDonnell Douglas회사는 설계 및 생산을 맡게 될 것이다.

경량급 F-18(잠정적으로 F-18L로 설계될)을 개발함에 있어 Northrop회사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함대작전에 필요한 F-18NSF의 특성을 제거하여 중량을 감소, 그 결과에 따라 성능이 증가된다.

○ 높은 안전성과 정비의 용이성 달성

○ F-18과 지상기지용과의 큰 공통성 유지, 특히 후방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도의 높은 유사성 및 고가의 예비품에 있어서.

○ 특히 구입국의 필요에 따라 발맞도록 전자장비 및 무장체계의 일원화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높은 안전성과 정비의 용이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L형은 F-4E보다 50% 인력지원이 감소되리라 기대한다. F-18의 주요구성품들은 동체의 중심 및 후미부분과 수평 및 수직 Tail 그리고 동체 전면의 어떤 구성품들이다. 두 항공기는(함재 및 지상기지용) 중량에 있어서는 약 60%가 거의 같고, 부분품은 85~90%가 대치가능하다. 동체의 부분품을 교정 선택하고, F-18의 현측(弦側)에 있는 Hardware를 제거하여, F-18L의 총중량은 약 20%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동 항공기는 F-18용으로 개발중인 추력 16,000LBS(7,200kg)의 F404 엔진을 사용할 것이다.

MIG-25機에 對한 最新資料 分析



張 琰 淳 譯

소련의 최신편 전투기인 MIG-25의 지난해 9월 6일 일본 북해도「하꼬다테」공항 착륙과, 동 기의 조종사인 「베렌코」중위의 미국에의 망명사건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크나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말해서 소련측에게는 「경악과 분노」이었으며, 서방제국에게는 「경악과 환희」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MIG-25라고 하는 소련의 전투기 중에서도 극히 불가사의한 기체에 대한 솔직한 반응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미 「베렌코」중위는 미국으로 망명에 성공하였고, 동 기는 일본 내외의 많은 물의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도 미·일양국의 기술진에 의해서 2개월간에 걸친 기술분석을 마친 후 소련에 반환되었던 것이다.

이 기체가 남긴 기술상의 비밀은 아마도 국제 신의상 앞으로 절대로 공표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 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리」를 하여보는 것은 자유이며 그것이 맞거나 혹은 맞지 않거나 간에 적어도 항공기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소련의 항공기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다는 소련의 군사기술 그 자체의 발전을 고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MIG-25기에 대한 정밀한 기술분석은 미·일협동기술조사단에 의해서 이미 행하여졌고, 더욱 구체화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공개된 각종 자료들을 철저히 종합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FCS 레이다의 형식

MIG-25기의 화기관제용 안테나는 분

명히 미국의 방식과는 다르며, 오히려 우주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불란서 등에서 연구되어(물론 미국에서도 충분히 연구되고 있으나) 실용화 되고 있는 「가세크레인」형의 안테나와 같이 보인다.

즉 미국방식과 같이 기수선단에 돌출한 「폰」으로 전파를 발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후에스트·어레이·레이다」라는 확증도 없다.

「후에스트·어레이」운용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외부사람으로서의 없을 것이므로 이 보도는 상상이 아닌가 한다. MIG-25기가 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일 그 당시대로의 것이라고 하면 소련의 전자기술은 「후에스트·어레이·안테나」를 달기까지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전자기술에 있어, 세계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 공군이라 할지라도 「후에스트·어레이·안테나」에 의한 FCS의 채용은 현재 일선배치에 들어가고 있는 F-15기가 최초이며, 이것도 안테나를 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사(走査)를 할 수 있는 완전한 「후에스트·어레이·안테나」방식은 아니며 상하좌우의 「목 혼들기」에는 기계적 조작을 필요로 하며, 「빔」 구성만을 「후에스트·어레이」 방식에 의존하는 모양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F-4E의 FCS레이다는 APQ-120인데 이 기체까지는 여전히 「폰」형식의 레이다·안테나를 사용하며 더우기 「펠스·톱프터」 방식도 아닌 것이다.

만일 MIG-25기가 새로운 형의 레이다를 장착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에스트·어레이」방식은 아닐 것이다.

마치 「대야」의 밑바닥을 보이는 것과 같은 안테나는 「가세크레인」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방식에 의할 때는 전파는 「대야」형태의 안테나 속에서 반사되는 때문에 「폰」형식에 비해서 「폰」의 길이만큼 안테나의 전장(全長)을 짧게 할 수가 있다.

즉 「폰」의 전방을 길게 내놓지 않아도 전파를 반사시킴으로써 「바스」의 거리를 「폰」 형식과 같게 할 수가 있고 안테나의 전장을 짧게 할 수가 있다.

또한 「빔」의 주사각도를 바꿀 때, 예를 들면 「빔」을 5도 증가시키면 10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안테나의 목 혼드는 각도를 실제의 「빔」의 목 혼드는 각도보다 작게 할 수 있어, 안테나의 구동기구상(驅動機構上)의 이점이 되고 있다.

물론 완전한 「후에스트·어레이」방식 시에는 안테나는 고정되고, 전기적(電氣的)으로 주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MIG-25의 레이다가 「후에스트·어레이」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빔」 구성만이고, 주사는 기계적으로 안테나를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안테나를 고정시켜서 주사하는 방식은 도파관(導波管) 등의 구성을 생각하면 대형이 되어, 아직까지 항공기 특히 전투기의 기수에 장비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테나의 직경은 크며, 사진으로 판단하면 대략 F-4E의 APQ-120 FCS의 안테나 직경보다 15~16cm 정도 크게 보인다. 그리고 의문점은 어떠한 「빔」을 어떻게 하여 내고 있는 것인지이다.

만일 「원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안테나의 반사면을 안테나 축(軸)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시킴으로써 「빔」형성을 이루고 있는지, 또는 「파라포라」를 고정시키고 「자이레이더」를 작동시켜서 「코니칼·빔」을 내어 주사하는지 등 알고 싶은 것은 태산같다 하겠다.

한편 레이더의 반사파를 수신할 때, 편광(偏光) 필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안테나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어느 각도까지 회전시켜서 특정의 방향에서 오는 전파 즉 특정의 편파(偏波)만을 수신하여 ECM에 의한 방해물을 적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우기 오늘날의 ECM은 수직편파나 수평편파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때에는 양익단에 달려 있는 ECM 용으로 생각되는 안테나 속에 있는 수신장치가 어떠한 보조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별개의 의미가 나오게 된다.

즉 양익단의 ECM 안테나에 의해서 「캐취」된 상대방의 전파정보를 레이더에 보내서 「캐취」한 방해파의 특성을 피하는 것과 같은 수신방식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CEM으로부터 FCS레이더의 기능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양익단의 ECM장치는 항상 FCS레이더와 같이 움직여서 대 ECM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양익단의 ECM 안테나도 특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기체가 국지방위용의 단순한 기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그다지 복잡한 ECM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ECM 수신기 및 상대방의 레이더에 대한 방해용 전파 정도이고, 기타의 레이더 장비로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레이더파를 포착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장치 정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후방정보방식으로는 동시에 IR 즉 적외선에 의한 목표물 감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FCS레이더의 능력

MIG-25의 FCS 레이더의 능력은 안

태나의 크기 및 추정되어지는 출력으로 보아 만일 미국과 동등한 기술 수준에 의한 레이더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의 능력을 추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공시의 추적능력은 460m~약90km이고, 공대지 능력은 460m~18km이며, 「서어치」 능력은 최대 360km일 것으로 추리되나 300km정도가 아닌가 한다. 이 경우, 「록크·온·메모리·타임」은 5초~7초로 생각된다.

이상의 수치는 최대출력을 160~200kw로 추정할 때의 이야기인 것이다. 「레이저·레이드」는 「클로스·인·모오드」에서 약 2,500kt, 즉 매시 약 4,630km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오프닝·레이드」는 800kt 즉 매시 1,442km 정도일 것이다. 이 레이더에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일부인사들이 여러가지 말을 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미국의 전투기인 F-4D의 APQ-190 레이더도 많은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고 더우기 그 후에 제작된 레이더인 APQ-120도 또한 많은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특히 고출력에서 석「石」(트랜지스터)보다도 구(球)(진공관)가 유리하다는 것보다 구(球)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에 있어서도 새로운 레이

다는 당연히 「트랜지스터」화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FCS가 어떠한 표시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MIG-25기의 목적, 즉 고고도, 고속도의 목표물 포착이라고 하는 점에서 말하면 각종 표시를 할 수 있기보다는 극히 한정된 「레이더」의 표시에 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침입목표물의 위치, 고도, 침로(針路), 「베크톨」 등을 표시하는 것일 것이다. 요는 미사일의 공중발사대역 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레이더에 대해서 전하는 「록크·다운」능력이 낮다고 하는 정보는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본기의 목표물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보다 상방(上方)에 있다고 생각하여도 좋은 때문이다.

또한 본기의 전자시스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전파를 준비하고 있어 전시에는 즉시 전파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정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항상 상대방의 전파를 감시하고, 레이더를 수집하여서 그 준비하여야 할 파장은, 항상 가장 유효한 것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MIG-25기에 관한 한 그의 국지방위라고 하는 목적에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나 지상기지와의 상호통신능력의 확보에는 충분한 노력이 경

주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MIG-25기는 항상 언제 어떠한 때에도 지상관제관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일순간이라도 연락이 끊어질 때에는 즉시 기지로 귀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월남전 당시 월맹군의 MIG-21기가 이같은 전법을 취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MIG-25기의 전자장비는 미국 전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반응성은 적다 할지라도 그가 목적으로 하는 전투에 대해서는 필요한만큼의 충분(어느 정도를 충분한 것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틀린 생각은 아닐 것이다.

또한 MIG-25기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극지요격전을 목적으로 한 특수기종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미 대량 제작되어져서, 구라파의 주요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 MIG-23 등과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여하한 레이다 및 전자기술에 대한 소련의 사고방식은 우리 자유진영과는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변하여 왔으며,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앞으로 예의 연구하여 볼 문제점이라 하겠다.

파괴장치와 엔진

다음은 외형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 세계의 어떠한 문헌에서도 보지 못하였던 일로서, 이것은 MIG-25기의 주익전연에 극히 작은 것이기는 하나 후퇴각이 있다는 점이다.

즉 날개 하부의 「파이론」과 일체가 되어 있는 날개 위에 정류판(整流板) 외부로부터 익단에 걸쳐서 극히 작은 아마 1도 또는 1도반 정도의 후퇴각이 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작은 후퇴각이 있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즉 어느 고도 예를들면 중고도 등에 있을 경우, 이 작은 후퇴각이 항공기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단한 흥미거리가 되고 있던 것에 하나는 본기의 기폭장치(起爆裝置)이다. 무기의 비밀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는 당연한 기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기밀도가 높은 기체의 경우 등은 조종사가 탈출할 때, 「스위치」를 넣으면, 어떤 시간 예를들면 10초나 20초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기체가 폭발하는 것이 있다.

기타의 것으로는 전자무기나 암호관계의 기계의 회로나 기구를 분쇄하여 버리는 것과 같은 작은 파괴장치가 있다.

MIG-25기에 복수의 기폭장치가 있다

고 한 것은 이와같은 작은 파괴용의 것이다. 이것은 자유진영의 항공기 기체에 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파괴방식에도 기계적인 것과 전기적(電氣的)인 것이 있다.

다음은 엔진인데 이것이야 말로 MIG-25기의 기체 부품 중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부분일 것이다. 선단의 공기흡입구의 직경은 약 1m, 폐기구의 직경은 약 1.5m에 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콘프레서」가 불과 5단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정치로 말하면 이 엔진의 추력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때에는 대체로 최대 12.5톤에 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료소비율은 그런대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물·메탄올」분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여객기의 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한 추력증강수단인지, 다른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명이다.

한편 신문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애프터·버너」를 뒤에서 볼 때, 분출구 경조절용(噴出口徑調節用)의 가동변(可動瓣)이 2중으로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거나 이것은 「애프터·버너」부 후단에 2차 공기를 유입시켜서 마하·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때에 효율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것은 「가이베트·익스팬션·노즐」방식이다.

또한 다음은 연료의 용량인데, 일반적으로 유요된 「베렌코」중위의 말인 「14톤의 연료」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맞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것은 총 중량이 종전에 생각되어 온 것보다도 5톤이나 무겁고, 어떠한 중량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비중량 35톤이란 숫자는 어느 정도의 무장과 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하히 엔진의 연료 소비율이 크다고 하여도 웬만한 거리는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F-15A의 기내 연료는 5,058kg(11,150파운드)이며 F-15A기의 요격전 투시의 표준이륙중량은 18,824kg이고 이 중의 연료는 10,365kg인데 비하여 격단의 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히 큰 연료소비율을 갖는 엔진을 항상 큰 마력수로 운용한다손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MIG-25기의 연료탑재량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에 하나이다.

또한 MIG-25기의 동체하부에는 연료의 배관이 없으며, 보조탱크도 달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나, 「동체하부에 1개 달 수 있을지」라고 하는 표현은 신문의 추측인지 혹은 관계당국에서 흘려나온 것을 근거로 하였다면 주목의 가치가 있

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급유장치는 없는 것 같았으나 이것은 국지용 요격기라고 하는 단일목적에서 말하면 당연한 일이며, 상승일격방식(上昇一擊方式)의「미사일·라운차」적인 운용이라는 것을 주로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공중급유의 필요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동토대(凍土帶)에서 이착륙

이것은 아마도 현지에서 현물을 취급 하였던 사람들로 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흥미를 끄는 점에 하나로서「노우즈·호일」즉 알라퀴에도「엔티·스킷트·시스템」이 달려 있는 점이다.

이것은 MIG-25가 운용될 지역의 정황에서도 생각되는 일이며, 동결된 들판은 어느 정도의 보수에 의해서 중량이 있는 기체의 운용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브레이크·시스템」의 완비는 필요한 제1조건이 된다.

또한 『추렉크·슈트』도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이것도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아마도「하프다메」에서 해체할 당시에 이미 그의 세부는 판명되었을 것이며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또한 한때 MIG-25기에는 사출좌석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어서 시정되고 있다.

그러나 MIG-25기의 탈출시스템은 미국식과 같이 0~0시스템 즉 0고도 0속

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 양각(兩脚) 사이에 있는「케이블」을 당김으로써 사출된다는 것이다.

즉 최초 한 번 당기면「캐노피」가 날고 다음 당김으로써 좌석이 사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군용 제트기에 관한한 이 장치가 없어서는 항공기 밖으로 탈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은 기체에 대한 것은 아니나, 「베렌코」중위의 복장인데 그의 복장이 제트 전투기용 즉 내중력용(耐重力用)의「G복장」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날의 훈련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의외로 우둔한 복장으로 비대한 것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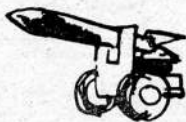
우주개발을 하는데 「리이드」를 하여온 소련이기 때문에 고속항공기용의 복장이거나 기체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주익전연에 그어져 있는 극히 작은 후퇴각이 뜻하는 것, 그리고 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재료의 분석 등의「테이타」는 MIG-25기의 본질을 보다 명백히 하여 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추정할 수 있는 대추력 즉 12.5톤에 달하는 추력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운용하는 가를 연구하는 데와 앞으로 소련의 항공기를 관찰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Roland 미사일의 威力

李 希 權 譯



단거리 전천후방공무기체계인 Roland 미사일은 미육군용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것이며 앞으로 미군은 저고도 공격기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동 미사일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재래식 지상전에서보다 공격기와 대공포부대의 Chess Game을 함에 있어서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보다 정교한 대공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신공격기들은 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1일 24시간 작전을 한다. 이들 항공기들은 마지막 몇분간의 레이다 포착 시간을 제외하고 완전히 포착되지 않기 위하여 나무 끝 정도의 높이를 비행하며 이들 지역을 추적하는 레이다는 지상 100미터 상공에서 초음속으로 이들 항공기를 목표물로 유도할 수가 있다
이들 항공기가 일단 그들의 목표물에 도

달하며는, 새로운 세대의 전자광학 및 무선주파수 유도무기와 무기유도체제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와같은 새로운 세대의 최신무기로 무장을 한 몇대의 항공기만으로도 전차대형(戰車隊形)을 능히 격파할 수 있고, 교량과 비행장을 크게 파괴할 수 있다.

이와같이 최근에 와서 항공기와 정교한 무기에 있어서 크게 발전을 보게 됨에 따라, 이에 알맞는 정교한 방공체제가 절대로 필요하게 되었다. 동 체계는 공격기가 수평에서 수평으로 신속히 비행하여 가는 불과 몇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전후방 어디서나 공격기를 공격하는데 신속 정확해야 한다.

미국의 Roland미사일(불·독 합작 Roland II 전천후방공체제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될)은 레이더포착이 지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저고도 공격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식별 파괴할 수 있도록 특이하게 설계하였다.

동 미사일을 미국 내에서 생산함에 있어서 주 계약회사는 Hughes항공회사이며 그의 주방계(主傍系) 회사로는 Boeing회사를 들 수 있다.

미국의 Roland미사일은 고도 5km 이상까지의 전후반구(前後半球)에서 6km 이상의 최대 요격거리로 어떠한 각도에 서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미사일은 주·야간 똑같이 작동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손색 없이 작동할 것이다.

Roland미사일은 미국의 여러 방공부대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난 후 미국의 전장부대(戰揚部隊)와 같이 개발하기 위하여 선택된 외국에서 설계한 무기체제이다. 동 미사일 체제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야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다.

미국의 Roland미사일은 화력장비(Fire Unit), 미사일 및 지원체제로 구성될 것이다. 모든 중요한 임무장비는 바뀌나 또는 추적차량 위에 장치되어 고정된 상태로 작동할 수 있는 화력장비 모듈(Fire Unit Module)에 들어 있다.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동 모듈을

은 헬리콥터로 수송이 가능하다.

Roland미사일은 전천후작전에서 교전중 보통 1명의 조작원이 동 체제를 조작하기는 하지만, 통상 3명의 조작원 즉 운전병, 조수 및 수칙 산정관이 조작을 한다.

각 화력장비 모듈들은 2개의 중요한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하나는 Roland미사일의 크기와 비교되는 직사각형의 모듈을 동체와 사격장비 모듈을 동체 꼭대기에 장치된 포탑 등이다.

포탑은 완전히 회전되며, 사격단위 모듈을동체 위에는 감시레이다, IFF안테나, 적의선 추적기가 붙어 있는 추적레이다, 지령유도송신기, 안테나, 광학조준기(양호한 기상에서 사용) 및 2개의 미사일발사대가 장치되어 있다.

Roland미사일체제에서 포탑은 디지털 컴퓨터와 Logic Unit, 포수의 좌석 및 통합된 무기유도장비가 장치되어 있다.

레이다 안테나는 발사대와 발사대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펄스도플러 감시레이다 안테나는 포탑의 맨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다. 또 그보다 약간 작은 타원형의 추적 안테나가 아래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 모듈을동체에는 감시레이다용의 송신기와 레이다디스플레이, IFF심문기, 전원(電源), 승무원좌석, 화력조종장비 및 공기조정장치(空氣調整裝置) 등이 장치되어 있다.

각 Roland미사일체제는 미사일 10발로 무장을 하는데 2개의 발사대에 각각 1발씩 그리고 발사대 바로 아래쪽의 동체에 있는 2개의 탄통에 각각 4발씩 장착을 한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미사일제장진이 되며, 미사일제장진 명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포탑이 탄총의 바로 위에 있는 발사대쪽으로 회전을 한다. 발사대가 아래로 내려와 미사일이 자동으로 장진된다. 그리고 나면 포탑은 발사각으로 다시 회전을 한다. Roland미사일은 6km 이상의 거리까지 치명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Hughes항공회사는 전반적인 체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며, 레이더와 유도미사일을 제작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Boeing회사는 사격장비(Fire Unit)를 제작하여 미국의 차량에 통합시킬 것이고 그 외에도 유도미사일의 일부분을 제작할 것이다. 그 외에도 중요한 방계(傍系) 계약회사로는 Dynamics Corporation(Roland 미사일의 주요한 동력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Boeing회사에서 선정)과 Hazeltine Corporation 회사 등이 있으며, 동 Hazeltine Corporation회사는 미사일체제의 IFF심문기를 제작 중에 있다.

Roland미사일의 가장 큰 특색은 동미사일이 주·야간의 전천후능력과 기동

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공체제에 있어서 취약점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Roland미사일은 이동하면서까지도 중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고정 및 이동목표물을 공격할 수가 있다. 또한 그 외 펄스도플러 감시레이더는 고정된 Echo를 자동으로 제거하며 수평에서 아주 낮게까지 탐색할 수 있다,

목표물이 포착되며는 그 목표물은 PPI(Planned Position Indicator)스크루프상에 나타난다. IFF는 적·아식별을 확인해주는 신호를 비디오디스플레이(Video Display)상에 나타내어 적기를 식별한다.

주간에 광학모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종관은 목표물을 선정하여 포수에게 화력조종권을 양보하며, 조수는 조준경의 조종간(操縱桿)으로 조준하는 거울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조준한다. 조준경은 포탑이 방향을 잡도록 하여주며, 발사대와 지령송신기가 고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추진엔진에 점화가 되면 미사일은 발사관에서 발사되며, 십자형의 날개는 미사일의 원통형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 날개는 미사일에 양력(揚力)을 제공하여 주고 미사일이 회전주축으로 돌 수 있도록 공기역학적 역할을 해주는 장치이다.

조준경과 나란히 장치되어 있는 적외선 추적기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미사일 뒷부분의 열을 추적하며 지령컴퓨터로 미사일의 비상로(飛翔路)에 대한 Data를 제공하여 준다. 조준경은 자동으로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방출한다.

이들 Data에서 수집된 비상로(飛翔路)는 지령송신기를 통해서 미사일로 전파된다.

원전자동레이다모우트(Mode)가 주간이나 또는 야간용으로 선정될 때에는 Roland는 1인체제가 된다. 해당 레이더 Echo에 추적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선정하고 나서는 수직산정관은 2가지 채널 추적레이다를 활용한다.

하나의 채널이 미사일과 Lock on하고 있을 때 동시에 한 채널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그리고 정확한 비상로와의 편차를 측정한다. 이동하는 목표물을 Roland미사일이 정확히 추적하도록 하는 제트·디프렉션·템이 있는 엔진의 추력을 벡터함으로써 정확한 비상로가 결정된다.

미사일의 탄두(彈頭)에 있는 4개의 안전 핀은 연료가 소모되었을 때 미사일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여 준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나면 바로 자동적으로 미사일은 목표물의 조준선과 거의 일치하게 되며 지령컴퓨터에서 계속적으로 방출한 비상로가 미사

일 자체유도로 바뀌게 된다. 주간에는 광학조준에서 자동레이다방수(傍受)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교전중의 미사일 자체 유도단계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10발의 미사일을 다 발사할 때까지는 높은 발사율로 발사할 수 있다.

어째서 Roland미사일 체제가 개발되었으며 기존미사일체제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동 Roland미사일 체제는 엔진기술과 레이더의 하반감시능력이 보강됨에 따라 최근에 전투기가 겪었던 기술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독의 Messerschmitt-Boelkow-Blohm 회사와 불란서의 SNI Aerospatiale회사가 합작으로 개발하였다.

이와같은 기술적인 문제점은 제4차 중동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지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중고도 및 고고도 방공체제는 아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재래식 레이더 주사(走査)범위 아래를 아주 저고도로 그리고 최대속도로써 침투하는 일이 공격기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행동 방안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제4차 중동전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전자유도무기류가 비록 고속으로 저고도에서 투하되기는 하였지만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데 크게 효과가 있었

음이 입증되었다.

제4차중동전의 몇가지 교훈을 다시 감안해 볼 때 비효과적인 대공무기체제를 들 수 있으나 낙관적인 대공무기체제는

1. 저고도전술을 시도하는 공격기가 몇분간(순간적인)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을 때 이에 민감하여야 하며 파괴할 수 있어야 하고,

2. 이와같은 형태의 공격목표물에 대하여 높은 기동성(기갑부대, 전략적 지상이동)과 고정된 시설(비행장 등)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방공을 하여야 하며,

3. 비록 이동중에 있더라도 항상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

4. 어떠한 정교한 ECM이라도 방해할 수 있어야 하며,

5. 다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값이 싸야 한다.

그 외에도 유럽의 전장을 위해서는 주간이나 또는 야간의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Roland미사일은 이와같은 요구사항 하나 하나를 충족시키고 있다.

Boeing항공회사와 공동으로 Hughes 항공회사가 미국의 전천후미사일 체제를 생산하기 위하여 구라파시장회사와 1972년 10월 협정을 협상하고 있었을 때 주관용인 Roland와 전천후형인 구라파의 2개 회사에서 개발되어 왔다.

중시에 미 육군에서는 어느 미사일이 단거리, 전천후방공체제(SHORADS)로써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Roland를 포함한 여러 개의 외국에서 제작한 미사일체제를 시험하였다.

미국의 미사일사령부가 서독의 Mar-dar 추적차량에 적재된 미사일 체제를 시험하고 있을 때 Roland미사일은 1973년 2~4월 사이에 완고한 시험을 받았다. 이 시험은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제트무인기 목표물에 7발중 6발이 명중되었다.

1974년 여름에 미육군은 단거리 전천후방공체제(SHORADS)에 대하여 21개 회사에 RFP(Request for Proposal)를 내었다. 동 RFP상에는 SHORADS 체제는 원제작국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경쟁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원 계획목표상에는 요청효과 수준을 충족시키되 그 가격 역시 알맞는 체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육군에는 4개의 미사일체제 즉 불란서가 설계한 Crotale미사일체제와 전천후 레이다능력을 보강, 미국의 Chapp-arral 미사일의 개조, 미국과 라이선스한 영국의 Rapier 미사일 체제 및 Roland 미사일 체제가 제의되었다.

1975년 1월에 Roland미사일이 선정됨으로써 동 미사일은 필요한 전술을 적용하여 작전하는데 단연 우세한 저고도대

공무기체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Roland미사일이 저고도 대공무기로 선정됨으로 해서 미국은 기술면에 있어서 자신이 있음을 구라파의 여러 동맹국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미 상원군사분과위원회 의장인 Thomas J. McIntyre 상원의원은 외국에서 제작한 무기체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제껏 없었던 역사적인 특유한 사건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과 유럽의 협동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며 군 장비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문호개방이 넓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와같이 공동으로 노력함에 따라 불필요한 이종의 개발을 피하여 실질적으로 저축이 되며 또한 미국에서 장비를 생산함으로써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노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

Roland미사일을 생산하는데 미국의 기술자와 유럽의 기술자들이 기체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그의 공용성(共用性)을 최대로 높이고 미국과 유럽의 생산 국가들이 중복된 노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획초부터 엄격한 통제가 실시되었다.

미국은 유럽의 미사일체제에 오직 3가지의 변형을 하여 Roland미사일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그 중 하나는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나머지 2개는 적의

ECM에 대하여 Roland미사일체제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Roland미사일 합동 개발통제위원회가 이와같은 공동개발노력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미국의 계획관과 구라파의 국방부 감독관들도 불란서 및 독일의 Roland미사일 계획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에 참여하였다. 이들 요원들은 자기 정부의 업무와 민간인 계약자의 활동을 협조하였다.

구라파 및 미국의 Roland미사일 생산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다. 구라파에서는 Roland미사일의 모든 중요한 하위(下位)체제들이 현재 생산단계에 있다.

미국이 Roland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문서 수정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장기간을 요하는 품목들은 주문중에 있다. 탄두 및 미사일 추진장비를 포함하여 광학조준기, 탐색추적레이다 및 미사일전자공학 등의 일부분은 미터기술을 사용하여 이미 생산중에 있다. 구라파에서 설계한 장비기술을 모방하는데는 어떠한 큰 문제점은 없었다.

미 육군은 아주 우수한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Roland미사일은 그 특이성과 설계의 우수성, 체제조작의 단순성 및 그 능력에 있어서 전장에서 미군전투요원이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는 장비이다.

새로운 4次元戰爭



朴 熙 大 譯

인도양 상공의 궤도를 비행하는 한쌍의 미국우주선—조기경보위성과 지구로 신호를 중계하는 위성—은 시베리아에서 발사한 소련의 미사일에 포착되었다. 그러자 미국의 우주선들은 갑자기 소련의 상당한 출력을 내는 적외선 Beam에 겨냥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미국의 중계위성에 장치된 탐지장치(Sensor)는 지상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동 위성의 전자적 기능이 파괴되었다. 위성에는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위성에는 발사하는 제반 신호는 전자평형을 잃게 되었다.

그 후 몇주일 후에 소련은 새로운 무기실험을 재개하였다.

소련은 Kazakhstan에 있는 Tyuratam Cosmodrome에서 우주선을 발사하여 우주 깊숙이에 있는 다른 우주선의

궤도에 돌입시켰다. 얼마동안의 추적 행을 한 연후에, 소련의 우주선은 목표물 가까이에 접근한 후 목표물 추적비행을 중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령으로 목표물을 파괴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리로 격리시켜 파괴시켰다.

이와같은 사건들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공상과학소설(Science-Fiction)과 같은 전쟁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Episode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다.

작년 한해 동안에 소련은 우주에서의 위성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1967년, 미·소양대국이 우주에서의 핵무기금지협정을 체결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의 종말에 가까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후 우주에서 여러가지의 무기실험이 실시되어 왔고, 오늘날에 와서는 군사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우주에서 전쟁이 기필코 일어나고야 말리라는 중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Détente시대에 들어와서는 미·소간의 중대한 우주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어 왔지만, 그와는 반대로 군인들만은 아무도 싸우기를 원하거나 기대하지도 않는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 각국의 육·해·공군은 우주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통신연락과 감시 및 폭격기와 전함들의 항법조종을 위하여 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소의 초강대국들이 우주전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초강대국들은 각각의 우주선으로 전쟁을 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미 우주전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작 중에 있거나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80년대에 가서는 완전한 우주전의 단계에까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조종전(宇宙操縱戰)은 어느 한쪽을 치명적으로 공격을 하여 지구상에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크게 피해를 입어 결국에 가서는 항복하게 할 수 있음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

은 지구상에 단 한 발의 사격을 하지 않고도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우주무력전이 가능하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생각은 거의 확실한 이상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소양국은 우주전에서 패자가 항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감시 및 항법용 지상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궤도상에서 우주전수행을 하려하는 먼저 멀리서 비행하며 그리고 빠른 우주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광선(Death Ray)

전쟁의 양상이 오늘날에 와서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무시무시한 우주 4차원전쟁으로 확대되어 가리라는 연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이와같은 사실이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10년 동안에 있었던 군사기술혁명의 논리적인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컴퓨터와 유도체계, 탐지장치 및 레이저관선 등을 사용함으로써, 재래전에 있어서의 “백발백중”무기가 발명되었다.

1973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중동전에서 전차와 기타 차량 등에 대한 Smart 폭탄과 유도미사일의 정확한 명중률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힌트를 미리 예언

하여 준 것이다. 그 이후부터 공학자들은 실제적으로나 또는 잠재적으로 육군 및 해군의 전투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우주전은 정확하고 놀라운 미래무기를 가진 군세(軍勢)로써 싸우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레이저광선은 "살인광선"을 창조하겠다는 Buck Rogers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적의 우주선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를 조사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Hunter-Killer 위성"의 제작이 가능하다. 위성에 레이저장비를 장치하여 우주에 있는 Platform에서 적의 로켓트를 격추시킬 수 있는 대탄두 미사일체계 개발이 가능하다.

1990년대 후반에 가서는 핵무기까지 동원되어 전쟁의 위험은 확대될 것이다. 어느 한 강대국은 갑자기 로켓트 탄막을 형성할 것이다. 이들 로켓트들은 궤도상에 돌입하여 상대국의 스파이 위성에 접근, 이들을 차례로 폭파시키거나 그 위성의 조기경보체제를 마비시켜 버릴 것이다.

소련의 Hunter-Killer 위성들은 우주에서 미국의 위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되어 왔다. 1967년초에 소련은 16번의 계속적인 실험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Hunter-Killer 위성이 소련의 목표물 위성을 추적, 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거

리로 접근한 연후에 동 킬러위성을 자동으로 폭파시켰으며, 1971년에 와서는 이와같은 시험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1975년 2월에 와서 새로이 5발의 위성을 계속발사하여 Hunter-Killer 위성시험을 재개하였으며, 미국에 다시 위협을 주고있다. 미국도 미국위성의 생활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의 이와같은 잠정적인 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위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최근에 발표하 바 있다.

미국도 미국의 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을 이미 개발하고 있다.

아마 그것은 대형의 "비밀위성"비행선대(Fleet of "Dark" Satellites; 秘密衛星飛行船隊)를 우주에 발사 진입시키는 작업일 것이다. 이들 소형의 우주선들은 레이다 흡수외형장치가 될 것이며 소형의 핵원자로를 이용 스스로 전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위성들은 우주 깊숙이 숨어 있게 될 것이며, 위협시기를 제외하고는 평시에는 조용히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밀위성들은 소련의 레이다와 무선요격장치에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격추시키기는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미국의 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Hunter-Killer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들 위성들은 레이저광선을 이용하여 위성을 파괴시키거나 또는 목표물의 통로를 방해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의 위성을 파괴시킬 수 있다.

지난 봄 청문회에서 미 상원우주분과 위원회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소련의 위성체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다. 또 미해군장관 William Midden-dorf씨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소련은 탄도미사일 중간유도를 하는데 인공위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도 신속히 이들 위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킬러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와같은 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980년대에 가서는 레이저광선은 우주에서 기본무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우주선을 추적하기 위하여 레이저광선장비레이다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부인하고는 있으나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을 임시로 방해하기 위하여 작년에 소련이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확증이 있다.

지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의 위성이 소련의 레이저광선에 방해를 받

은 일이 있었으며 그 중 한 위성은 4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었다고 미국 국방성회의론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들 방사광선(放射光線)의 강도는 자연불빛보다 10배 내지 10,000배 정도로 강하였다. 그리고 다른 미국의 방공위성은 그 불빛을 볼 수 없었다.

한 분석가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15년 동안이나 소련의 위성들을 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이다.

탐지장치들이 고장이 났던가 또는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변력을 초래하는 무기

소련이 레이저광선으로 미국의 위성을 공격하는데 이용했다면, 지상에서 하였던 것이다. 높은 Beam을 내기 위하여 많은 전원(Electrical Power)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많은 전원이 필요한 것은 다른데서 레이저광선을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에 수소와 불소를 혼합하여 만든 강도가 높은 화학레이저를 개발하여 기술이 극적으로 비약하게 되었으며 많은 전원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 화학적 레이저광선은 1초동안에 10억분의 1초의 파장을 내기 위하여 2,000억 와트의 Pulse를 낸다고 하며 이와같은 짧은 파장은 금속을 기화시킬 수 있

으며 파괴충격차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화학적 레이저광선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표적인 광선으로써 대단한 가치성이 있는 광선이라고 한다.

이 화학레이저광선이 완전히 개발이 되려는 이는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가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 광선의 Beam은 빛의 속도로 목표물에 적선으로 전파되며, 목표물 조준을 용이하게 해주고, 거의 미할 수가 없다.

미 육·해·공군에서는 방공장비에 이용하여 적기 및 미사일유로용으로 실험을 이미 하고 있다. 레이저장비가 된 위성함대는 적의 우주선과 ICBM이 대기권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때에는 우주공간에서 이들을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소양대국이 그들의 위성의 손실로 우주탐색활동이 마비될 때에는 이들 강대국들은 비상시에 어느편이 핵전쟁에서 승리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성을 발사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종말에 가서는 어느 한측은 유인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며, 또 상대국도 왕복우주 비행선을 궤도에 발사하여 신속히 새로운 적의 우주선을 포착할 것이다. Gap이 좁혀질 때에는 비행선에서 우주비행사가 나와서 적 우주선의 태양날개를 자를 것이다.

2개의 긴 기계팔은 왕복우주비행선의 동체로 적의 새로운 우주선을 밀어 넣으며 동 왕복비행선은 노획장비를 싣고 지구로 귀환한다.

아마 미국은 최대의 우주무기로써 거대한(Mammoth) 왕복비행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이 최초의 거대한 우주선은 그 형태가 1975년 9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있다.

NASA와 미국방성의 공동개발계획으로 동 우주비행선은 Calif의 Downey에서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1979년에 최초로 궤도로 발사할 계획을 하고있다. DC-3 보다도 더 큰 동 우주선은 7명의 우주비행사와 65,000파운드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의 적재량에 2배이며, 로켓무게의 3배에 해당한다.

동 우주선은 자체의 출력으로 지구로 귀환하여 재래식 항공기와 같이 착륙할 것이고 또 10일간의 다른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이다.

소련이 이에 상응하는 우주선을 제작할 때까지는 동 우주선은 미국에게 우주탐색활동에서 이점을 줄 것이다. 동 우주선의 우주비행사들은 궤도비행중 보수 및 재 급유를 할 수 있고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우주선들을 골라서 새로운 우주선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궤도로 무기를 발사할 것을 결정한다면 동 거대한 우주선은 필요에 따라

이들 무기로 재 무장할 것이다.

미·소간에 어떠한 위기가 조성될 경우에는 동 우주선은 소련의 스파이위성과 궤도를 비행 중인 레이저 Station을 일시에 강타하여 지구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위험한 길

오늘날에 와서 소련이 우주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주선 개발에 있어 미국과의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1974년과 1975년에 소련은 199개의 위성을 궤도에 발사하였고 그 반면 미국은 오직 48개만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Hunter-Killer기술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크게 앞서 있다고 하나 그 반면 미국은 레이저무기에 있어서 소련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미국방성과 계약한 2개의 방위회사가 최근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은 1980년 초에 가서 미국은 궤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무기를 최초로 갖게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이 이같은 무기를 그때에 가서 보유하게 될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과거부터 미국방성 내·외의 군사전문가들은 우주전을 대비한 지혜를 놓고 암암리에 토론을 시작해 왔다.

이와같은 노력에 반대를 하는 군사전문가들도 우주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전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주무기개발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평은 어떠한 초 강대국도 적의 모든 위성들을 즉시 공격하지 않고는 우주전을 실제로 시작할 수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와같은 무서운 움직임은 실제로 핵공격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사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서의 전쟁은 그 전쟁이 보다 서서히 확대되어 가도록 하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패의 결과를 쌍방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줌으로써 지구상에서의 유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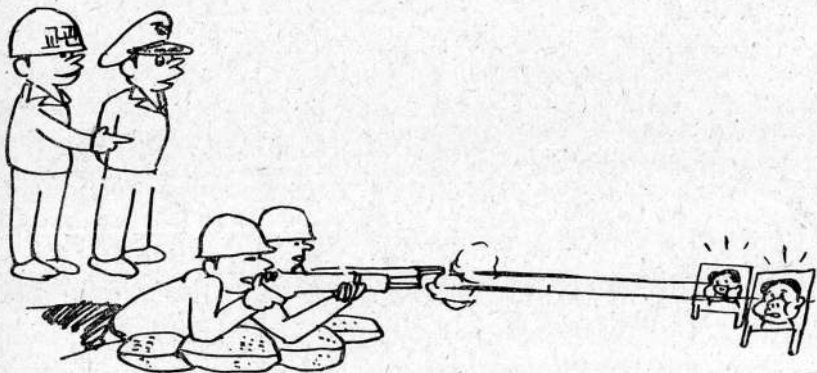
미국방성 연구감독관인 Malcolm Currie 박사를 포함한 다른 감독관들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미국은 소련에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urrie박사가 최근에 한 연설에서 소련은 미국이 점유하지 않기를 바랐던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소련은 모든 암시를 가지고 새로운 전쟁의 차원에서 우주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공·군·만·상

鄭 雲 燮

<적개심 고취>

- 대대장님 표적에다 김일성 초상을 붙였더니 병사들의 사격 솜씨가 백발 백중입니다.



<어느 정비사의 자랑>

- 저렇게 멋지게 날아가는 것도 내가 정비한 덕이지 때문에 나를 모두들 존경한단 말야
- 어머 자랑스러워.....



공·군·만·상

<화가 난 K중위>

- 서정쇄신으로 총력안보를 다짐하는 이때 나더러 군수품인 군화 및 등산장비를 구해 달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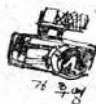
술 안먹겠다!



<봄과 인화단결>

- 역시 미스 방은 타자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환경정리도 잘 하는군
- 봄과 더불어 훈훈한 인화단결을 실천으로 옮기는 중이라구요.





젊은 장교에게

— 毛 允 淑 —

<詩 人>

우박과 비와 눈 사이로 달리는 사람!
 번개와 마주치며 회오리 바람을 정복
 하는 슬기! 大洋과 우람찬 산맥위로
 날새게 가는 지혜! 바로 당신은 市民
 이 사랑하는 하늘의 장교 민족의 날개
 입니다. 정중하고 믿음직스러운 신앙
 의 사나이! 불같이 뜨거운 사막에도
 무수한 산 침승들이 우글거리는 저—깊
 은 산림 위로도 겁 없이, 친근감으로
 지나갈 수 있는 힘의 용사! 당신을
 가졌기에 약하거나 주눅거림이 없습니
 다. 당신은 무르익어가는 능금빛 얼굴

과 우주의 숨결을 담은 크나큰 가슴을
 지닌 오늘 의 화랑입니다.

그 언제 하늘의 장벽을 넘어 저 쓸
 쓸한 北쪽 언덕에 혼자 울고 있는 少女
 를 꺼안아 오겠습니까? 그 때엔 그쪽
 하늘의 별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
 오며 당신과 함께 우렁찬 합창을 시작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불타는 눈동자와
 힘찬 어깨의 선율이 어리둥절 해 있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生氣의 인간으
 로 회복시키고 말 것입니다. 저 하늘
 의 칸막이를 뚫고 과감하게 날을 수
 있는 힘의 용사!

젊은 구름을 불태우고 조용하게 흘
 러갈 수 있는 하늘의 江물이어야겠
 지요!

영원을 이루십시오. 다시 더 아픔과
 고통이 하늘과 땅에 머물지 않도록 진
 달래와 노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또 하
 나의 山野를, 당신을 기다리는 그 하
 늘을 찾기 위해 모험의 정신을 기르는
 노력자가 되십시오.

낮서론 산 기슭이나 벌판에서도 뜻
 을 굽히지 않는 意志의 사나이, 이런
 기운찬 장교를 가지고 싶습니다. 언젠
 가는 우리의 하늘을 찾아 있어버렸던
 자유의 나래를 활짝 펼 준비를 할 그
 런 사람 말입니다. 땅에는 門이 열리
 지 않았고, 하늘엔 날아갈 길이 막혔

읍니다.

얼마나 숨 답답하겠습니까? 오랫동안 매인듯한 조국의 땅은 뜻아닌 갈림길에 당황한지 30年! 하늘을 바라보며 젊은 장교 당신을 믿고 바라 봅니다.

두렵겠지요, 주저도 되겠지요, 기도도 하시겠지요, 지금 당신은 歷史와 冊을 읽으며 당신의 정신세계를 연마 하시겠지요? 그 人品 그 용기에 두려움을 두려워 하고 주저와 좌절을 가지는 약자만은 우리가 바라는 장교도 아니고 동정도 할 수 없습니다.

未來를 살리는 숨결만은 죽이지 마시고 정신의 王國 속에 잘 살려 두시란 말입니다. 그 하늘의 자물쇠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비통한 이 현실을 높은 지성과 기민한 연구에 열중하여 민족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조국의 미래에 門기둥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部下에게는 진실한 웃음을 나누어주고 윗사람에게는 간격없는 동지로 그 뜻에 순응하는 미력의 아들이 되어 주십시오. 祖國의 아들인 당신은 또 수많은 市民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나의 젊은 장교여!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먼 하늘엔 간간히 들리는 웅웅소리가 퍼져갑니다. 땅과 하늘이 똑같이 움직이는 이 분망

한 한국의 땅과 하늘도 어느 時間 한 가할 틈이 없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낮의 하늘, 밤의 하늘, 어릴 때 보던 청보석같이 맑던 북쪽의 하늘, 나는 자라가면서도 너무 하늘에 내마음을 띄우고 살아왔습니다. 노을이 사라지는 하늘, 호수 위에 조용한 하늘 그 중에도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갔던 금강산 비로봉 위에 하늘은 정말 그리움고 그리운 하늘입니다.

오래 전에 잃어버린 이 하늘을 나는 꿈 속에 그려보며 누가 있어 찾아주지만 바란답니다. 당신들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독서, 운동, 친구와의 만남, 명상, 교회 이 여러 순서 중에 당신은 그 어디에 속해 있겠지요? 마음 속에 통일,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私心을 떠난 인간의 정신으로 조국을 일깨워 주십시오. 자기를 먼저 찾는 인간정신 회복에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정신이 즉 당신의 정신이요, 당신의 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당신의 젊음엔 신의 암시가 미래를 보여 줄 것입니다. 우리의 들레는 산만합니다. 자칫 약해지기도 쉬운 순간순간이 우리 민족의 門

으로 거센 바람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단련된 정신과 몸, 그리고 그 지혜 활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읍니다. 비극이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장교 여러분은 행복의 아들이 되기 위해 이 비극의 時代를 걸어가는勇士들입니다. 숨쉬는 하늘과 숨 못 쉬는 하늘을 아시지요? 당신의 신앙과 숨결이 저 죽은 하늘을 向해 불을 뿜을 때 그 하늘은 깨어 날 것입니다. 구름은 흩어지고 쓰러졌던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적인 청년상

李 鍾 勝

<보라래 會長>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그 시대 그 나라 청년들의 슬기와 기개(氣概), 패기진취(霸氣進取)의 기상(氣象)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금동서(古今東西)의 역사를 통하여 익히 배우고 아는 터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近代史)가 민족수난의 점철(點綴)이었고, 광복을

맞이한 후에도 인위적(人爲的)인 조국분단과 「이데올로기」의 양분투쟁 급기야는 6·25동란으로 처절(淒絶)한 민족상잔(民族相殘)을 겪었으며, 그 후 4반세기에 걸친 복과 공산도배의 끊임 없는 적화야욕과 온갖 도전에 대하여 온 국민이 총화단결, 갖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며, 혼연(欣然)이 이에 맞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흉계만행(凶計蠻行)을 분쇄(粉碎)하여 오늘날 조국의 기틀을 반석위에 놓이게 하고, 국가안보의 확고한 기반확립과 미증유의 경기부흥, 철석같은 국민총화를 이룩한데에 우리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흥패(運命興敗)를 쌍견(双肩)에 걸고, 오직 스스로 역사적 사명감과 열화(熱火)같은 조국애에 몸바쳐 불살른 수 많은 우리 청년들의 이상(理想)을 보는 것이며, 여기에 위대한 이 민족의 슬기와 용기와 불요불굴(不撓不屈)의 강인(強毅)한 민족정신을 읽는 것이다.

이상적인 청년상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문득 외면적으로 미목(眉目)이 수려단정(秀麗端正)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사리(事理)에 밝으며 공리타산(巧利打算)에도 민첩(敏捷)한 약삭빠른 틀에 박힌 상을 연상할 수도 있으나 이상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의 추구(追

求)일망정, 끝이 없는 것이기에 여기에 이상적인 청년상이란 것이 어떤 특유한 기준이나 형식상의 구비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배경, 사명, 철학, 관념(背景, 使命, 哲學, 觀念)에 따라 소망스러운 바람직한 청년들의 자세, 정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이상상(理想像)이란 자연히 정립(定立)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현시대의 우리 나라의 이상적인 청년상을 우리 공군의 청년장교들에게 찾고자 한다. 내 자신 일찍이 한 동안을 공군에 몸담았을 때, 수 많은 청년장교들과 침식을 같이 하였고, 생사고락을 나누었기에 그들의 인간성(人間性)에 너무 친숙했던 탓인지 지금도 청년하면 먼저 공군의 청년장교들에게 생각이 달려가니 이상적인 청년상 또한 이들에게서 찾을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공군의 상징, 푸른 제복에 아직 동안(童顔)의 모습이 서리는 홍조(紅潮)된 얼굴, 해성같이 빛나는 눈매, 매서운 안광(眼光), 결의에 찬 넓직한 미우(眉宇), 다부진 한일자의 굳은 입모습이 그 활달하고도 민첩한 언동(言動)에 강인한 정신과 자세(姿態), 은근(隱懃)하면서 신의와 책임과 낭만(浪漫)을 알

며, 상하의 신뢰를 간직한 그 능률하고 믿음직스러운 자태는 과연 작금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으뜸가는 이상적 청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상에 완벽(完璧)이란 없기에, 늘 목적의식에 투철하고 오직 과묵궁행(寡默躬行) 일의매진(一意邁進)하는 발랄하고 건전한 청년상에서 이상상(理想像)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의 고도성장(高度成長)과 번영(繁榮)의 그늘에 언제부터인가 일부 청년들 중에 기회주의와 배금사상(拜金思想), 연약부박(軟弱浮薄), 나태(懶怠)와 모방(模倣)을 일삼는 타기(唾棄)할만한 풍조가 팽배(澎湃)해가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십이 메스껍고 안스럽기 그지없는 족속들이다. 이들에게는 아예 환멸(幻滅)상 밖에는 어찌 이상상의 편린(片鱗)인들 찾을 수 있겠는가?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창공(蒼空)에 백색 비행운(飛行雲)을 길게 끌며 대우주공간 속에 아연(亞然), 신기(身機)가 용해(溶解)하는 멧진 기개(氣概)의 도연(陶然)한 순간이 얼마나 값진 삶을 구가(謳歌)하는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청년상인가. 이 청년장교들의 발가락 때라도 대려서, 이 못난 환멸상들에게 한모금씩 먹였으면 한다.

국가는 어려운 때일 수록 이상적인 청년상을 숭상(崇尙)하며, 갈구(渴求)하며 가르치고 인도(引導)한다. 이상이 없는 청년은 차라리 없는이만 못하다.

청년은 이상을 추구하며 이상에 가깝도록 부단한 자기연마와 절차탁마(切磋琢磨)를 일삼아, 일조유사시(一朝有事時)에는 언제나 신명(身命)을 던질만한 각오와 결의가 충일(充溢)해야만 하겠다.

나는 우리 나라의 이상적 청년상을 공군의 청년 장교들에게서 찾으면서 모를지기 못 청년들이 이들을 본따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공군 청년장교들이여 더욱 전통과 긍지를 살려, 스스로 이상적 청년상을 자처(自處)하자.

저다와지는 길

全 英 雨

<東亞放送 副局長>

「찰스·슈워브」는 「현대인은 모두 세일즈맨이다」고 하였다. 그의 말이 옳다고 하면 나도 지금 나 자신을 세

일즈하고 있는 셈이다. 한때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님의 침묵」의 시인 「한 용운」 선생이다. 그는 이르기를 「자기를 성공시키는 것도 자기요, 자기를 실패시키는 것도 자기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에 성공하면 자기를 남에게 한 없이 자랑하고 뽐내지만 일단 어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반대로 이번엔 모든 것을 남의 탓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인간사 그 성패는 자기 하기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에 힘을 준 말이라 풀이하면 그다지 큰 잘못은 없을 것 같다. 모든 일은 나 하기에 달린 것이다. 나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고, 나의 목표의식은 어떤 것이며 나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해진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가, 인생의 도리를 다 하면서 나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따라서 그 직업이 어느 것이든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또 아울러 미래상이 뚜렷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철학은 인생의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요, 미래상은 꿈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일 것이다. 인생의 지혜를 키워 나가

며 정해진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끈기 있게 꾸준히 전진해 나아가는 자세, 이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누구에게나 마땅히 요구되어 진다.

이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동서 고금을 가릴 것 없는 석학, 문호, 사상가, 현인, 성자의 소리일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우리에게 종교 갖기를 권유하였고, 스위스의 사상가 「칼·힐티」는 모든 근심걱정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낙천적인 사상을 인생행복의 지름길로 안내하였으며, 프랑스의 문화평론가인 「아랑」은 그의 행복론에서 스스로 창조해야 행복을 찾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영국의 사회 평론가이며 휴머니스트인 「렛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지적하기를 경쟁, 죄악감, 피해망상, 여론, 피로, 공포 등을 극복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적극적인 자세라 일컬었다.

모두가 다 옳은 말이다. 기실 따져 보면 기발한 어떤 착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이야기에 머물고 있다. 누구나 다 함께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은 기발한 것일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모든 것은 나하기에 달린 것이라 할 때, 나는 표현을 약간 달리해 보고 싶다. 즉 나를 남에게 주

는 인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로 바꿔 놓아보고 싶다. 사회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생을 향유하는 이상 남의 마음의 눈에 비추이는 나의 인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나를 남에게 주는 인상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째는 용모이다. 나의 얼굴이다. 얼굴이 나를 남에게 주는 첫 인상일 밖에 없다.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 그의 마음 가짐, 그의 이력, 그의 신념, 그의 포부, 그의 성품 등을 대충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인간 40이면 제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곧 수긍되어지는 것이다. 용모는 주어진 것이라 체념을 가벼이 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나 좀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기만 하지 않은 국면을 찾아낼 수 있다.

둘째는 복장이다. 동일 복장이라도 복장이 단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복장 또한 나를 남에게 주는 중요한 인상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평소 복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째는 예절이다. 예절이 바른 사람은 남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예절이 훌륭하면 지도자의 품위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과 몸

가짐으로 하여 우리는 남에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절의 정도를 파악 실천하는 것이 사람됨을 입증하는 불가결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이 언행, 인품 그리고 처신이다. 남에게 호의를 출망정 불유쾌를 주지 않는 처신 그것을 마음과 몸에 잘 간직, 때로 자연스러움이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저다운 사람이 되어 갈 수 있을 게 아닌가. 저다와지기 사상, 저다와지기 운동을 주창한 안 병욱 교수의 인생론에 공감함을 보낸다.

태극기의 사연

馬

郁

<政訓·編輯室長>

군무(軍務)에 쫓겨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직장이랍시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월급쟁이면서도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를 찾아 다니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동한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당장의 직장 친구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남을 찾아 다닌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서 버르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직장의 우등생도 아니면 서 더우기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미는 것도 아니면서 하루 하루를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머칠 전, 몇해 동안 통 소식이 없던 K군을 우연히 만났다.

무소식(無消息)이 희소식(喜消息)이란 말도 있지만 나와 K군의 사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가질만한 일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했을까도 모른다.

일년가야 편지 한장 못 쓰는 주제가 고 보니 그 동안 안부전화 한 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K군도 미안함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도시민(都市民)의 물인정한 병폐의 일면 일는지도 모른다.

『참 오래간만일세. 그래 그 회사에 는 그대로 나가고...』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다 만났다. K군의 손을 잡고 보니 구정(舊情)을 잊을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전화 한 번 못 올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반가웠다. 헤어졌던 혈육(血肉)을 만난 것 이상이었다. 한때 K군과 함께

고생하던 옛 직장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권유에 못이겨 인근 대포 집에 끌려갔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얘기부터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지금 어린애는?』

『남매입니다.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뜻도 되고 제 형편에 들어면...』

『알 맞지. 낳는 것보다 잘 키워야 하지. 됐어. 들어면 알맞아...』

세상 흐름이 빠름을 세삼 느꼈다. 6년전인가 해서 결혼한 K군이 남매의 아버지 됐고 그에 이제는 자식 걱정 안 하고 생업을 위해서 분투할 수 있구나.....

『그때 지금 집은?』

『신길동입니다. 셋방 살이 6년만에 얼마전 겨우 오막살이 하나 마련했읍죠. 입주한지 아직 한달도 못됐읍니다. 집안이 정돈되면 선배님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마우이. 참 장한 일 했어. 집 마련이란 어려운건데 혼자 힘으로...』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있었으면 모르되 그렇지 못한 그로서는 정말 정성껏 살아 마련한 재산이었다.

직장생활이란 참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직장도 직장 나름이지만 직장인이 저축하여 자기의 분수에 맞는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정말 노력 끝에 결정(結晶)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의 삶의 의욕에 탄복했다. 아니 그의 인간육구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노력하면 길이 트인다는 말을 그에게서 엿보는듯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 사실 오늘 그래서 겨우 이 태극기 하나 사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동안 셋방 살이를 하다 보니 국기 한 장 장만 못했읍니다. 달 곳도 없고 해서. 이제 저도 겨우 국기를 간직할 수 있고 또 계양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었읍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손으로 내 집에 태극기를 달겠다는 마음자짐. 듣는 나 자신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라 사랑. 그것은 거창하고 웅대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또 나는 자랑스러운 후배, 아니 동료로 가지고 있다는데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았다.

자기 집을 장만하고, 그 집에 달 태극기를 사 들고 가는 그의 모습은 참

된 시민, 나라가 뭐고 민족이 뭐라고 떠드는 사람보다 몇 갑절 앞선 진정한 한국인(韓國人)의 모습, 바로 그것이 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태도, 또 그 국민이 겨레를 아끼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진정한 K군이야 말로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 중의 시민이었다.

또 그가 바로 공군 출신으로 한 때 XX기지에서 근무하던 용사란 점에서도 나는 이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적

어 넘길 수 있다는게 더욱 마음 후련하다.

집이건 직장이건 병영(兵營)이건 간에 우리 모두 태극기 아래 뭉쳐 오늘을 보람 있게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K군의 순박한 애국심(?) 티 한 점 없는 시민생활,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후배가 장만한 태극기, K군이 마련한 태극기. 그가 그 태극기를 자기 집 대문 앞에 게양할 때 그의 마음은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쾌감이 아닐까.



約 婚 女

A · 체 흡

1.

밤 열시였다. 보름달이 정월 가득히 빛나고 있었다. 「슈민」의 집에서는 「마르카 미하일로브나」 할머니의 청으로 시작되었던 저녁 신공(神功)이 방금 끝난 뒤였다. 그리고 지금 「나쟈」는—그녀는 잠시 정월에 나와 있었다—식당에 만찬의 식탁이 준비되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회당의 사제장(司祭長)인 「안드레이」 신부는 「나쟈」의 어머니 「니나 이바노브나」하고 무슨 말인가를 주고 받고 있었다. 「나쟈」의 어머니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탓인지 한결 젊어 보였다. 그 옆에는 「안드레이」 신부의 아들 「안드레이 안드레이치」가 서서 조심스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월은 고요하고 선선했다. 땅 위에는

검은 그림자가 호젓이 누워 있었다. 어디선가 멀리서 아마 멀리 떨어진 교외에 선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5월이란 느낌이 정다운 5월의 느낌이 감돌았다. 「나쟈」는 가슴 깊이 5월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는 맛볼 수 없었던 신비하고 아름다운 풍만하고 거룩한 봄의 생활이 여기가 아니라 수목이 우거진 저 하늘 밑,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들과 숲 속에서 지금 막 흠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녀, 「나쟈」는 벌써 스물 셋이었다. 그녀는 열 다섯 살 때부터 결혼 문제를 열심히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쟈」는 지금 창가에 서 있는 청년 「안드레이 안드레이치」와 약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쟈」는 「안드레이」가 마음에

들었다. 결혼식은 7월 7일로 날을 잡았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그녀에게는 기쁨이란 것이 없었다. 「나쟈」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서름에 잠겨 있었다……부엌이 있는 지하실로부터는 머슴들이 서성대는 소리, 나이프가 부딪치는 소리,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 등이 열려진 들창을 통해 들려 왔고, 칠면조를 굽는 냄새와 소금에 절인 버찌 냄새가 풍겨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무 변함 없이, 종말이라는 것도 없이 자기 한평생을 통해서 언제나 반복되었지,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때 누가 집에서 나와 층계 위에 몇었다. 그는 열흘 전에 「모스크바」에서 온 「알렉산드르 티모페이치」라는 손이었다. 혹은 그를 가리켜 간단히 「사샤」라고도 불렀다. 언젠가 오래 전에 할머니의 먼 친척이 되는 「마리야 페트로브나」는 몰락한 귀족 미망인이 병들어 헐쭉하게 여윈 조그만 몸을 이끌고, 자주 부조를 청하여 이 집에 오는 일이 있었는데 「사샤」는 그 미망인의 외아들이었다. 어찌서인지 「사샤」는 훌륭한 화가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는 「사샤」를 불쌍히 여겨 그를 모스크바의 코미사로프스키 학원에 입학시켰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미술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근 15년간을 보

내다가 어떻게 간신히 건축과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건축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어느 석판공장(石版工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늘 몸이 쇠약했던 탓으로 거의 매년 여름마다 할머니한테 와서는 요양하면서 몸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 단추가 채워진 프록코우트를 입고, 아래에는 구김살이 간 무명 바지를 입고 있었다. 샴셔에도 다림발이 서있지 않았다. 아롱든 그의 모습 어디서나 산뜻한 곳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는 무척 여윈 몸에 커다란 눈과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까마족족한 털복숭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딘지 아름다운 데가 있어 보였다. 슈민 댁에서는 집안 식구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이나 다름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 집에서 쓰고 있는 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샤」의 방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는 층계 위에서 「나쟈」를 보자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여긴 참 좋군요」 그는 말했다.

「네, 좋구말구요. 당신도 가을까진 여기서 머무르시도록 하세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월까지 머물려고 왔으니까요.」

그는 빙긋이 웃으며 「나쟈」옆에 앉았다.

「전 여기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자」는 말했다. 「여기서 바라보니, 어머니가 한결 젊어 보여요! 저의 어머니에겐 물론 여러 가지 약점도 있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러나 역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럼요 좋은 분이죠……」하고 「사샤」는 맞장구를 쳤다. 「당신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선량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만……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전 오늘 아침 일찍기 당신네 부엌엘 가봤는데요, 거기엔 네 사람의 머슴이 침대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더군요. 침대 대신에 깔린 누더기며, 약취며, 빈대며, 진땀물이며……2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꼭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야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머니께선 프랑스어도 하실 줄 알고 소인극(素人劇)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형편이니,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샤」는 얘기하면서, 여느 때처럼 「나자」앞에 가느다랗게 여윈 두 손가락을 내밀어 보였다.

「제겐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어떤지 이상하게만 생각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어머니는 어느 공작부인(公爵夫人)처럼 하루종일 전들전들 소풍만 다니시고, 할머니도 역

시 하시는 일이란 없고, 당신도 역시 마 찬가지지요. 그리고 당신의 약혼자 안드레이치 또한 일이라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나자는 작년에도 이런 말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은 듯 싶었다. 그리고 사샤는 달리 비평할 말을 모르는 것 같았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이 우습게 여겨졌으나, 오늘은 어쩔는지 나자의 마음을 연광케 만드는 것이었다.

「그건 이미 품된 말이에요. 이미 오래 전에 싫증이 났어요.」 나자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뭔가 좀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시도록 하세요.」

사샤는 빙긋이 웃고는 나자를 따라 일어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자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에 균형이 잡혀 있어서 사색에 비하면 무척 건강해 보이고 옷차림도 화려했다. 나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측은히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쩔지 멧적은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당신은 쓸데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나자는 말했다. 「당신은 방금 내 안드레이에 대해서 말하셨지만, 그분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시지 않으세요?」

「내 안드레이타……당신의 안드레이 같은 건 될 대로 되라지요! 당신의 청춘이 가없을 따름입니다.」



그들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모두들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혹은 집안에서 부르는 말로 한다면 조모님—지독히 뚱뚱하고, 짙은 눈썹과 작은 콧수염을 가진, 얼굴이 못생긴 할머니는 큰 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 집에서 제일 옷사람이란 것은 그 어조로나 말하는 몸짓에서도 넉넉히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시장에 몇 개의 점포와 원주(圓柱)와 정원이 달린 낡은 저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래도 매일 아침 주님의 은총으로 몰락하지 않기를 빌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단정한 의상에 코안경을 쓰고 손가락 모두 모조리 다이아 반지를 낀, 삼단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나자의 어머니 니나·이바노브나와 무슨 웃으운 얘기라도 시작할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가 빠지고 훌쩍 여윈 노인 안드레이 신부, 그리고 흡사 미술가나 배우처럼 곱슬머리에 풍채가 좋고 잘 생긴 나자의 약혼자 안드레이 안드레이치, 이 세 사람은 최면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너는 일주일만 있으면 몸이 회복될 거야.」 할머니는 사샤에게 말했다. 「그저 많이 먹어야 한다. 에이구, 네 꼴을 보

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꼴이 정말 말이 아니구나! 망나니 자식
이란 바로 너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이야.」

「방탕한 생활로 부친의 재산을 탕진하
고…」 안드레이 신부가 눈웃음을 치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망나니 매거지들과
상대를 했으니까요…」

「전 아버지를 좋아해요.」 안드레이 안
드레이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가져
가며 말했다. 「훌륭한 분입니다. 선량한
노인이예요.」

모두 잠시 말이 없었다. 갑자기 사샤
가 웃음보를 터뜨리며 냅킨을 입으로 가
져갔다.

「그럼 당신은 최면술을 믿고 계시나
요?」 안드레이 신부가 니나 이바노브나
에게 물었다.

「물론, 믿는다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만…」 니나 이바노브나는 매우 심각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
러나 자연 속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상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만은 믿
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씀엔 저도 완전히 동감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세계를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덧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름이 번지르 도는 커다란 칠면조가
나왔다. 안드레이 신부와 니나 이바노브

나는 그대로 토론을 계속하고 있었다.
니나 이바노브나의 손가락에서 다이아몬
드가 번쩍 번쩍 빛나고, 그녀의 두 눈에
서도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흥분한
것이었다.

「저는 당신과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해결하지 못할 수수께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신부님도 시인하
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합
니다.」

발참이 끝난 후 안드레이 안드레이치
는 바이올린을 켜고, 니나 이바노브나는
피아노로 반주했다. 그는 10년 전에 대
학 문과를 졸업했으나 직장에 취직도 안
하고 일정한 직업이란 것도 없이 이따금
자선 음악회에 출연할 따름이어서 거리
에서는 그를 음악가라고 부르고 있었다.

안드레이 안드레이치가 바이올린을 켜
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탁자 위에서는 사모바야르가 조
용히 끓고 있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사샤, 혼자뿐이었다. 이윽고 시계가 열
두 시를 치자,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끊
어져서, 모두 한 바탕 웃고는 서성대며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자는 약혼자를 진송하고, 어머니 방
과 자기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아래층은 할머니가 차지하고 있었다)아
래층 식당에서는 불을 끄기 시작했으나

사샤는 그대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차를 마실 때 언제나 모스크바 식으로 오랜 시간을 소비했고, 한 번에 오래 일곱 잔씩 마시곤 했다. 나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을 때에도 아대층에서는 오랫동안 하인들이 뒷정리를 하는 소리, 잔소리를 퍼붓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집안도 조용해지고, 이따금 사샤의 잔 기침 소리가 들려 올 뿐이었다.

2.

나자가 눈을 뜬 것은 아마 새벽 두 시 경이었으리라. 동이 틀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멀리서 딱다기 소리가 들려왔다. 나자는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자리에 누워 있으려니 편안은 했으나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5월이 되면 언제나 그렇듯이 나자는 일어나 앉아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생각이란 어젯밤의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어쩌서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청혼을 해왔을까?

그리고 어쩌서 자기는 그의 청혼을 승낙하고, 차차 그 친절하고 총명한 남자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 나자는 전과 다름없이 이처럼 부질없는 생각을 끈기있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혼식까지는 이제 달포밖에 남지 않은 오늘, 어쩐지 나자는 막연하고도 압박감을

주는 그 무엇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똑, 딱, 똑, 딱……」 야경꾼의 딱다기 소리가 느릿느릿 들려 왔다. 「똑 딱 똑 딱」

커다란 낡은 창문으로 정원이 내다보이고, 그 저쪽에서는 추위 때문에 맥을 못추고 시든듯한 라일락 꽃송이들이 보였다. 뽕얇게 짙은 안개가 살그머니 꽃술으로 숨어들어 그것을 덮어 버리려 하고 있었다. 저 먼 수목에서는 까치가 즐린 듯이 울고 있었다.

<아아! 어쩌서 내 마음은 이렇게도 괴로울까!>

<결혼 전에는 모든 처녀가 이런 기분 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모를 일이지! 혹시 사샤의 탓이 아닐는지? 그러나 사샤는 몇 해 전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 해왔고 또 그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단지 우습고 단순하게만 느껴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쩌서 사샤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까? 무슨 까닭일까?>

야경꾼의 딱다기 소리가 멎은 지도 이미 오래다. 새들이 정원과 창밀에서 저저귀고 안개는 정원에서 걸혀 갔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봄빛을 맞아 방긋 웃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온 정원은 태양의 따스한 애무의 손길에서 소생한 듯 싶었고, 나무잎의 이슬 방울들은 다이나

문드처럼 반짝 반짝 빛나서, 오랫동안 내 버려 두었던 낡은 정원도 오늘 아침에는 유달리 생생하고 화려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계셨다. 사색의 거칠고 낮은 소리가 들려 왔다. 아래층에서 사모바아르를 준비하며 걸상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왔다.

시간이 가는 것이 지루했다. 나자는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나서 한참 동안 정원을 거닐 뒤였으나, 그래도 아직 아침이었다.

나나 이바노브나는 탄산수가 든 컵을 손에 들고 눈물 자국이 난 얼굴을 나타냈다. 그녀는 강신술(降神術)과 동종요법(同種療法)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나자에게도 역시 그 속에는 무엇인지 신비하고 깊은 사상이 들어 있는 듯이 느껴졌던 것이다.

「어머니, 왜 우셨어요?」 하고 나자는 물었다.

「어제부터 난 어떤 할아버지와 딸 얘기를 쓴 증편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어떤 곳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의 상관이 할아버지 딸을 사랑하게 됐어. 난 마지막까지 읽진 않았지만, 한 대목에 가선 도저히 울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탄산수를 마셨다. 「글쎄, 오늘 아침에도

그걸 생각하고 또 울었다.」

「전 요새 마음이 우울해서 못견디겠어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나자는 말했다.

「어째서 전 잠을 못 잘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난 잠이 안 오면 눈을 꼭 감고, 바로 이렇게 말야, 자꾸 걸어나니든가 혼자말로 중얼거리든가 하면서 자기를 안나 카테리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옛날 역사에 나오는 어떤 얘기를 눈앞에 그려 보기도 한단다...」

<어머니는 내 마음을 모르신다. 또 아실 리도 없지> 하고 나자는 생전 처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 두렵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 한 구석에 감추어 두고 싶어졌다. 나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두 시가 되자, 모두들 점심 식탁에 앉았다. 수요일-정진일(精進日)이어서 채소 수우프와 물고기가 든 보리죽만 이 할머니 앞에 놓여졌다.

사샤는 할머니를 놀려 주려고 야채 수우프도 먹고 자기의 고기 수우프도 마셨다. 그는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노상 익살만 부렸다. 그러나 그 익살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어떤 정신적 의미를 내포한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무슨 재치 있는 설명이라도 하려고 핏기 없는 매우 여윈 손가락을 쳐들 적엔 도무지 웃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럴 적마다 그의 병이 점점 심해

가고 있다는 것과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가 측은히 여겨지는 것이었다.

점심을 마친 후 할머니는 쉬려고 자기 방으로 건너가고, 니나 이바노브나도 잠시 피아노를 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오오, 사랑하는 나쟈!」 사샤는 어느 날처럼 점심 후에 대화를 꺼냈다. 「당신이 내 말만 들어 준다면! 내 말만 들어 준다면!」

나쟈는 넓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한편 사샤는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으로 천천히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당신이 대학에 갈 생각만 가지다면! 그는 말했다. 「인간이란 고상한 교양을 지녀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은 수목 팔리 신(神)의 왕국은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때면, 당신의 거리에 돌맹이 하나 남지 않고, 만물은 밑바닥부터 파괴되고 말 겁니다. 모든 것이 마술에라도 걸린 듯이 일변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기에는 근엄하고 화려한 저택들이 서게 되고 아름다운 정원이 마련되고, 훌륭한 분수가 세워지고, 덕망 높은 사람들이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저속한 사람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속한 사람

들이 그때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서 아무도 저속한 무리들과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쟈, 떠나시오! 이렇게 숨막힐 듯한 죄에 물든 흐릿한 생활을 당신이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가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비록 자기 자신에게라도 보여주세요!」

「사샤, 진 못하겠어요. 곧 결혼을 해야 되니까요.」

「엡, 무슨 소리! 결혼을 해서 뭇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원으로 나가서 거닐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당신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이 빈둥거리는 생활이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인가를 깨달아야 해요.」라고 사샤는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나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은 남이 벌여 온 것을 먹고 사는 덕입니다. 과연 이런 생활이 깨끗하고 더럽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사실이어요>라고 나쟈는 말하고 싶었다.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눈물이 앞

을 가려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온몸이 바짝 쏘아드는 듯한 기분을 안고 나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해질 무렵에 안드레이 안드레이치가 왔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악기를 만지는 동안은 입을 다물 수 있었으므로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열한 시가 돼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외투를 입더니, 그는 나자를 껴안고 그녀의 얼굴이며, 어깨며, 손이며를 미친 듯이 키스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 나의 애인! 나의 미인!…」 그는 속삭였다. 「오오!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기뻐서 미칠 것 같소이다!」

나자는 이미 오래 전에 이 말을 들은 듯 싶었다. 혹은 어느 책 속에서 이미 오래 전에 내동댕이쳐진 낡은 소설 속에서 읽은 듯한 대사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식당에서 사샤가 탁자에 앉아서 그 길다란 다섯 손가락으로 잔을 들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는 화로로 짐을 치고 있었고, 니나 이바노브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성상(聖像) 앞에서는 등잔 불이 가물거렸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스러운 듯이 보였다.

나자는 밤 인사를 드리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자리에 눕자 곧 잠

이 들었다. 그러나 어젯밤처럼,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 나자는 눈을 뜨고 말았다. 그녀는 더 잘 수가 없었다. 무거운 것에 눌리는 듯한 불안한 생각이 가슴을 설레이게 했다.

나자는 앉아서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는 자기 약혼자와의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어찌된 셈인지 그녀는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지금은 아무 재산도 없이 순전히 할머니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어째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해 왔을까. 어째서 어머니가 단순하고 고독하고 불행한 여자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아래층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사샤도 잠에서 깬 듯 싶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하지만 순진한 청년이라고 나자는 생각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열이라든가, 훌륭한 분수라든가 하는 그의 여러 가지 공상은 빈기 어려운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순진하고 어리석은 공상 속에는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자기 공상과 같이 마음을 싸늘하게 진을시키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숨어 있는 듯 싶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자를 기쁨과 환희 속으로 몰아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팔아야 해…」 하고 나자는 증언거렸다.

「푹, 딱」

어디선가 멀리서 야경꾼의 딱다기 소리가 들려 왔다.

「푹, 딱… 푹, 딱…」

3.

6월 중순경 사샤는 문득 갑갑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모스크바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 거리에서 살 순 없습니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도도 없고, 배수시설도 없고, 식사할 기본도 나지 않고, 게다가 부엌을 들여다보면 그 더러움이란…」

「좀더 참고 견디 봐, 덜 된 자식같은니!」라고 할머니는 왜 그런지 낮은 소리로 타이르는 것이었다. 「7월에 결혼식이 있잖아!」

「그 때까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는 9월까지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싸늘하고 습기가 감도는 여름이었다. 수목은 축축히 젖었고, 정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음산하고 우울해 보였다. 이러한 풍경은 실제로 일할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었다. 아래층과 2층 여러 방에서는 처음 듣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

려 왔고, 할머니 방에서는 시끄러운 재봉틀 소리가 들려 왔다. 모두들 결혼식 때문에 분주히 서두르고 있었다.

나자를 위해서 털 외투만도 여섯 벌이 마련되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그 중 제일 싼 것이 3백 루우블이라는 것이었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사샤를 더욱 들뜨게 했다. 그는 자기 방에 들어앉아 화만 바라바라 내고 있었으나, 더 목고 가라고 모두들 달리는 바람에 7월 10일까지 출발을 연기하기로 약속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성(聖) 페드로프 날에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자와 함께 모스크바 가(街)로 떠나갔다. 얼마 전에 자기들 신혼부부가 살림하려고 빌린 집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였다. 그 집은 2층 건물이었는 데 지금까지는 위층 밖에 정돈되지 않고 있었다.

대청에는 페인트를 발라서 윤이 나게 반짝이는 가느다란 오리나무로 된 마루가 깔려 있었고, 원제 의자며, 피아노며 바이올린, 걸개 등이 놓여 있었다. 페인트 냄새가 풍겼다. 벽에는 금박테두리에 낀 유화(油畵)가 걸려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한 사람의 나체 여인과 그 옆에 손잡이가 떨어진 꽃병이 그려 있었다.

「정말, 훌륭한 그림이야!」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감탄하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미술가 쉬아체

브스키이의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또 둥근 테이블이며, 긴 의자며, 파란 천으로 커버를 씌운 안락의자들이 구비된 객실이 있었다. 긴 의자 위의 벽에는 법의(法衣)를 걸치고 빌로오도의 승모(僧帽)를 쓴 안드레이 신부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찬장이 걸린 식당을 돌아보고, 다음에 침실로 들어갔다. 어둡침침한 침실에는 두 개의 침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방을 꾸밀 적에는 언제 들어와도 기분이 상쾌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꾸민 듯 싶었고, 그 밖에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였다.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시종 나자의 허리를 껴안은 채 이 방 저방을 구경했다. 그러나 나자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모든 방, 침실, 안락의자 어느 하나 그녀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더우기 나체화는 그녀의 마음을 언짢게 만들었다. 지금 나자는 자기가 이미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니 지금까지 조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째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몰랐다. 지금까지 밤낮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안드레이는 나자의 허리를 껴안고 다니며, 아주 정답고 공손하게 얘기했다. 무척 행복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나자는 그의 태도에서 단지 저열하고 단순하고 참을 수 없이 야비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의 손은 쇠몽치처럼 딱딱하고 싸늘하게 느껴져서 설새 없이 도망가고 싶은, 울고 싶은, 창문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나자를 욕실(浴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벽에 붙은 마개를 돌리니 금방 물이 쏟아져 나왔다.

「어떻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2백 갈론쯤 드는 물 탱크를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정원을 거쳐서 한길로 나와 마차를 잡아 탔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금세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당신 춥지 않아요?」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먼지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나자는 잠자코 있었다.

「어제 사샤가 나더러 빈들빈들 놀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당신도 들었겠죠」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이었

다. 「그의 비난은 옳습니다! 정말 옳아요!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나도 모자에 휘장을 달고 관청에 다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쩐지 지긋지긋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오, 어머니 러시아여! 오, 어머니 러시아여! 그대는 쓸모 없고 무익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러시아에는 나같이 무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고민하는 어머니여!」

그는 자기가 놀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개념을 인용하고 나서 이는 시대적인 사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결혼하면……」 그는 말을 이었다. 「같이 시골로 갑시다. 시골에 가서 일합시다! 정원도 있고 냇물도 흐르는 땅을 사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인생을 바라봅시다……아, 그 얼마나 즐거울까요!」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모자를 벗고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나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걸!>

바로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안드레이 신부가 걸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 저기 아버지가 오시는군요!」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모자를 흔들며 기

뻐했다. 「저는 아버지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는 마부에게 돈을 치르며 말했다. 「훌륭한 분입니다. 선량한 분입니다.」

나자는 매일 밤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해서 마음에 없는 미소를 지어야 하며 바이올린 소리와 여러 가지 쓸모 없는 잡담을 들어야 하며, 결혼식 얘기만을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는 혈오에 가득 찬 언짢은 마음을 느끼면서 집으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비단옷을 차려 입고 언제나 손님 오기 전에 그렇듯이 목직하고도 위엄 있는 태도로 사모바아르 앞에 앉아 있었다. 안드레이 신부는 능글맞은 미소를 띠며 들어 왔다.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건전한 몸으로 계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하는지, 혹은 진담으로 그러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투였다.

4.

바람은 들창과 지붕을 휘몰아쳤다. 휘익휘익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 있는 난로도 그 속에서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밤 한 시였다. 집안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자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나자에게는 아래층에서 시종 바이올

린을 켜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덧붙이 떨어졌는지 요란한 소리가 들려 왔다. 잠시 후 니나 이바노브나가 잠옷을 입은 채 촛불을 손에 들고 들어 왔다.

「나자, 지금 소리가 난 건 무슨 소리지?」 하고 어머니는 물었다.

머리는 한 가닥으로 틀고, 겁에 취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는 이같이 소란한 밤에는 어느 때보다 훨씬 늙고 보잘 것 없는 조그마한 여자로 보였다. 나자는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자기 어머니를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경의를 품고 어머니의 말을 듣던 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말이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단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희미하고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난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저음(低音)이 뒤섞여서 「오오, 신이여!」라고 말하는 듯 들려 왔다. 나자는 침대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불현듯 머리를 누르면서 호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나자는 울면서 말했다.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머니가 알아 주신다면! 어머니, 부탁이에요, 제발 저를 여기에 떠나게 해주세요 네, 부탁이에요!」

「어디로?」 니나 이바노브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어 보고는 침대 위에 앉았다. 「어디로 간단 말이나?」

나자는 한참 동안 울고 있었다. 그리

고 단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이 거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나자는 마침내 입을 연다. 「결혼식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또 할 수도 없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선 어떻게 말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안돼, 안돼!」 니나 이바노브나는 깜짝 놀라며 성급히 말했다. 「마음을 진정해라! 그건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서 그러는 거야. 곧 좋아질 것이다. 혼자 있는 일이지. 너 안드레이와 말다툼이라든가 한게로구나? 그러나 사랑 싸움은 곧 낫는 법이란다.」

「오오, 저리 가 주세요!」 나자는 훌쩍 호느꼈다.

「그러마.」 니나 이바노브나는 말을 이었다. 「너는 조금 전만 해도 어린애였고, 소녀였는데, 지금은 벌써 약혼을 했으니 그러나 세상일이란 쉬지 않고 변하는 거란다. 너는 자기가 모르는 세에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나처럼 다루기 힘든 말을 거느리게 되는 거란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자기를 현명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어머니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자는 말했다. 「어머니는 정말 불행한 분이세요. 왜 그렇게 딱분한 얘기만 하세요네! 왜 그래요?」

니나 이바노브나는 무슨 말을 하려 했

으나,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난로에서는 다시금 낮은 소리를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나자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니나 이바노브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하고, 책을 손에 든 채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제 말을 들어 주세요!」 나자는 말했다. 「제발 들어 주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도 아셔야 해요. 저는 눈을 췌어요. 이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네, 어머니 그는 바보예요!」

니나 이바노브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너와 너의 할머니는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구나!」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도 살고 싶다. 보람 있게 살고 싶어!」라고 어머니는 되풀이하며 자기의 작은 주먹으로 가슴을 두어번 두드렸다. 「나를 자유롭게 해다오! 나는 이렇게 아직 젊은데, 살겠다고 애쓰는데, 너하고 너의 할머니는 나를 노파로 만드는구나!……」

어머니는 슬프게 흐느끼며 허리를 구부리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 모

습은 아주 작고 가엽고 초라해 보였다. 나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옷을 입고는 창 곁에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자는 밤이 새도록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졸곤 밖에서는, 누군가가 덧문을 두드리며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 왔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정원의 능금이 지난 밤의 바람 때문에 한 알도 남지 않고 떨어졌다는 것이며, 복숭아도 고목 하나가 자빠졌다는 등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 놓았다. 날씨는 흐리고 음침해서 등불을 켜야 할 지경으로 어두컴컴했다. 모두들 춥다고 투덜거렸다. 들창에는 빗발이 내리쳤다.

차를 마신 후 나자는 나샤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에 있는 안락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그래요?」 사샤가 물었다.

「저는……」 나자가 말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데서 살아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혼자를 멀리해요. 이 모든 방탕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멀리해요……」

「그럴 겁니다……」 사샤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말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이지요!」

「저는 이런 생활이 싫어졌어요.」 나자는 말을 계속했다. 「저는 이런 데서 하루도 더 참을 수는 없어요. 내일 저는 여

걸 떠나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요！」

「사샤는 잠시 놀란 듯이 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어린애처럼 기뻐했다. 그는 기쁨에 못이져 춤이라도 출 듯이 양손을 흔들며 슬리퍼를 달각거리기 시작했다.

「훌륭합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나자는 그가 곧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무한히 의미심장한 것을 들려 주리라 기대하면서 마치 마술이라도 걸린 듯이 그 커다란 눈을 깜박이지도 않으면서 사랑에 취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자에게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어떤 새롭고 넓은 세계가 이미 눈앞에 열려지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로 충만된 나자는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록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었다.

「저는 내일 떠나겠습니다.」 그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배웅하러 정거장에 나오세요…… 제 트렁크에 당신의 짐도 넣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차표도 사 놓을 테니 세번째 종이 울리면 차에 오르세요. 함께 떠납니다. 모스크바까지 함께 가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케테르부르크로 가면 됩니다. 여행권은 가지셨죠？」

「네,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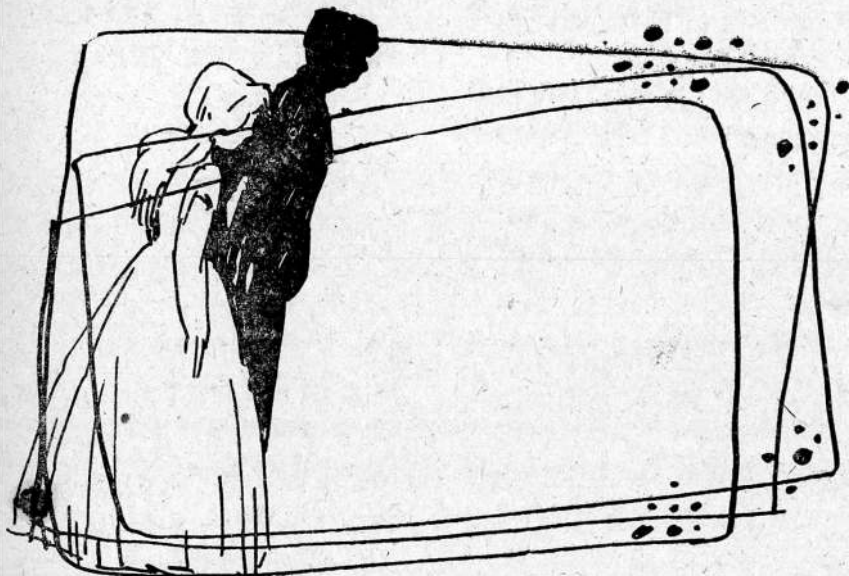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도 후회하거나 불평하진 않겠지요.」 사샤는 믿는다는 어조로 말했다. 「가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운명에 맡겨 버리세요. 당신의 생활을 뒤집어 얹으면 만사는 일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을 뒤집어 얹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럼 내일 출발해도 좋지요？」

「네, 제발！」

나자는 적이 흥분해 있음을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때보다도 한층 마음이 괴로운 듯도 싶었다. 짐을 나갈 때까지는 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2층에 가서 자리에 눕자, 얼굴에 눈물 자국과 미소를 남긴 채 곧 잠들고 말았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세상 모르게 굳히 잠을 잤다.

5.

마차가 왔다. 나자는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다시 한번 어머니와 자기 물건을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침대 옆에 서서 둘러 보았다. 다음에 살그머니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조용하고 나나 이바노브나는 잠들고 있었다. 나자는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면서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밖에는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머릿수건이 흠뻑 젖은 채로 현관에 서 있었다.

「네가 탈 자리는 없구나, 나자!」 머슴들이 짐을 싣기 시작했을 때 말했다.

「왜 하필 이런 날에 전송하러 간다는 거냐! 집에 있거라, 무슨 비가 이렇게 온담!」

나자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을 않았다. 사샤는 나자를 부축

해 태우고 담요로 발을 가려 주고는 나자와 가지런히 앉았다.

「조심해라! 잘 가거라!」하고 할머니는 현관에서 외쳤다. 「그리고 사샤야 모스크바에 가면 편지해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주여, 보살펴 주시기를!」

「무슨 날씨가 이럴까요!」 사샤는 말했다.

이때 비로소 나자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정말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이 똑똑히 들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작별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까지도 정말 이곳을 떠나리라고는 믿어

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거리여, 잘 있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자에게는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낱날이 되살아 올랐다. 안드레이, 그의 아버지, 새 주택, 꽃병과 나체 여인을 그린 유화, 그러나 이 모든 추억들은 이미 나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다. 단지 야비하고 천박하게 느껴질 뿐, 이 모든 것은 뒤로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차에 오르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장엄하고 거대하다고 생각되었던 과거의 모든 것은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으로 압축돼 버리고 지금까지는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넓고 웅장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오는 것이었다. 빗줄기가 차창을 두들겼다. 푸릇푸릇한 들과 전기줄 위에 새들이 앉아 있는 전주들이 어른거릴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득 나자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어 대학에 가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옛말에 <카자흐처럼 떠나간다>는 속담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나자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종군요!」 사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아요!」

6.

가을도 가고 겨울도 지났다. 나자는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리워졌다. 사샤도 그리워졌다. 집에서는 부드럽고 다정한 사연이 들어 있는 뿔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잊혀진 듯이 생각되었다.五월의 시험을 마친 나자는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사샤를 만나러 모스크바에 들었다.

그는 작년 여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털복숭이 수염이며 엉클어진 머리며 프록코우트에 무명바지며, 커다랗고 아름다운 두 눈이며,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좋지 않았고 몹시 피로해 보였다. 몹시 여위고 늙어 보였다. 그리고 노상 기침을 하고 있었다. 어째서인지 나자는 그에게서 우울한 시골뜨기 같은 인상을 받았다.

「오오 나자가 왔군!」하고 말하며 그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랑하는 나자!」 두 사람은 잉크와 페인트 냄새에 숨이 막힐 듯 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인쇄소 안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이윽고 사샤의 방으로 갔다. 거기서 역시 담배 연기가 코를 쫓았고, 여기저기 칩벨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의 식은 사모바아르 옆에는 검은 종이로 덮인 깨진 접시가 놓여 있었고, 책상과 마루 위에는 파리 죽은 것이 지저분히 깔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사샤가 자신의 개인 생활을 되는 대로 보내고 있으며, 사치를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의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그의 취미에 대해서 그를 설복한다 해도, 그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웃어 버릴 것임에 틀림없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나자는 서두르며 말했다. 「가을에는 어머니가 저를 만나려고 페테르부르크로 오셨대요. 할머니도 이제 노여워하지 않고 줄곧 내 방에 가서는 벽 위에 성호를 긋고 계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더군요.」

사샤는 즐거운 듯한 내색을 짓고 있었으나 연달아 기침을 하며 쉼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나자는 그의 병이 정말 나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따름인지를 분명히 몰라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샤, 당신은 몸이 편찮 않군요!」 하고 나자는 말했다.

「아니 괜찮아요. 병은 병이지만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저런, 어찌나!」 나자는 흥분해서 외쳤다. 「어째서 의사한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째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네, 다정한 사샤.」 이렇게 말하는 나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며, 화병과 나체 여인을 그린 유화며, 지금은 아득한 옛날처럼 생각되는 자기 모든 과거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이미 사샤는 작년처럼 신비하고 흥미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또한 나자를 울게 만든 원인이었다.

「사랑하는 사샤, 당신의 몸은 말이 아니군요. 저는 당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일이라면 뭣이든지 하겠어요. 당신은 저의 은인이예요! 당신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나의 다정한 사샤! 정말 당신은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다정한 분이세요.」

그들은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페테르부르크에서 한 겨울을 보내고 온 지금, 나자에 있어서는 사샤도, 그의 말도, 미소도, 그의 모든 모습조차도 오래 전에 시들고 남아 빠져서 지금은 이미 무덤 속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무엇을 암시해 주는데 불과했다.

「저는 모레 불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쿠무이스(젓말)를 마시러 가렵니다.」 하고 사샤는 말했다. 「저는 쿠무이스가 마시고 싶어요. 저와 함께 어떤 친구 내외가 떠납니다. 그 부인은 훌륭한 부인입니다. 저는 그 부인에게 대학에 들어가라고 줄곧 설복하고 있지요. 저는 그 부인의 생활을 일번시키려고 생

각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진뻐 다음, 두 사람은 정거장으로 떠났다. 사샤는 차와 능금을 나자에게 사주었다. 기차가 떠나자 그는 미소를 띄며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의 병이 얼마만큼 무거워졌는지는 그의 걸음 걸이를 보아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듯도 싶었다.

나자는 정오경, 자기 고향에 도착했다. 정거장에서 집으로 마차를 달리는 동안 거리는 무척 넓게 보였으나 집들은 땅에 달라붙은 듯이 작아 보였다.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다. 다만 불그죽죽한 외투를 입은 특이한 악기 수선사(樂器修繕士)를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집마다 뿌얇게 먼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이미 늙은 대로 늙고 피동피동 보기 싫게 살찐 할머니는 나자를 두 손으로 껴안고 그녀의 어깨에다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이나 흐느끼며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나자의 어머니 니나 이바노브나도 보기 좋하게 늙어 버렸고, 그의 온 몸은 바삭 여위어 보였다. 그러나 역시 옷차림만은 단정했고, 손가락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번쩍이고 있었다.

「귀여운 내 딸!」 어머니는 온몸을 들먹이며 말했다. 「귀여운 내 딸!」 그들은 앉아서도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미 지나간 과

거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미 사교계의 지위도, 지난날의 영광도, 손님을 초대할 자격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은 평화스럽고 단란한 가정에 경관이 불현듯이 야밤 중에 뛰어들어 가택수색을 한 끝에 주인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위조했다는 죄목이 드러남으로써 지금까지 단란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영원히 깨어지고 만 그런 경우와도 흡사했었다.

나자는 2층으로 올라가 전과 다름없는 침대를 보았다. 창문 밖으로 즐겁게 조잘되며 햇빛이 넘쳐 흐르는 예전의 정원을 보았다. 나자는 자기 책상을 만져 보기도 하고, 앉아 보기도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구수하고 기름기가 도는 크리임과 함께 차를 마셨다.

그러나 어떤지 허전했다. 방안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친정이 내려지는 듯이 느껴졌다. 해가 저물자 나자는 자리에 누웠다. 폭신하고, 따스한 침대에 누워있으려니 어떤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니나 이바노브나가 잠시 이야기하려고 들어왔다. 그녀는 무슨 죄나 지은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래 어머니, 나자?」 어머니는 더듬

더듬 말했다. 「너는 만족하나? 정말 만족하나?」

「네, 만족해요.」

니나 이바노브나는 일어서서 나자의 머리 위에 성호를 그었다.

「나는 이렇게 믿음에 깊어졌단다」하고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늘 생각에 잠기곤 한단다...내게는 모든 것이 햇빛처럼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어. 인생은 프리즘을 들여다보는 듯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인 듯 생각된다.」

「그런데, 어머니, 할머니 건강은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다. 그때 네가 사샤와 함께 떠나간 후 집에 진보틀 보냈을 때, 할머니는 그걸 읽으면서 그만 기절하고 마셨단다. 사흘 동안 일어나시지 못하셨어,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신공을 드리지 않으면 우는 것이 할머니의 생활이었었지. 그러나 지금은 괜찮아져셨어」 어머니는 일어서서 방안을 거닐었다.

「푹, 딱」 야경꾼의 딱따기 소리가 들려 왔다. 「푹, 딱, 푹, 딱」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프리즘을 보듯이 지나간다고 생각되는 것 이란다」 어머니는 말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각적(自覺的) 생활이란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일곱 가지 원색으로 귀

납(歸納)하도록, 그 원소를 해부해서 배 원소를 따로따로 연구해야 된다는거야.」

어머니가 그 다음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방에서 나가셨는지 나자는 몰랐다. 벌써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가왔다. 나자도 집에 익숙해지고 말았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거리며 사모바아르 준비에 바빴다. 니나 이바노브나는 밤마다 자기의 철학을 논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고, 한 푼이라도 일일이 할머니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 안에는 파리떼가 뿔뿔 날아다니고 있었다. 천정이 점점 낮아지는 듯이 느껴졌다. 할머니나 니나 이바노브나는 안드레이 신부와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를 만날까 두려워 거리도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자는 정원과 거리를 거닐면서 회색 담벽과 집들을 구경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 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남아빠져서 자기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젊고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분간키 어려웠다.

오오! 세롭고 빛나는 생활이 빨리 돌아와 주었으면! 인간이 정적해야 하고, 즐겁고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 운명에 대담하게 직면할 수 있는 생활이 하루 속히 돌아와 주었으면!

어쨌든 그런 생활이 온 것임에는 틀림

없었다. 이런 시대가 오면 할머니의 집은 만사가 정돈되어 지하실의 불결한 방에는 하인 넷만이 살게 되리라. 그 시대가 오면 집은 혼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도 회상하는 사람이 없이 잊어버리고 말리라. 그러나 지금 나자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이웃집 아이들 뿐이었다. 나자가 정원을 거닐고 있으려면 아이들은 담벽을 두드리고 시시덕거리며 빈정대는 것이다.

「약혼녀! 약혼녀!」

사라토프에서 사샤의 편지가 왔다.

그 속에는 출주는 못하고 우스운 자기의 독특한 필적으로 불가의 여행은 완전히 성공이었다는 것, 그러나 사라토프에서는 다소 몸이 약해져서 지금은 말도 못하고, 2주일 간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나자는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선고를 받은 듯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 예감도, 사샤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전처럼 그녀를 슬프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또한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다. 지금 나자는 무척 살기를 원하고 있었고, 하루 속히 페테르부르그로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사샤에 대한 그녀의 우정도 지금은 단지 그리움 뿐으로 머나먼 과거의 일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자는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면 창가에 앉아 귀를 기울였

다. 아래층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할머니는 매우 당황한 어조로 무엇인가를 재빨리 물어 보고 있었다. 뒤이어 누구의 울음 소리가 들려 왔다... 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할머니는 방구석에서 신공을 드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전보가 놓여 있었다.

나자는 할머니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방안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전보를 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알렉산드르 티모페이치가 더 간단히 말하면 사샤가 폐병으로 사라토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할머니와 나나 이바노브나는 연(戀)미사를 드리러 교회로 떠났다. 그러나 나자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돌아다니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기의 생활이 사샤가 원하던대로 전환되었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자기가 이방인(異邦人)인 동시에 고독하고 소용없는 인간이며 또 자기에게도 이 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과거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불탄 뒤에 바람에 날린 잣가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나자는 사샤의 방으로 가서 잠서 서 있었다.

「잘 가요. 그리운 사샤!」 그녀는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자의 눈앞에는

새롭고 넓은, 자유로운 생활이 떠올랐다. 아직 막연하긴 하지만 신비로움에 넘쳐 흐르는 그 생활은 그녀를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다.

나자는 짐을 꾸리러 아래층으로 내려

갔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이제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희망에 차고 상쾌한 마음으로 거리를 떠났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락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공군교재창

편집실전화: 69-3511, 7906-5241

인쇄: 1977년 5월 4일

발행: 1977년 5월 10일



周永福 參謀總長은 植木일을 맞아 紀念植樹를 했다<4. 5>

美 太平洋司令部 參謀長 Leroy J. Manor 中將이 訪韓 人事次
空軍本部를 禮訪<3. 22>





空軍의 決意

하나 : 나는 목숨바쳐 領空을 守護한다.

둘 : 나는 一擊에 北傀軍을 沒殺한다.

셋 : 나는 期必코 責任을 完遂한다.

넷 : 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다섯 : 나는 維新課業 遂行에 선봉이 된다.



일련번호

D-061

정훈과

필승의 공군되자